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2월 27일 수요일(주간) 제 358 호



법석 조대 **태허 스님** 본원종 종정



"오직 아미타불 존재에 의지하여 몸과 음성 그리고 생각까지도 아미타불과 하나가 될 때 참다운 염불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하여 일념으로 염하면 오매일여가 되고 궁극에는 생사일여가 되는 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 뉴스 news in news

무량사 도난문화재 회수

무량사 불상 3구(충북유형문화재 100호 · 사진)가 도난 13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도난 문화재의 회수율이 5%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운'이 좋은 경우다. 하지만 이 문화재들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무량사로 돌아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범인은 지난해 2월 불상을 사중에 팔려다 검거됐지만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공소시효 7년과 특수강도혐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검찰은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만 범인은 '훔친 것이 아니라 장물인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선의취득'을 주장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무량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환부로 불상을 되돌려 받았다. 만일 범인이 선의취득을 입증한다면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또 한 차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범인이 불상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박 모 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의취득제도'에 의하면 절도나 불법취득 등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재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해 2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문화재 도난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이 기간만 지나면 도난 문화재를 매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들은 "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관리 당국의 자료를 통해 도난문화재인지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선의취득제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 개정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현재 3개월째 국회에 정식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의 여야 대치국면과 여야 모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연내 개정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이번 사건은 문화재보호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문화재 도난 예방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취재 2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합장인사**

1. 일상생활 가운데 불자님은 합장 인사를 하십니까?
   ①꼭 한다 ②가끔 한다 ③하지 않는다
2. 합장인사를 하는 경우는?
   ①스님에게만 한다 ②누구에게나 한다
   ③장소나 분위기 따라 한다
3.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①어색해서 ②상대방이 당황할까봐
   ③습관화 되지 않아서

설문 참여: 2월 2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9호 9면에 실습니다.

정토회, '인도불교 부흥' 나섰다

행자운동 등 제4차 1000일 결사계획 발표

석가족 개종 지원…5만명 대상 수계도

일과 수행 공동체인 정토회가 10년간의 3000일 결사를 성공리에 회향하고 본격적인 대중중심 불교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인도불교부흥사업에도 본격 나선다.

정토회는 20일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중중심의 정토행자운동, 인도중심의 해외불교 포교 등 '제4차 1000일결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고속도로(주)와 LG건설 소속 인부 50여명은 18일 송추 원각사 천막법당에서 철야 기도중인 회룡사 성타 성환 법현스님을 강제로 1km 떨어진 공사장 입구까지 들어 옮기며 폭행했다.

이날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토회는 앞으로 대중중심, 자원봉사자 중심의 대중불교운동인 '정토행자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지금까지의 전문가중심 정토회 운동은 대중운동인 '정토행자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토행자들의 신행공간인 전국 10개의 '정토법당'도 '정토회'라는 대중불교운동 공동체를 위한 장소로 거듭난다.

또한 정토회는 인도불교부흥에 적극나서 인도인들의 불교개종을 적극 지원한다. 인도 보드가야 지역에 법당을 건립하고, '수자타 여인'의 집터에 명상센터를 세워 국제적인 수행도량으로 조성하며, 불경을 보급하는 한편, 불교아카데미를 열어 인도지식인 포교에도 역점을 둔다. 이와 관련 5월 27~31일에는 보드가야 지역에서 인도인 약 5만 명에 대한 수계식도 봉행한다.

정토회는 또 생활 속에 정토세상을 만들기 위한 환경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진행됐던 '쓰레기 제로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 불교적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시민환경운동으로 확산시킨다.

이외에도 정토회는 △중앙수련장 건설 △정토대전 편찬 △북한난민 지원 등 통일운동 △미국 독일 팔리핀 등에 대한 포교사업 등을 제4차 1000일 결사 사업으로 확정했다.

한편 정토회는 유수 스님을 새 대표로 선출하고,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에 박석동, 좋은벗들 사무국장에 노옥재 씨 등을 임명했다.

☞ 관련기사 3 · 22면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제주 국제도시법 개정 요청

조계종, 전통사찰 원형복원 · 증개축 가로막아

조계종은 5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해 "전통사찰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지 않아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등의 규제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전통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저평가한 것으로 전통사찰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전통문화 체험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설치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15일 건설교통부에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에 기존의 종교시설에서의 증개축행위에서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에서의 경내지, 문화재보호법상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의 증개축등의 건축행위 범위를 복원 및 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관련기사 2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중앙승가대 역경과 2명 지원 폐과 위기

중앙승가대 역경학과가 폐과될 위기에 놓였다.

중앙승가대가 18일 마감한 200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결과 역경학과 지원자는 단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마감한 정시모집에서 역경학과 지원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학과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정원(5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전공과목은 자동 폐지된다.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종석스님은 "일단 교육부와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며, 3월 개강과 함께 강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자연 · 수행환경 보호 범불교도대회 개최

3월 5일 조계사서 비구니 스님 폭행 규탄

전국 본말사 스님 및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자연환경 보존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3월 5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린다.

이번 규탄 결의대회는 18일 북한산관통도로 저지를 위해 송추 원각사 현막 농성장에서 1000일 정진 기도 중이던 회룡사 비구니 성타, 성환, 법현스님이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주) 직원 30여명에게 폭행당한 데 따른 것이다. ☞ 관련기사 2 · 22면

이날 법회에서는 또 금정산 범어사 · 천성산 내원사 · 미륵산 용화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행위를 저지키 위한 정부와 지자체에 불교계 요구사항을 천명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산 회룡사, 월정사 지장암, 백양사 천진암, 동화사 양진암 등 전국에 모인 200여 비구니 스님들은 21일 조계사에서 '여성 성직자 인권유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 후 비구니 스님들은 여의도 LG그룹사옥을 방문, 비구니 스님 폭행 관련 항의문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LG측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의문 접수를 거부했다.

강유신 기자

일찍 찾아온 봄…통도사 매화 활짝



봄을 재촉하는 매화의 향기에 움츠려들었던 어깨를 펴고 향긋한 봄내음을 가슴속 깊이 채워본다. 예년과 다르게 일찍 찾아온 봄기운에 통도사의 홍매화가 산사를 찾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 천미희 기자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 대만 불광산사

순례 참관단 모집

현대불교는 대만 불공산사에서 열리는 중국최고의 국보 법문사 석가모니 불지사리 전시회 참관 순례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 불지사리는 '세계 9대 기적'으로 불릴 만큼 진귀한 성보입니다. 또 대만 불자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는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친견 법회도 열립니다.

■일 정: 3월28일(목)~4월1일(월) 〈4박5일〉
■참가비: 97만원(포함내역: 공항세 /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 및 문의처: 이스턴관광 02)779-4747(담당:엄호일 실장)
■접수기간: 3월20일(수)까지
■입금계좌: 서울은행 39908-0725204(예금주: 계명세계여행)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서울 불광산사,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
●주 관 : 계명세계여행사, 이스턴 관광

관련기사 19면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은 민족문화의 유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과 천년고찰의 수행환경 파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범어사와 내원사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경부고속철도',
'북한산과 전통사찰을 파괴하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조계사 앞 주상복합건물', '통영 용화사 케이블카 설치' 등 우리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불교계의 환경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불기 2546년(2002)년 3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범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회
• 문의 : 02) 735-5864 • 전송 : 02) 735-0614

사 설

전통사찰 또 규제받아선 안된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또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다시 한 겹의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타의 기존 종교시설에 대하여 증, 개축까지를 인정하는 이 법을 그대로 전통사찰에 적용할 경우, 전통사찰의 복원이라든가 적절한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전통사찰의 보호에는 언제나 규제가 따르게 된다. 무분별한 개발 등에 의해 전통사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증, 개축 및 신축은 위의 두 법에 의해 엄하게 제약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서의 전통사찰 역시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격 상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르는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마저도 규제한다면 우리의 유수한 전통 문화라는 관광자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전통사찰의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많은 공사들이 지닌 문제점도 있다.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한 복원도 있었고, 전통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예도 많다. 그러나 이 또한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의 엄한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규제를 더함으로써 문화의 전승을 저해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를 사장시키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구니 스님을 폭행하다니…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지난 8일 이른 아침 서울고속도로(주)와 LG건설이 수행중인 비구니 스님을 폭행하고 천막법당 일부를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철야기도 중인 비구니 스님들이 인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가사가 찢기고 안경이 부서졌으며 인대가 늘어나 오른팔과 허리를 못쓰고, 한 비구니 스님은 가슴에 피멍이 들어 입원 치료 중이다.

이 사건의 발생 직후부터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연대는 물론 전국 불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주도한 폭력배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조계종은 다음달 5일 조계사에서 전국의 스님과 신도 1만여 명이 동참하는 '자연환경보존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범불교 차원에서 강력 대처한다는 자세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정부 또는 대기업과 불교, 대기업과 환경단체 · 시민연대간의 대결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라며, 모두가 속히 냉정을 되찾길 기대한다. 서로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

또 이번 사건을 주도한 회사와 폭력배들에 대한 민 · 형사상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부상당한 스님들에 대해 피해 보상과 파괴기물의 변상조치가 공개 사과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

북한산 관통도로의 경우 지금 설계대로 도로가 뚫릴 때 터널 환풍구가 사찰 인근에 설치되고 수맥이 끊겨 식수 조달이 어려워지며 새 도로로 인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등 사찰측과 시민연대 등의 지적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명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교계, '주5일 근무' 발빠른 대응

7월시행대비 주말 참배객 수련프로그램 개발 박차

'템플스테이'도 연중 포교사업으로 개편

올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가 확실시됨에 따라 종교계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 28일까지 노사정(勞使政) 협상을 계속하되 그 성패에 관계없이 의원입법 형태로 3월 임시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교계는 신도들의 종교 생활 변화에 대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1월1일부터 중앙종무기관의 주5일 근무제를 전격 실시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휴무가 길어지면 산사에 참배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수련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등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월드컵 개최기간에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템플 스테이(Temple Stay)'를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해 불교문화 포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템플스테이로 확보된 공간과 인프라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신도들의 신행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3월중 포교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진행 시범사찰 선정(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 10여곳 +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찰 10여곳) 및 실시, 4월초 심포지엄 개최에 이어 종합자료집 발간 및 보급에 나선다.

한편 각 사찰들도 주5일제를 대비해 산사 수련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합천 해인사는 문화 유산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을, 서울 봉은사는 가족단위의 2박 3일 수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해남 대둔사는 2박3일 일정의 주말 수련회 '대둔사 새벽 숲길'을 실시한다.

개신교계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교회 출석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걸맞는 목회 및 선교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는 이에 대비, 올 7월 서울 양재동에 가족치료실과 상담실, 가족문화관 등을 갖춘 가정사역 전문빌딩 '훼밀리아'를 건립해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개별 교회 차원에서도 △주말 가족캠프 등 도시-농어촌 연계 프로그램 개발 △수양관 등을 활용한 1박 2일 수련 예배 △부부 성장학교 △친교와 봉사 강화 △또래 중심 프로그램 등을 준비중이다.

천주교 역시 다양한 봉사활동 및 신자들의 재교육 기회 확대, 주말 수련등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는 2005년까지 96억원을 들여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성당 일대를 성서와 휴양마을, 천주교박물관 등을 갖춘 문화관광지(바이블 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m@buddhapia.com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스님 49재 법회가 17일 해인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참석자들은 혜암스님의 혜안과 지도력, 수행심을 본받아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혜암큰스님 49재법회 봉행

해인사서, 사리친견 3월28일까지 연장

조계종 제 10대 종정 혜암당 성곡대종사 49재 법회가 17일 해인사 구광루 앞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명종을 시작으로 봉행된 49재 법회는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의 추모법요,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스님의 행장소개, 혜암스님의 생전 육성법문 청취와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의 추도사, 총무원장 정대스님, 수좌대표 진제스님, 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 법장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등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법전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부처님의 혜명을 잇기 위하여 무언의 가르침을 참구하고 또 참구해야 할 것이다"며 혜암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편 해인사는 현재 보경당에서 공개되고 있는 혜암스님의 사리친견을 부처님 열반절인 3월 2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영문표기 "Jogye"로

국제교류위, 사찰안내표지 한 · 영 · 漢 명기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현재 'Chogye'로 쓰이고 있는 '조계종'의 영문표기를 'Jogye'로 통일시키고 한자도 삽입키로 했다.

교류위원회는 이와같은 새로마자 영문표기 안건을 차기 종회에 상정하는 한편 사찰의 새로운 안내표지도 한글 영어 한자의 공동명기를 권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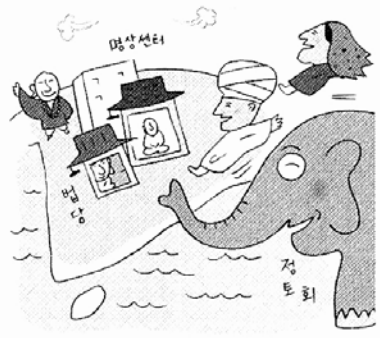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또 4월 26일경 불교국가와의 우의 및 관계증진을 위해 태국 싱가폴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일본 대만 미얀마 베트남 몽고 인도 캄보디아 주한대사 초청만찬 행사를 갖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승가학원 올 예산 71억3천만원 확정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정대)은 20일 오후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승가학원 예산을 71억3천3백80만원으로, 중앙승가대 예산을 26억8백3십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을 복지법인 승가원 산하시설인 상락원으로 이전키로 결의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인도를 다시 부처님 땅으로…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홈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나란다삼장불학원은 불교교양대학, 불교대학 ·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전문불자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들과 법사 · 포교사 및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개설한 특별교육기관이다. 과목별 특강으로 경 · 율 · 논 · 선 · 밀교 · 의식 등 각 과목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여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스님들에게는 일어 · 영어 · 중국어 어학코스도 병설, 외국유학을 갈 수 있도록 주선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교육기간을 거쳐 수계하도록 하며 일반 사찰과 포교기관에 나아가 전법도생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다.

▣ **모집과정**
사미과 (沙彌科) : 사미율의 · 초발심자경문 · 치문경훈 · 천수경 · 반야심경 · 아함경 · 예불의식 · 법회의식
사집과 (四集科) : 서장 · 도서 · 선문촬요 · 방등경 · 계율해설 · 비교종교학 · 구사론 · 장례의식 · 방생의식
사교과 (四敎科) : 능엄경 · 금강경 · 원각경 · 반야경 · 기신론 · 유식론 교단사 · 불공의식 · 기도의식
대교과 (大敎科) : 법화경 · 화엄경 · 정토사상(미타, 약사, 미륵, 밀교) · 선문염송 · 전등록 · 삼론 · 교리발달사 · 제사의식
특별과정(외국어학과) : 영어 · 일어 · 중국어(회화중심)

▣ **교육기간** : 2년(과정별 선택, 통신반 가능)
▣ **개강일시** : 2002년 3월 9일 오후 2시
▣ **교 수 진** : 한정섭 박사, 김호암(한국불교통신대학원장), 남진각 스님(LA 대각사주지) 오형근 교수(전 동국대불교대학장), 최종안 교수(중앙승가대학 교수), 진하 스님(예술대학 주임교수), 혜인 스님(신흥사 주지) 외
▣ **강의시간** : 각 과별로 매주 월~목요일까지 오후7~9시
▣ **접수문의** : 나란다삼장불학원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나 란 다 삼 장 불 학 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제6기 전수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제 제 9호(작법무 기능보유자) 이신 三鍔 金海岡 큰 스님의 범패(梵唄)와 범무(梵舞)를 전수코저 제 5기 전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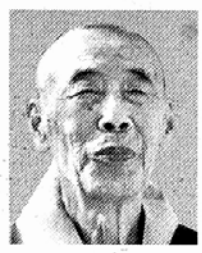
▣ **모집과정 : 기초과정** ▣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 **교육기간 : 각 과정 4개월 기본(1년 과정)** ▣ **모집기간 : 3월20일 ~ 4월20일까지**
▣ **강의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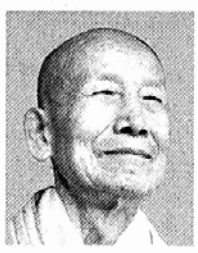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본과정	기초과정	범음, 범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육법공양 천수바라 작법무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중등과정	천수바라, 다게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고등과정	사다라니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연구과정	대학과정	운심게, 삼귀의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 **강 사 진 : 한정섭 법사, 김진하 스님(무형문화제 제9호 작법무 준보유자)**
▣ **강의시간 : 매월 2, 4째주 수, 목요일 강의**
▣ **특 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을 수여함.**
▣ **문 의 처 : 한국불교예술대학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조계종 11대 종정 3월 11일 결정될 듯


◇법전 스님


◇범룡 스님


◇서옹 스님


◇숭산 스님


◇송담 스님

법전 · 범룡 · 서옹 · 숭산 · 송담 스님 물망

"4월 중순께 추대식 봉행할 수 있을 것"

급하지 않아… 시간 갖고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가 3월 11일(예정) 총무원 회의실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11대 종정추대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원로회의 의원스님들이 지난 17일 혜암스님 49재 법회에 참석한 후 모임을 갖고 3월 11일 원로회의를 연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원로회의가 열려 종정추대 합의가 무난히 이뤄질 경우 4월 중순경 추대식을 봉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번 원로회의에서 종정 추대합의가 결정될 지는 미지다.

원로회의 의원인 한 노스님은 "3월 11일 원로회의 때 종정을 선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종정 선출이 다급한 것도 아닌 만큼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검증을 거쳐 만장일치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때문에 조계종 종정선출과 관련 '사전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조계종 11대 종정후보로 거론되는 스님은 법전(해인총림 방장), 범룡 스님(전계대화상), 서옹(고불총림 방장), 숭산(화계사 조실), 송담(용화선원 원장)스님 등이다.

법전 스님(77)은 조계종의 종풍을 확립한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고, 성철 · 혜암 스님으로 이어지는 해인사의 법통을 이었다. 원로회의 안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룡스님(88)은 오랜 봉암사 수행을 하여 '고요한 바다' '청렴결백한 성품' '철저한 수행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닐 만큼 성품이 원만하여 현재 종단의 안정적인 분위기와 맞다는 평이다.

서옹 스님(91)은 수좌들로부터 물음에 답해줄 수 있는 선승으로 꼽힌다. 재가불자들과 수좌 세력기반이 유독 넓다는 것이 주목된다.

숭산스님(75)은 경허 · 만공 스님의 법맥을 잇고 해외에서도 높은 추앙을 받고 있다. 범어문중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문중이면서 종정을 한번도 배출하지 못한 덕숭문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송담 스님(74세)은 10년 동안 묵언을 하여 전강선사의 인가를 받은 '묵언스님'으로 통한다. 수좌계에서 '북(北) 송담'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납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송담스님은 수년전 봉암사 조실 추대를 사양하기 위해 자취를 감췄을 정도로 종단에 나오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한편 조계종 종헌에 의하면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원스님(19명)들과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등 22명의 스님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국대 불교학과 교원 임용 또 무산

유식학 · 한국불교사 수년째 공백 지속

학생들만 피해… '채용 원칙' 지켜져야

동국대가 2002학년도 불교학과 신규 교원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발생해 5년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학기 불교학과 교원 임용 분야는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한국불교사, 유식학, 인명학 그리고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초기불교와 선학과 중국 선사상 등이다. 그러나 21일 열린 이사회에 지난해 신설된 인명학 분야 우제선 씨만 상정돼 임용되고 나머지는 보류됐다.

이번 임용 과정에서 한국불교사와 유식학은 논란이 발생해 이사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한국불교사 경우 학과 추천에서, 유식학은 면접에서 각각 종합평가의 순위가 바뀌자 일부 지원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캠퍼스 초기불교(2명)와 중국선사상(1명)은 지원 미달(3배수)로 심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식학과 한국불교사의 경우 수년째 교원을 임용하지 못해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유식학은 지난 97년 오형근 교수가 정년 퇴임한 이후 6년째, 한국불교사는 지난 98년 김영태 교수가 정년 퇴임한 이후 5년째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불교대학원의 경우, 정년 퇴임한 김영태 교수가, 학부의 경우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공자들의 연구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대학원생은 "동국대학이 한국불교 진흥을 위해 설립됐는데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전공 교수를 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불교학과 교원 임용이 해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지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지원자의 사전 내정설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교계의 시각이다.

이번에 응시했던 한 지원자의 경우 "보편적인 원칙이 무시되고 몇몇 인사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불교학과 교수 임용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의 한 관계자는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다"며 "이번처럼 공명정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과 교수들의 의견 불일치와 교수 임용과정에 학내외 관계자들의 개입도 교수임용이 파행에 이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마 전 동국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다른 학과와는 달리 불교학과의 교수 임용 문제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불교학과 교수 임용 파행의 원인은 특정인이나 특정사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란 얘기다. 재단과 학교 그리고 관련 학과가 불교학 발전을 위해 보다 객관적 시각을 가질 때 불교학과 교수 임용 파행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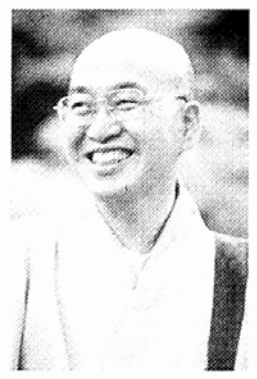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해외전시기획(KOBA)

KOBA (Korean Organization of Buddhist Art)는
현대불교신문사 산하 예술기획사로 해외 전시, 번역, 출판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고갱이를 알리고저합니다. KOBA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중에 있으며 현재6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포교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예술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원희 실장 (전화 : 02-737-8881, E-mail : whcho@buddhapia.com)

"인도불교 부흥에 전념"

'정토회' 대표직 물러난 법륜 스님



"교육 · 의료 · 구호시설 확충

명상센터 건립, 불법 은혜 갚을 터"

10여년간 일과 수행의 서원공동체 '정토회'를 이끌어온 법륜 스님이 제3차 1000일 결사회향을 끝으로 (사)JTS, (사) 좋은 벗들, (사)불교환경교육원 등 일체의 대표직 소임을 내놓았다. 스님은 △북한난민 지원 등 통일사업 △'쓰레기 제로운동' 등 환경운동 △인도빈민 구호 등 해외 구호사업 등 불교계 NGO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스님은 정토회원들의 수행지도와 인도 불교 부흥사업에 전념할 계획이다.

◈지난 10여년 간 정토회는 일과 수행의 공동체 건설에 진력했습니다. 그간 정토회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정토회는 88년 창립이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 복지 · 통일 환경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수행을 통해 열반과 해탈의 작은 체험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해외중에서도 특히 인도불교 부흥에 주력하는 이유는.

"인도불교를 부흥시키려면 수많은 전법사가 인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대한 불교포교는 10년 전 인도빈민 구호사업을 할 때부터 원했던 일입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순례를 하면서, 파괴된 성지와 굶주린 인도 어린이를 보았습니다. 불법 만난 은혜를 꼭 갚기 위해 성지가꾸기, 불교 전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또 인류문명의 대안 찾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드가야 근처 수자타가 살던 집터부근 1만여평을 구입해 성지 순례객들이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명상센터를 건립할 것입니다. 절대 한국불교를 그곳에 심자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불교를 알리는데 주력하자는 것입니다."

◈인도불교 부흥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굶주리는 아이들을 먹이고, 병든 아이들을 치료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 마을개발사업도 확대됩니다.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지역뿐만 더 넓은 지역에 교육과 의료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마을 개발사업으로는 주택개량과 마을금고 설립, 도로건설, 공동구판장 설치 등을 통해 자립적인 지역농촌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후에 인도인들에 불교경전을 나누어주고 불교아카데미를 열어 인도 지식인인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석가족 사찰 및 불교단체 지원, 5월 27일 인도인 5만에 대한 수계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새 체제가 들어선 정토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젊은 세대가 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들도 이제는 더 이상 후원자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사회실천을 통해 사회를 정화하는 실천불교운동을 전개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한국불교가 변화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현대사회의 과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불교는 산적한 내부문제 때문에 남한 사회의 불평등 해결, 남북통일 달성, 북한기아난민 지원은 물론, 세계종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세간에 물들어 버린 상태로는 세간을 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병행해, 자신과 세계를 함께 변화시켜야 합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극락세계를 다녀온

- 중국 관정큰스님 초청법회 및 출판기념 대법회 -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극락은 있다≫ 본문 중에서 -

화두 일념으로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화두선 처럼, 아미타불 일념으로 명심견성(明心見性) 하는 정토선(淨土禪)으로 불자님을 초대합니다. 선과 염불을 회통한 중국 관정큰스님 초청법회 및 출판기념 대법회를 개최하오니 성불 인연 맺기를 기원 합니다.

- **모이는 날 :** 2002년 3월 2일(토) 오후 1시
- **모이는 곳 :** 불교방송 3층 대법당
- **주관 :** 정토 자성염불도량 석문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옥양동
  전화 : 054-536-4869
  주지 권룡 · 권송 (거제도 오송암)
- **문의 :** 상적암 061-755-6442, 011-554-6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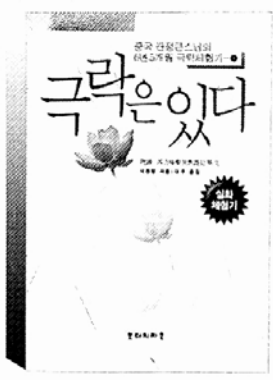

관정(寬淨)큰스님

참선 선정에 들어 관세음보살의 인도로 6년 5개월 동안 天中 나한동 · 도리천 · 도솔천 그리고 극락세계 구품연대를 두루 체험하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로부터 정토선 수행법을 부촉 받은 우리 시대의 선지식!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적수암사에 주석 하시면서 미국 · 캐나다 ·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중국 관정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화제의 신간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신국판 | 값 8,000원
도서출판 붓다의 마을 전화 02-722-0292~3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번지 갤러리상 405호

협찬 : 불교방송 · 불교신문사 · 마야문화원 후원 : 무우산 상적암 · 서울대학교 교수불자회(불이회) · LNB법성단 · 정진희 꽃꽂이 중앙회

일주문



공창총장 전역법회 법문

도문 서울 대각사 조실 스님은 26일 계룡대 호국사에서 열린 법공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전역법회에서 법문했다.



'이야기 관세음…' 출판 법회

우학 영남불교대 학장은 3월 3일 대학 내 4층 법당에서 〈이야기 관세음보살〉 출판 기념 법회를 갖는다.



14대 사하불교련 회장 추대

자인 부산 자비암 주지스님은 8일 부산 혜원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사하불교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서울지방 경찰청 경승 위촉

춘광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스님은 22일부로 서울지방 경찰청 경승으로 위촉됐다.

감사국장 의연 스님 신도국장 주경 스님 조계종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19일 총무원 감사국장에 의연 스님(사진 위)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장 도영 스님도 공석중인 신도국장에 주경 스님(사진 아래)을 임명했다. 신도국장 주경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문화체험 사업단 사무국장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생명나눔운동 적극 참여"

배우 장동건 씨, 1천만원 기탁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생명 나눔 실천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영화배우 장동건 씨가 22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에 후원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 단체 홍보대사인 장 씨는 영화 '2009로스트메모리즈'의 메이킹북 '2009 Another Memories of Jang Dong Gun' 출간에 참여해 인세로 받은 전액을 전달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케어복지사 양성 · 보급 시급"

홍보에 적극 나선 현오 스님



"사회복지 분야가 점차 전문화 · 세분화 되어가는 가운데, 치매 · 중풍 · 장애인 전문 간병 복지시스템인 케어복지사의 양성과 보급이 시급합니다."

불교복지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케어(Care, 개호)복지를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선 현오 스님(총화종 총무부장). 스님은 지난 19일부터 한국노인개호복지협회 케어복지사 제5기 양성과정에서 '동양의학', '민간요법' 등의 강의를 시작했다.

치매 · 중풍환자 간병시스템 긴요

지난해 7월 15일,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성직자 20여 명이 발족한 '한국노인개호복지협회(회장 이영실)'의 창립 멤버인 현오 스님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불교계는 불교교양대학이나 관련 단체에서 간병인을 양성해 왔지만, 미비한 교과과정으로 실질적인 파급력은 약했다"며 "치매 · 중풍 · 장애인 전문 간병시스템인 케어복지가 특히, 불교계 노인복지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것"라고 말했다.

현오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이 지역복지관 수탁과 대단위 복지시설 건립 불사 등에 인적 · 물적 자원이 무리하게 집중되다 보니, 늘어난 사회복지시설 물조차 관리 ·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 사회복지사가 배출되면, 케어복지사 등 소규모 그룹홈 형태의 복지시스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불교음악 발전 견인차 될 터"

불교합창단 총련 초대회장 백대일심 보살



결성된 한국불교합창단총연합회는 5월 말경 창립 법회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한국불교음악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낼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백 회장은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음악지도자, 작곡자 양성 등을 통한 불교음악인 저변확대와 불교음악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기"를 불교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음악인賞 제정 · 장학금 지급 등 계획

"한국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전국 9개 지회의 1만여 명에 달하는 불교합창단원들의 뜻을 모아 불교 특유의 음악 세계로 부처님 법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월 15일 결성된 한국불교합창단총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백대일심(57)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불교합창의 발전을 위한 심부름에 여념이 없다. 서울 · 경기, 부산, 대구 등 9개 지회의 뜻을 모아

이를 위해 젊은 음악인을 위한 장학금 지급, 불교음악인을 위한 상 제정, 연 1회 전국 불교합창단 연합회가 참가하는 정기연주회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불교음악지도자들의 모임인 삼보불교음악협회, 부산불교지도자연합회 등과 연계,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부산= 천미희 기자

"강원지역 불교유적연구 최우선"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⑧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최응천 씨



춘천박물관 곧 개관 … 소장유물 15000점

올 10월 개관하는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전시 준비팀장을 맡고 있는 최응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강원지역은 통일신라말 도의 국사가 진전사를 창건해 선종 문화를 꽃피운 곳이기도 하다"며 "절터 조사와 유물 연구 등을 통해 우리 나라 선종 사상사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지방 국립박물관이 없었던 강원지역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춘천박물관은 1994년부터 건립에 들어가 현재 전체 공정의 98%가 완료된 상태다. 지상 2층, 지하 1층 총 958평 규모로, 4개의 상설 전시관과 2개의 기획 전시실, 보존과학실 등이 들어선다. 소장유물 15,000여 점에 8~900여 점이 전시된다. 이 중 절반 정도가 불교 문화재다.

상설 전시관은 선사시대의 강원, 고대의 강원, 고려시대의 강원, 조선 · 현대의 강원 등 4개의 시대로 나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은 제2 · 3전시실인 '고대의 강원'과 '고려시대의 강원'이다. '고대의 강원'에는 통일신라 오대산 문수신앙의 성립과 과정,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재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금강산 불교 문화를 주제로 꾸며질 '고려시대의 강원' 전시실은 고려의 귀족 문화와 불교 문화의 접합을 유물을 통해 보여주게 된다.

"춘천박물관의 상징은 아무래도 고려 초 조성된 국보 124호 강릉 한송사 석조보살좌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밖에 국내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고려불화인 단무갈 보살 배례도, 이성계 발원사리기, 유점사종, 홍성 출토 금동불상 등이 대표적 전시 유물입니다."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부분은 강원지역 불교 문화재 조사와 연구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강릉대 박물관, 강원매장문화재연구소 등과 연계해 강원지역 폐사지 조사와 지표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첫 사업은 평창군 수달사터다. 〈삼국유사〉에 자장율사가 입적한 곳이라는 기록이 전하는 수달사터는 1994년 절 이름이 새겨진 금속 공예품이 발견돼 수달사임이 밝혀졌지만 현재 경작지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덕대왕 신종, 상원사 범종과 함께 통일신라 범종을 대표하는 선림원 동종(銅鐘) 복원도 빼놓을 수 없다. 1948년 출토된 선림원터 동종은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현재는 일부 파편만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국립춘천박물관 초대 관장에 내정된 최 씨는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온 이후 불교 공예 연구에 힘써 왔다. 일본 구주대학에서 한국의 범음구(범종과 반자, 운판을 중심으로) 연구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1998년에는 '18세기 범종의 양상과 주종장 김성원'이란 논문으로 제14회 동원 학술 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중앙승가대 2001년 졸업식

중앙승가대 200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제20회 졸업식)이 21일 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불교학과 28명, 역경학과 11명 등 모두 78명이 학사 학위를 받았다. 전체수석은 포교사회학과 원행 스님이 차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중앙승가대 명예학장 석주 스님, 총장 종범 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위덕대, 학사 297명 석사 4명 배출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는 19일 학교 강당에서 2001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고 학사 297명, 석사 4명을 배출했다. 학부 졸업생 가운데 전체수석은 이정임 양(경영학과)이 차지했으며, 이상영 군(정보통신학과)이 계열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이사장 지광종사와 손제석 총장을 비롯해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 등 1천3백여명이 참석했다.



월드컵 성공기원 100일 기도법회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면)는 20일 월드컵 성공 기원 백일기도 대법회를 봉선사 청풍루에서 봉행했다. 개막 100일을 앞두고 월드컵 성공을 기원한 이날 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주지 일면 스님을 비롯 이정일 남양주 부시장, 이우형 구리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미 장애인복지관 '윷놀이'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도)은 21일 관내에서 개관 1주년 기념 '정월대보름 맞이 장애인 윷놀이 대회'를 가졌다. 지도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복지재단관련 인사, 구미지역 장애인 5개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우수직원 표창장 시상, 모범 장애인 감사패 전달 등 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극락장엄경) (화 엄 경)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극락장엄경(아미타경 ·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극락장엄경 (1)(2) · 법화경(1)(2)(3) · 금강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화엄경론(이통현장자)	한정섭 법사	신화엄경론 (1)(2) · 화엄경 약찬게, 법성게 · 화엄십지품 (1)(2)
최봉수 교수의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함경(사제법 12 연기설)	최봉수 교수	아함경 · 반야경 · 법화경 · 화엄십지품
송찬우 교수의 대승경전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천태소지관	송찬우 교수	천태소지관 · 금강경 · 대승기신론 · 능엄경(1반)
인도-티벳어학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최종남 교수	산스크리트문법, 팔리어문법, 티벳어문법, 법화경강독, 잡아함강독, 보리도차제론강독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2년 2월 1일~ 2002년 3월 2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2년 3월 4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2년 3월 7일(목) 오후 4시 ● 인도티벳어학과 : 2002년 3월 8일(금)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org

불교대중 교육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2002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2년 3월 9일(토) 오후 1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양성도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장엄염불	◇백일, 돌,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일반의식 ◇장례의식(2)……임종, 매장, 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 (1년) • 연구반 30명 (1년) • 시다림반 30명(1학기)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2002년 3월 9일 (토요일)	• 매주 토요일 오후 1:00~3:00 • 매주 수요일 오후7시(시다림반)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 함)

3. 입 학 금 일십만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732-1207

5.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의식 교육도량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7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봄반)
2.교육장소	동산 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2년 3월 6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 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불교대중 교육도량 동산반야회

한전본사 반야회 신년법회

한국전력 본사반야회(회장 김영창)는 16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등 사부대중 7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회원 및 회원가족의 신년원력을 담은 등 · 향 · 꽃 · 과일 · 쌀 · 차 등 육법공양이 행해졌다. 한편 전력인불자연합회는 이날 법회에서 불교문화답사, 3천배 철야정진 법회, 수계법회 등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법문을 통해 "정법에 의지해 마를 극복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불자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 전달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법정)는 17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박소현(서문여고 3년) 양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 · 고등학생 22명에게 1년분 등록금에 해당하는 길상화 장학금을 전달했다.

맑고향기롭게는 이날 알뜰시장을 열어 유기농산물과 무공해 세제, 재활용품 등을 판매했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공불련 창립축하 지도자법회

경남지역 불교 신행단체간 친목을 돈독히 하고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한 경남 불교지도자 신년법회가 23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봉행됐다.

경남불교협의회(회장 세민)와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공창석)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주지 세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김혁규 경남도지사, 경남지역 신행단체 대표,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 소속 회원 등 8백여명이 동참했다.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지리산 법계사에서 회원 8백여명으로 창립된 바 있다.

1만8백배 정초기도법회

대우종합기계 · 한국항공우주산업 법우회(회장 곽차식)는 17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성주사에서 매일 1080배씩 1만 8백배 정초기도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곽차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정진에서 법우회 회원들은 '법우회 발전과 회원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곽차식 회장은 "생활 속에서 불교를 구현하는 불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전법팀 내달 출범…실정맞게 포교

철불협, 3월9일 대전서 발족식


◇정찬연


◇박정애


◇이경재


◇철불협은 회사내 실정에 맞는 포교를 위해 내달 전법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사진은 철불협 주최로 1월12일 갑사에서 열린 철도 무사고 기원법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정동진, 이하 철불협)가 포교사 자격을 갖춘 회원들로 회사 실정에 맞춰 포교활동을 펼칠 전법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철불협은 3월 9일 오후 1시 대전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철도청 내 포교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전법팀 발족식을 갖는다. 철불협은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포교활동과 능동적인 대응, 포교아이템 개발 등을 담당하는 전법팀을 통해 철도청 내 포교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법팀은 지역별 창립이 가능한 지사와 포교활동가를 발굴하고 지사 인근 사암과 연계시켜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기존 철불협 산하단체의 법회진행 지원 △철도 포교행사 지원 △지역별, 단체별 간담회 개최 △포교활동 계획 수립 △회보 등 문서포교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또 정기 또는 수시로 포교위원회를 열어 포교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전법팀은 철도청 불자회 회원 중 돈독한 불심을 갖고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갖춘 회원들을 선정, 포교위원으로 임명해 각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현재 내정된 전법팀 포교위원은 금재충(안산승무소) 교화부장, 이정권(송내역) 사이버 포교부장, 박정애(대전지역 관리역) 여성부장과 정찬연(성북승무소) 포교사 등 14명. 이들은 전국에 산재한 지사에서 활동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부산, 대전, 익산, 영주, 묵호 등 근무처가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어 지역간 정보네트워크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사 인근사암과 연계 신행 지원
위원 14명 내정…전국에 고루 포진

전법팀은 향후 철도청 내 포교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포교위원을 점차 추가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미창립 지사의 불자회 창립이 이뤄질 경우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들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전법팀으로 흡수해 소속단체의 활동은 물론 타지사에 대한 포교효과까지 얻는다는 복안이다.

정찬연 사무국장은 "외부 포교단체 또는 포교사들의 활동이 철도청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미창립 지사의 불자회 창립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전법팀을 구성하게 됐다"며 "미창립 지사 뿐만 아니라 기존 불자회의 법회에 대한 전법팀의 지원을 통해 철불협 소속 불자회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병원내 불자회 창립 적극 지원

병원불자련, 올 사업 확정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직장 직능 연합회 공동사무실에서 운영위를 열고 2002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병원불자련이 이날 확정한 사업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 확립과 불자회가 구성되지 않은 병원에 대한 창립지원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원불자련은 병원 불자회간 교류를 강화, 연합법회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계 및 창립기념법회 개최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의료봉사활동과 2002 연등축제 의료봉사단 운영 등 사업은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춘계 의료봉사활동은 4월 21일 청소년 나눔의집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 대부도 일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한 의료진 구성과 의약품 구입, 집기 마련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조직 내실화, 성장기반 조성 중점
단체간 교류강화 · 연합법회 등 추진

김주효 회장은 "병원불자연합회 소속 활동단체들이 소수 대외활동을 중단하는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행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의료인 불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내실 있는 병원불자연합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흐트러진 조직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홈페이지 개설 회보 5회 발행
불기협 올 사업계획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재우)는 18일 동산불교회관 법당에서 제 29차 임시총회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회보 발간 등 2002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에는 회원간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을 비롯해 5차례의 회보 발간, 불교계 언론종사자 체육대회, 불교기자연수 등이 포함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발행이 중단된 시대불교신문사, 월간 봉은과 회비 미납 등 활동을 중단한 한라불교에 대한 제명과 만불신문사의 신규 가입을 의결했으며, 회원 의무 강화 등 회칙을 개정했다. 한편 불기협은 제9대 임원단을 확정했다. △회장 이재우(천태종보) △부회장 김원우(현대불교) △총무부장 여태동(불교신문) △조직부장 김형규(법보신문) △홍보부장 고영배(현대불교) △재무부장 손범숙(밀교신문)

우리 모임에선

충남 경찰청 경불회 3월3일 창립

충남지방경찰청 경찰불교회가 3월 3일 충남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관내 4백여명의 경찰불자들이 동참해 창립되는 충남지방경찰청 경불회 회장에는 유한동(경감) 정보4계장이 내정됐다.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시산제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3월 3일 강원도 횡성 팔봉산에서 1년동안의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봉행한다. 한편 서울불교산악회는 17일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서 산행법회를 봉행했다. 4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치악산 상원사 참배와 남대봉 산행으로 원만회향했다. 02-730-1080

석불선양회 창립 2주년 법회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창립 2주년을 맞아 3월 10일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경기도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과 부천 석왕사로 떠나는 이번 석불친견법회에서는 예불과 석왕사 참배 및 성보학습, 환경 미화활동 등을 펼친다.

한빛은 부산불자회 야외법회

한빛은행 부산불자회(회장 하명찬)는 17일 경남 양산 대성암에서 신년야외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및 회원 가족 2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회원들의 불심고양과 친목 화합을 위해 진행됐다. 이어 동참자들은 늪지대로 유명한 정족산을 등반, 회향했다.

天蕓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棄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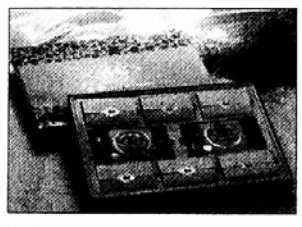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55-7555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혁,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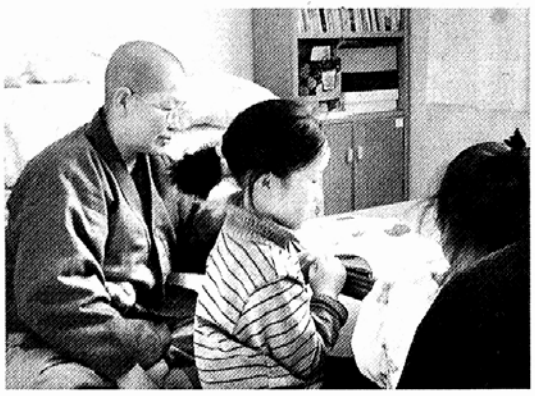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뒷깔이 걸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책을 읽고 있는 주현이를 보덕 스님이 바라 보고 있다.

안성 굴암사 '절집 아이들'

"궁핍한 생활에도 꿈 가득"

8명의 아이들과 칠순의 노스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에 자리 잡은 굴암사는 이들의 보금자리다. 올 해 사미계를 받는 맏형 몽준(19)이부터, 미용사가 꿈인 윤미(17), 7년 전 아버지 손에 이끌려 이 곳에 들어온 소라(17), 보람(16), 성민(14)이 삼남매, 주지 보덕 스님(70)을 '할머니'라 부르는 막둥이 주현(8)이까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이다.

외양간에다 방 꾸며

보덕 스님이 '엄마·할머니'로 살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속가 어머니가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그러다가 스님은 아예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발원하고 서울 상계동 수락산 밑 월세방에서 1982년 굴암사로 자리를 옮기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돌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나 둘 씩 키우다 보니, 이곳을 거쳐 간 아이들만 해도 벌써 50여 명. 동네 사람들은 이 곳 아이들을 '절집 아이들'이라 부른다.

재작년 2월, 이들 가족에게 큰 아픔이 있었다. 전기누전을 인한 화재로 이들의 50여 평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아이들 책이며, 옷가지는 물론, 쌀까지 모조리 불타 버렸고,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졌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을의 빈 외양간을 개조해 임시로 방 6개를 들여 작년 여름을 났다.

보덕 스님은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늘었다. 먹고 입히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성민이 교복 맞춰 주는 것부터, 주현이의 공책 값,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선아(19)의 등록금 문제까지 돈 들어 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한 달 200만 원 넘게 드는 아홉 식구 살림살이가 신도들의 시주금만으로는 힘들다. 굴암사가 복지시설도 아닌 까닭에 정부지원 또한 없다.

유치원 교사가 꿈이라는 주현이는 오늘도 소리 나지 않는 종이 건반을 두들긴다. "꼬마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려면 피아노를 꼭 배워야 한데요." 라며 주현이가 조심스레 장래 소망을 내비친다. 지켜보던 스님의 한숨이 길어진다.

"젊었을 땐 백방으로 탁발해 가며 아이들을 키워 왔지만, 이젠

"나이 들어 탁발도 못해"

나이 먹어 다리에 마비가 와 그나마 할 수도 없어 답답해. 재작년에 불만 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 보덕 스님은 끝내 말문을 잇지 못한다.

연신 다리를 매만지는 스님. 철부지 주현이가 덩달아 스님의 다리를 주무르지만, 스님은 마다한 채 법당으로 향했다. 잠시 후 굴암사 법당에서 간절한 염불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031)676-4221 계좌: 농협 192-02-110622(양문자)

안성= 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3월 1일 (금)

■대한불교청년회 '만해백일장' = 만해 한용운 스님은 뛰어난 문학가이자 3·1운동에 참가했던 독립지사. 만해 스님을 뜻을 기리는 만해백일장이 오전 10시 동국대학교에서 열린다. 평소 갈고 닦은 문학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 백일장의 장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수여하는 '만해대상'을 받는다. (02)739-4448

■좋은벗들 '제10기 통일대화마당'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상임의장이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한평생 통일 운동에 매진했던 홍 의장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강좌.

좋은벗들은 1일부터 금요일마다 통일운동가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10차례의 강좌를 마련한다. 장소는 서초정토회관. 오후 7시 30분. (02)587-8996

■용진신행회 '도솔암순례' = 용진신행회는 고창 도솔암을 찾아가는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선운사 도솔암에 찾아가 보물 1200호 고려 마애불상을 만나보자. 그윽한 미소에 담긴 가르침은 과연 어떤 것일까. 출발은 아침 6시 30분 을지로 6가 국립의료원 옆. 참가비 2만 5천원. (02)2279-1191

3월 2일 (토)

■소쩍새마을 '자원봉사' = 소쩍새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하지만 이런 걱정은 이제 끝. 소쩍새마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매주 화·토·일요일 오전 7시30분 조계사 앞에서 출발. 셔틀버스 운행을 기념해 이날 자원봉사자와 소쩍새마을 식구간의 만남의 행사도 갖는다. (033)762-9870

3월 3일 (일)

■불교신행연구원 '성지순례' = 불교신행연구원은 안성 청룡사와 칠장사를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칠장사는 고려시대 고승 혜소국사가 용맹정진했던 곳. 칠현선방 마루에 앉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자. 출발은 서초구청 앞 오전 8시. 참가비는 3만원. (02)587-6613

■신라문화원 '어린이 문화학교' = 우리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마련됐다. 경주지역 역사 문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어린이 문화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일요일에 열린다. 이번에 찾아가는 역사 현장은 남간사터당간지주, 창림사터, 포석정 등. 도시락과 필기구는 각자가 준비. (054)774-1950

3월 4일 (월)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

■은평노인복지관 '노인 강좌' = 종이공예, 서예, 당구, 탁구, 사진, 하모니카 등등.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가도 즐기고, 이번 기회에 취미생활도 한 가지쯤 가져보시길…. (02)385-1351

3월 5일 (화)

■불광사 '바라밀교육' = 부처님 생애와 보살의 길, 불교 음악, 불교의례, 불교 역사, 포교방법론 등 교리에서부터 포교론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8일 입재해 5월7일까지 10주간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교재는 불광사에서 배부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 (02)413-6060

"도움 필요한 이웃 돕기 불자의무"

우리 절 우리 신도

수국사 신도회장 김경애 보살



◇22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수국사에서 신도들과 함께 노숙자 급식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김경애 보살(사진 맨 오른쪽).

노숙자들 무료 점심봉사 4년째 계속

아침에불 생활화…"신도간 협동심 절실"

22일 낮 11시 40분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수국사 공양간. 점심 공양 시간이 다가오면서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애(54) 보살을 비롯한 수국사 신도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조금 있으면 노숙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모여들기 때문이다.

"특별히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절에서 보통 먹는 것과 똑같이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죠."

김 보살은 벌써 4년째 점심 시간마다 다른 신도들과 함께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도심 속에 절이 있다 보니, IMF 직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수국사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나 몰라라 하기 어려워 매일 먹는 밥과 반찬에 수저 하나 더 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많을 때는 하루 1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요즘도 평일에는 10~20명, 금요일이면 40여 명이 찾는다.

"처음에는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거칠게 행동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때론 시비가 붙어 애를 먹기도 하고요. 요즘요? 오면 합장으로 인사하기도 하고, 경내에 있는 지장보살상 앞을 지나면서도 합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래도 보람을 느낍니다."

6년째 신도회장을 맡으면서 각종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는 김 보살은 절 일 이라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앞장선다. 경내 청소부터 매달 초하루 법회와 보름 법회 준비까지 절 구석구석 김 보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수국사에는 '후원 봉사부'라 해서 음식 공양을 준비하는 팀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이들이 노숙자 무료 점심 봉사를 맡고 있지만, 김 보살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나와 함께 일을 거든다. 하다못해 도량 청소에서부터 꽃 심고 가꾸는 일, 초파일 등 만들고 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지만 사람들은 그저 '절에 다니는 신도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할 정도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보살은 "내가 먼저 하지 않고 회장이라고 지시만 한다면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되묻는다.

수국사에 다닌 지 20년 가까이 된다는 김 씨에게는 늘 안타까운 것이 있다. 저마다 불심을 갖고 절에 다니지만 신도들 사이에 협동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신도회장을 맡으면서 한 가지 원을 세웠다. '신도들끼리 서로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에 위안이 되는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야 겠다' 고.

김 씨는 신도들의 경조사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특히 좋지 않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더욱 신경을 썼다. 상을 당한 신도 집을 찾아가 시장보고 부침개 부치며 음식 준비를 거들고, 신도들과 함께 영안실에서 염불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신도들이 한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어야 절에 다닐 마음도 생기고, 신심도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자연히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을 테고 말입니다."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이지만 김 씨는 사실 경전 공부도 많이 하는 불자다. 1991년 불교방송 경전반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공부는, 경전반 졸업생들끼리 공부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공부만으로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눈뜨면 집에서 혼자서라도 아침 예불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추천의 말

자용 스님 수국사 주지



도심 속에 자리잡은 우리 절은 지금도 불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어린이집 개원과 미륵존 여래불 조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황금 법당 불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모든 불사가 어찌 저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모두, 절 일을 내 일 같이 여기고 도와주는 신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김경애 신도회장은 신도들이 한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절의 궂은 일은 물론 신도들의 경조사 하나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나서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아 여름이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점심 급식에도 열심입니다.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배운 법문 하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불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지목행족(知目行足)하면 도청랑지(到淸亮之)니라'는 법문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글귀를 배우더라도 행(行)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 말을 항상 마음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신입 수강생 모집

해동불교대학 (Hae Dong Buddhist College)

국제학부학위 프로그램 과정(통신)

해동불교대학은 15년 전인 1987년에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주도하는 불법 홍보를 위한 포교사 법사 삼장법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 그동안 2천여 명의 전법 역군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불교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당시로서는 불교의 대중 교육을 선도해 가는 불교교육 기관이며 전법의 전초기지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해동불교대학은 그동안 미국 LA 불교대학과의 학위프로그램에 의하여 50여명의 B.A. M.A.과정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세계불교계와의 인맥과 문화교류를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한국불교를 세계화시키는데 첨병역할을 할 세계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국제학부 학위 프로그램 과정을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제학부 학위 과정(통신) Degree Course, International Dept.

불교철학전공 (Buddhist Philosophy)
세계불교문화전공 (World Buddhist Culture)
세계불교역사전공 (World Buddhist History)
불교영어과 (Buddhist English)

- 입학자격 : 각종 불교대학, 강원 졸업자 일반대학 2년 이상 수료자
- 해외정규대학 3,4학년 B.A. 과정에 편입
- 연령제한 (단, 25세 이상 60세 이하)
- M.A. 과정은 B.A. 학위 소지자(통신, 1년 1회 현지 출석강의)
- Dr. 과정은 M.A. 학위 소지자(통신, 1년 1회 현지 출석 강의)

※ 중국 상해 화동사범대학 어학 연수 및 유학
※ 중국 상해 중의대학 입학 안내

세계불교지도자과정 (World Buddhist Leadership Course)

국제 법사 삼장법사 승정과정(國際 法師 三藏 法師 僧正 課程)

※ 해외 사찰이나 단체에서 수행체험 연수 유학을 원하시는 분
※ 학위 과정이나 지도자 과정에 꼭 관심 있으신 분만 자기 신분과 전화를 밝히고 상담을 요망합니다.
※ 신분과 전화를 밝히지 않으면 상담하지 않습니다.
※ 모집기간 : 2002년 2월 15일 ~ 3월 25일

해동불교대학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전화 02)3672-5042 팩스 02)3672-5043

후원단체
ABCP (아시아불교평화회의) HBDTA (해동불교법사회) KBOM (Korean Buddhist Overseas Mission) SBN (The Seou. Buddhist News)
해외자매대학 및 단체 인도 몽골 러시아 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바른불교 · 쉬운불교 · 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부처님의 바른불교를 현실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 가정 생활과 나의 삶 속에서 정토를 이뤄가고자 하는

생활의 길잡이, 지혜의 등불

교 과 과 정

- 불교사상의 핵심 : 실천적 불교사상
- 불보론 :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
- 교학① :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 교학② : 실천불교의 꽃, 대승불교
- 불교변천사① : 인도불교, 중국불교
- 불교변천사② : 한국불교, 세계불교
- 경전론 : 진리의 바다, 경전의 세계
- 수행론 : 참 나를 찾아서
- 신앙론 : 예불, 발우공양,
- 불교와 사회① : 불교와 환경
- 불교와 사회② : 불교와 복지
- 불교와 사회③ : 불교와 평화
- 불교와 사회④ : 불교와 통일
- 특별과정 : 특강, 수행수련

모집대상 및 입학금

- 참가 대상 : 바른불교를 현실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 접수 기간 : 2002. 3. 15까지
- 참 가 비 : 6만원(한 학기)
- 접수 및 문의 : 각 지역 정토법당, 각 지역 대학 사무국 www.jungto.org
- 본대학은 4학기 2년 과정입니다. 중간 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문제없도록 진행됩니다.

지 역	교육기간	요일	시간	접수및연락처	지 역	교육기간	요일	시간	접수및연락처
서 울	3.12~6.25	매주 火	주/야	02)587-8993	대 전	3. 8~6.28	매주 金	주간	042)253-8990
부 산	3.11~6.24	매주 月	주/야	051)557-2746	청 주	3. 8~6.28	매주 金	야간	043)284-5951
대 구	3.13~6.26	매주 水	주/야	053)744-3025	마 산	3.12~6.25	매주 火	주간	055)247-8991

'한가지 생각' 으로 무기·번뇌 평정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법기회 수행법

1. 중생의 속성을 여래의 속성으로
2. 관법-염법-의심법
3. 수행의 단계

법기회(지도법사 강정진)가 정의하는 '수행'은 "수행자가 한 가지 생각만 계속함으로써 무기(無記)에 빠질 틈이나 번뇌가 일어날 여지를 없게 하여 드디어는 무기와 번뇌를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생의 속성을 부처의 속성으로 바꾸는 '한 가지 생각'이 곧 수행방편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수행자가 수행방편을 심안(心眼)으로 계속 보게(觀) 되면, 수행방편은 생각(念)으로 바뀌고 그 생각은 삼매(三昧)가 되며, 드디어 '삼매인의 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 하는 의심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그 의심은 자체의 특성 때문에 돈오(頓悟)를 이끌어낸다. 즉 수행은 수행방편의 관-염-의심-돈오라는 순서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법기회는 수행자가 돈오를 얻기 위해서는 행주좌와일여(行住坐臥一如)-어묵동정일여(語默動靜一如)-몽중일여(夢中一如)-숙면일여(熟眠一如)-세번뇌(細煩惱)의 평정-돈오(頓悟)라는 수행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행법

법기회에 따르면 관법은 무기에 대처하는 수행법이고 염법은 번뇌에 대처하는 수행법이다. 따라서 무기와 번뇌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선 관법과 염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수행이어야 한다. 이 때 관법은 항상 정신을 차려 수행방편을 놓치지 않게 하는 수행법이다. 경전에서 말하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표현과 같다. 무기는 의식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식이 불가능하므로, 몇 가지의 관법을 항시 대비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저절로 작동되도록 하여 항상 정신차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법기회에서 방편으로 삼는 관법은 다음과 같다.

▲결인관(結印觀)=부처님의 결인중 하나인 선정인(禪定印)이 대표적이다. 이는 엄지손가락 끝에 '정신차림'이 있으므로 조금만 방심하면 결인 모양이 비뚤어지게 되어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염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거나 한 손으로 엄지와 중지를 붙이고 있거나 무릎에 중지의 끝을 붙이고 있는 방법들도 모두 결인관에 해당한다.

▲호흡관=호흡은 항상 인식 가능한 호흡이어야 정신차림의 효과가 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호흡을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흡관을 위해선 항상 호흡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호흡관이다.

▲혀붙이기 관=입천장에 혀끝을 약간 뒤집어 말아 붙여서 그 뒤집어진 혀끝으로 윗턱을 약간 들어올려 윗니와 아랫니가 1~3mm 정도 떨어지게 하는 관법인데, 뒤집어진 혀끝을 통해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이다.

관법 정신차린 상태 유지, 항상 깨어 있어야

염법은 '수행방편'('옴마니반메훔' 등)만을 염(念)하여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수행법이다. 수행이 무르익음에 따라 수행방편은 불망(不忘)이 되고, 불매(不昧)가 되어 수행자의 속성(屬性)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염법은 크게 염념상속법(念念相續法)과 의심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염념상속법은 수행방편을 염함을 단절됨이 없도록 간절하게 하여 간절성(懇切性)의 삼매에 들게 하는 수행법으로, 삼매의 길이를 늘려 거친 번뇌가 일어남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염불, 주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염념상속법과 의심법은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수행자는 그것을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처음부터 의심법으로 수행에 임하면, 착각도인(錯覺道人)이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법기회의 주장이다.

염법 간절한 염불 계속…자기속성 변화일어

의심법은 수행방편을 의심하여 심각성(深刻性)의 삼매에 들게 하는 수행법으로, 간절성의 삼매로는 막을 수 없는 세(細)번뇌를 삼매의 밀도를 높여서 막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수행자가 수행방편을 관(觀)하게 되면, 수행이 진척되면서 그 관이 염(念)으로 바뀌어 삼매(三昧)로 이어지게 된다. 또 그 삼매가 수행자의 추번뇌를 모두 평정하게 되면, 드디어 수행자는 삼매인 한 생각이 나오는 근원을 알고자 하는 대의심(大疑心)이 문득 일어나게(頓發) 된다. 이처럼 수행자가 부처님이나 선지식의 가르침 없이 수행하여 성불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므로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을 점법(漸法=漸教法)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중국이나 한국 선불교에서는 선지식이 수행자에게 대의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의심법이 이어져 오고 있다. 스승인 선지식은 수행자가 수행방편을 의심으로 수행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을 감지하면, 수행자에게 대의심이 문득 일어날 수 있는 수행방편을 등장시켜 준다. 중국의 선지식들은 이러한 때에 상식이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격외(格外)인 화두(話頭)를 등장시켰다. 선지식은 화두 참구를 통해 수행 기간을 단축시켜 주므로, 이와 같은 수행법을 돈법(頓法=頓教法)이라고 한다.

수행자에게 대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의 특성 중 심각성은 세번뇌를 평정하게 하고,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특성은 돈오(頓悟)를 이끌어내어 미망(迷妄)을 평정하기 위한 수행을 마무리한다.

의심법 대의심 통해 세번뇌 평정 돈오경지에

3번의 고비 극복방법

수행자는 수행을 시작해 돈오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기회는 그 중에서도 상기(上氣)의 고비, 어묵동정일여에 이르는 고비, 세번뇌(細煩惱)를 평정하는 고비를 가장 큰 난관으로 본다. 이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조의 수행 행적에서 지혜를 찾거나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게 법기회의 주장이다.

▲상기(上氣)의 극복=상기는 수행으로 인한 긴장감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여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덜미가 아프거나,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것을 말한다. 상기(上氣)를 극복하려면 대신심(大信心)을 일으켜야 하며, 대신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수행자가 자신의 수행방편(예를 들면 '옴마니반메훔')을 소리내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 같이 수행방편을 소리내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올라갔던 상기는 순식간에 끌어내려주고, 낮은 신심은 끌어올려주게 된다.

상기는 수행자가 관법으로 공부할 단계나 관법과 염념상속법을 절충하여 공부할 단계에서 예방하거나 해소시켜야 한다. 만약 의심법으로 공부하는 수행자에게 상기가 온다면 그러한 수행자는 의심법으로 공부할 수준에 이르지도 못한 수행자이므로 수행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어묵동정일여에 이르는 고비=수행자가 공부의 행주좌와일여에 이르게 된 다음에는 공부의 어묵동정일여(語默動靜一如)라는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수행자의 공부가 어묵동정일여하다는 것은 수행방편을 염념상속하면 의식은 다른 곳에 집중하지만, 수행방편을 생각하는 삼매의 관성(慣性)만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삼매관성(三昧慣性)이 어묵동정시(語默動靜時)를 꿰뚫으려면 수행자는 대분발심(大奮發心)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한다.

대분발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호흡에 리듬을 맞추어 수행방편을 망각하지 않고 염념상속시키는 것이다. 이때의 호흡은 단전호흡(丹田呼吸)보다는 무기에 빠지지 않게하고 자세의 전환이 쉬운 태식호흡(胎息呼吸)이다. 수행자의 공부가 어묵동정일여하다는 것은 수행방편을 염념상속하면 의식은 다른 곳에 집중하지만, 수행방편을 생각하는 삼매의 관성(慣性)만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삼매관성(三昧慣性)이 어묵동정시(語默動靜時)를 꿰뚫으려면 수행자는 대분발심(大奮發心)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한다.

대분발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호흡에 리듬을 맞추어 수행방편을 망각하지 않고 염념상속시키는 것이다. 이때의 호흡은 단전호흡(丹田呼吸)보다는 무기에 빠지지 않게하고 자세의 전환이 쉬운 태식호흡(胎息呼吸)이

상 기 혈압상승·가슴답답…대신심으로 극복

어묵동정 태식호흡하며 대분발심 발휘필요

세 번 뇌 의심특성원용 화두참구법 활용해야

▲세번뇌(細煩惱)의 평정=수행자가 대분발심을 일으켜 어묵동정일여의 고비를 극복하고 나면, 공부는 쉽게 몽중일여(夢中一如)하게 되고 숙면일여(熟眠一如)에 이르게 된다.

수행자의 공부가 숙면일여에 이르면 수행방편은 망각되지 않고 이어져 추번뇌는 모두 평정되지만, 세번뇌는 염념상속하는 정도의 삼매는 뚫고 나오기 때문에 공부가 숙면일여에 이르러도 세번뇌는 평정되지 않는다. 대분발심은 추번뇌를 평정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미세번뇌까지 모두 평정하고 돈오하려면 대의심을 일으켜 의심의 특성을 원용하는 화두참구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게 법기회의 수행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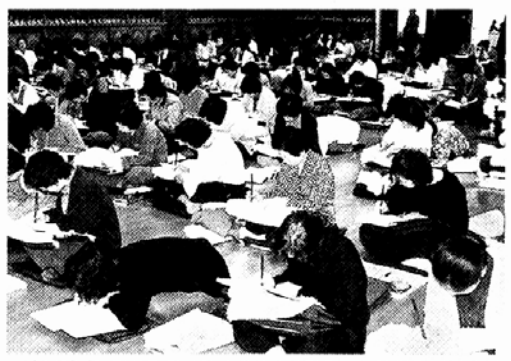
수행법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2월-수행의 달

· 나를 찾는 수행법
· 재가자 수행현장
· 매일 수행하는 불자들

매일 수행하는 불자들



◇부처님의 말씀을 한자한자 새기며 깨달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성취하는 사경수행장면.

절은 수행기본…108배로 일과

"염불기도수행 선삼매 이르는 지름길"

아침·취침전 사경…10년간 20권 불전에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은 "수행은 순수하고 불덩이 속에 타버리는 듯 용맹스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참 나를 찾는 종교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깨달음의 장소도 먼 곳에 있지 않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지심으로 불법에 따라 행동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되는 것이다.

○…김연호(제천 진주동물병원)원장은 30여 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관세음보살님께 청수(淸水)를 올린 뒤 108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몇 년 전 50일 동안 하루 2천배씩 13만배를 성만한 김 원장은 "절은 수행의 기본이 된다"며 "절을 하다 보면 온갖 번뇌망상을 떨쳐버릴 수 있다. 정신을 맑게 하는 데는 최고의 수행법이다"고 말한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매일 염불기도수행을 한다. 매일 오전 10시 동산불교대법당에서 108배를 올리며 아미타불 염불 천독을 하며, 대중불교 운동이 융성해지기를 발원한다. 김 회장의 이러한 발원은 염불만일회 구성으로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염불수행이 융성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 회장은 "염불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수행법인 만큼 많은 불자들이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성 도피안사 김대현 거사는 매일 아침예불 후 1시간, 저녁 취침 전 1시간씩 꼬박꼬박 사경을 하여 10년간 경전 20권을 불전에 올렸다.

92년 직장에서 퇴사한 후 100일기도에 입재한 것이 인연이 돼 사경수행을 시작한 김 거사는 "사경수행을 하면 마음가짐이 저절로 달라져 어느 순간 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생활 속에서 수행하며 살아가는 불자들의 삶은 아름답다.

참선 예불 주력 사경 절 수행 등 불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근기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수행이든지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순수한 마음을 되찾게 되고, 발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랫동안 수행해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김원우기자

北韓 金剛염주

국내시판

북한의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 금강염주 셋트 한정분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친다는 금강염주

金剛염주의신비

神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북한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으로 평안남도 온천군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금강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신비한 영험으로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염주중의 최고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과 일부 스님만이 사용하는것으로서 일반인은 구경조차 못하는 신비의 희귀 광석으로 상온(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유일의 광석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금강염주

신청문의 전화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을 아래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 : 1127-02-175765

국내독점보급
KB 金剛닥터KOREA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

종단사 간행을 위한 집필진을 초빙합니다

본 태고종사 간행 위원회에서는 종단사(宗團史) 간행을 위해 유능한 집필진을 다음과 같이 초빙코자 합니다.

다 음

가. 내 용 : 한국불교의 「고대사」, 「근현대사」, 「분규사」 등 3분야
나. 분 량 : 200자 원고지 각 1000매 이상
다. 자 격 : 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동등 자격자
라. 심 사 : 200자 원고지 20매 정도의 의향서(계획안) 및 관계서류
마. 서 류 : 이력서 1부, 연구실적물 1부, 증명사진 2매
바. 제출기간 : 불기 2546(2002)년 4월 15일까지 직접 혹은 우편으로 (당일 소인 인정)
사. 제 출 처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 02-745-2030~2)
아. 통 지 :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자. 문 의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92-1
(☎ ①총무 : 법성스님 011-239-4543, 팩스 : 02)764-5883)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종단사 간행위원회 대표 현수열 합장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⑮ 의리계주의 비유

제7장 '화성의 비유'에 의해 화성(化城)인 2승의 열반은 부처님의 방편이며 1불승이야말로 참다운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라는 취지가 설해져 있다.

그것을 이어받아 우선 푸루나 · 마이트레야니 · 푸트라가 1천2백의 아라한을 대표해 최초로 등장해 지금까지 부처님의 방편 설법, 샤리푸트라와 수부티 등 4대성문에 대한 부처님의 수기, 과거와 현재의 연결,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력 등을 듣고 말없이 이해한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향해 "푸루나는 변설제일로서 훌륭하게 나의 정법을 지켜 왔으며, 나를 도와 가르침을 널리 전해 사람들을 이익케 함이 매우 컸다. 그는 과거세에도 부처님을 수행하며 정법을 지켜 왔고 설법제일이었다. 그는 미래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 가르침이 밝게 빛난다는 이름인 법명여래(法明如來)라 하고, 그 시대를 보경(寶明)이라 하며, 나라는 매우 밝고 맑다는 선정(善淨)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푸루나에게 수기하신 것이다.

이 푸루나의 수기를 듣고 1천2백의 아라한들은 푸루나와 똑같이 기별이 주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원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하카샤파를 향해 이제부터 1천2백인의 아라한들에게 미래 성불의 예언을 주라고 하시며 대표적으로 카운디냐(憍陳如)에게 수기를 설하신다. 이름은 보명여래(普明如來)라 하고 1천2백의 아라한 중의 5백의 아라한인 우루빌바카샤파 · 가야카샤파 · 나디카샤파 등도 모두 차례차례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니, 모두 같은 이름의 보명여래가 될 것이라고 설하신다.

이 5백인의 아라한들은 부처님의 수기에 크게 기뻐하며 지금까지 자기들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신들의 현재 심경을 비유이야기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말씀드린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부유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 음식 대접을 받고 술에 취해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침 그 때 그 집 주인은 급한 공무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잠들어 있는 친구를 깨운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집 주인은 가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 비싼 보배 구슬을 그의 저고리 안쪽에 매달아 두고 떠났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친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잠이 깨어 일어나자 친구가 없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랑의 길에 올라 다른 나라에 이르러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적은 돈이 생겨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이 사람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이 답답한 친구야, 훌륭한 사내가 어찌해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초라해져 버렸나. 나는 자네가 안락하게 지내도록 어떤 욕망도 만족시킬 수 있는 비싼 보배 구슬을 언젠가 자네가 찾아왔을 때, 자네 저고리 안쪽에 매달아 두었으니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 일세. 자네는 그것도 모르고 고생하고 구차하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먼. 자네는 이제 그 보물로 소용되는 것을 사들인다면 항상 무엇이든지 뜻대로 돼 가난하거나 부족함이 없을 것 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자신의 옷 안쪽에 있는 보석에 대해 알지 못했던 남자는 성문 · 연각의 2승, 그 보석을 매달아 준 친구는 석존, 보배구슬은 불성을 비유한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집주인=석존, 구슬=불성 비유

보배갖고도 고생한 사람은 성문 · 연각 2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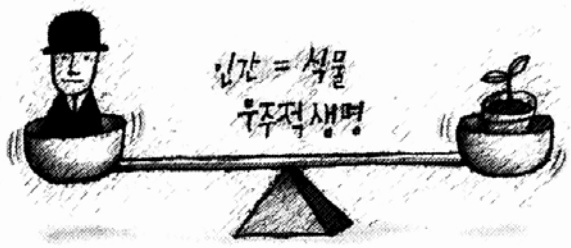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자연은 하나의 큰 생명체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⑰

별과 생명

생명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으로서 생물과 그 활동을 통틀어 생명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엥겔스는 물질대사를 생명현상의 기본으로 보고 단백질의 존재양식을 생명이라 했고, 위너는 생명이란 통어(統御) 바로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물체 현상에서 되먹임 조절의 기본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엽에너지를 흡수해 자유 에너지를 발생하는 신진대사의 가능성을 가진 것, 또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 등으로 생명을 정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인간에서만 생명이 있는 것일까?

생명의 종류를 보면 첫째 지상에서 경험하는 화학적 생명으로 화학반응을 통해 재생, 성장하는 유전적 특성을 지닌 것을 뜻하며, 둘째 비화학적 생명으로 분자들이 전파를 발생하면서 서로 교신하는 검은 성운(星雲)이 있고, 원자 내에 핵을 이루는 핵자(核子)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강하게 묶여있는 소립자 생명, 천체들이 중력파를 서로 주고받으며 교신하는 중력적 생명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경우들을 고려할 때, 별을 포함한 우주 내 만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원자는 외부 변화에 반응하며 스스로 통제, 조절하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머물려는 생명의 특성을 지녔고, 원자들이 모여 이루는 분자들도 당연히 생명을 지니며, 분자들로 이루어진 만물이 생명을 가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양의 기철학에서는 생명은 기(氣;오늘날의 에너지)의 취산 작용에 의해 생겨난다고 본다. 기가 모이면 유형의 사물이 생겨 생명을 가지고, 기가 흩어지면 형체가 사라져 생명이 끝난다. 이처럼 기는 스스로의 운동에 의해 만물을 생성, 양육시키고 나아가서 생명현상과 정신현상의 최종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생명관은 사물들을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적인 전체로 파악하며, 고정적 구조보다는 역동적 과정에 근거한다고 본다. 즉 생명을 미시적 구조로 환원시키지 않고 각 부분 혹은 각 기능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개체로서의 생명 이외에 개체들로 이루어진 전체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이를 자연이라 부른다. 따라서 자연 자체를 하나의 자기 조절, 자기 조직, 자기 운동의 능력을 갖춘 거대한 초생명체로 인식한다. 이런 생명관은 지극히 기계적이고 인간 편익과 인간 존중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인간 중심적인 서양의 생명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관에 따르면, 생명은 물질을 더욱 고도로 조직화하는 의지이며, 통합력이고, 질서의 능력이며, 이런 능력은 물질 자체 속에 그 원천을 갖추고, 이 원천은 우주 자체에 기원한다고 보며, 자연 전체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본다. 이런 생명관은 만물은 생의(生意)를 가지고 있다는 동양의 생명관과 일치한다.

불법에 따르면, 법성의 이(理)를 본체로 하는 자연에서 만유가 불성을 가진다는 것은 상의적 수수관계를 가진 유기적 생명현상을 뜻한다. 굴러다니는 돌에도 생명이 있으며, 한 톨의 흙과 티끌에도 우주의 생명이 들어 있는데 하물며 빛을 내며 만물을 양육하는 태양이나 별들이 생명을 지녔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들에게는 소립자 생명이나 중력적 생명 이외에 우리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별들만의 조화로운 의식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혜의 쓰임으로 나타나는, 얄팍한 이기적인 인간의 여과된 의식과는 달리 조상 별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주의 섭리를 이어 가는 바로 그러한 집단 무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생명을 가진 별들과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은하들도 역시 생명을 가졌고 또 이들이 모여 이루는 우주가 생명을 지님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우주는 살아 있으며 그러기에 만유는 숨을 쉬면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이행하려는 우주적 의지를 지니며 또 개체간의 상의적 관계를 통해 새롭게 발전된 창조적 단계로 초월하려는 생의를 지닌다. 이처럼 자연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자기를 새롭게 전개시켜 나가는 사건의 연속적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 생명활동의 가치와 목적이 내재해 있다. 이것이 불법의 생명으로써 보편적 특성을 지닌 무기물의 생명, 민주적인 단순한 유기적 개체성을 지닌 식물의 생명, 단순한 목적의식을 지닌 동물의 생명, 복잡한 개체성과 목적의식을 지닌 인간의 생명 등 모두를 내포하는 우주적 생명이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는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상호 유기적인 존재의 가치만큼 귀중하다.

개체간 상의적관계 통해 새롭게 발전된 단계로 초월하려는 생명의지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교통혼잡비용 年 19조원

무질서의 해악

17일 교통개발연구원은 2000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대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이 약 19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3.7%에 해당하며 99년보다 13.6% 증가한 액수이다. 가장 많은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한 부산의 경우, 일년 동안 한사람이 약 73만원을 도로 위에서 낭비했다. 교통혼잡비용은 도로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자동차 운행으로, 정상속도로 운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당연히 교통혼잡비용 발생의 1차 원인은 도로건설을 앞지르는 자동차의 증가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자가용 이용 선호와 무질서한 운전습관에 따른 도로효율 저하도 주요 원인이다.

〈열반경〉에 "오욕의 강물이 신심의 선법을 파괴해버리고, 마침내 그 강물은 삼계의 인천세간(人天世間)을 멸망하게 만든다"는 부처님이 말씀이 있다. 이는 조금 편하고자 자가용을 끌고 나오고 조금 빨리 가자고 교통질서를 어긴다면, 나와 남과 세상을 함께 망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일 것이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에 내가 억지로 취한 이득은 타인의 희생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고통은 또 다른 원망이 되고 이것들은 우리의 업보가 된다. 불자라면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나와 남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나쁜 마음은 제게로 돌아오니, 마치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도리어 제 몸을 덮은 것 같네. <측경>

작은 악은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 <대장엄경>

선악의 과보는 함께 서로 좇아 와서, 소리가 울려 산울림이 되는 것과 같다. 능히 면할 사람이 없으며 쇠사슬과 같이 모든 것을 얽아맨다. <니건자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How to bow 절하는 법

삼배 three prostration, 합장 putting palms together, 오체투지 full bowing

Put your hands palm to palm with fingers pressed together. Do a half bow toward the statue and stand straight again. Then with putting palms together, bend towards the floor. First put your right hand on the floor then your left hand. And touch your head to the floor.

Therefore your body became shaped the full bowing that five parts of body(head, arms, knees) are touched the floor. Be careful to across your feet at the back, the left over the right. Repeat this two times. Stand up and do another half bow.

손가락을 모으고 손바닥을 마주 붙인다. 불상을 향해 반배를 한 후 일어난다. 그리고 합장을 하고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굽혀 절한다. 오른손을 먼저 바닥에 놓고 왼손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함으로써 몸의 모양은 오체투지형이 된다. 이때 왼쪽 발이 오른쪽 발 위에 놓이도록 유의한다. 위와 같은 동작은 두 번 반복한다. 일어나서 다시 반배를 한다.



'서장' 통한 선 공부 ㊿끝

빛 밝히면 어둠 절로 사라진다

단지 본분의 일이 드러날 뿐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만약 제가 애초부터 뱃길을 안내하면서 진창으로 잡아끄는 것과 같은 노파선(老婆禪)을 설했다면, 그가 안목이 열린 뒤에는 틀림없이 나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스승께서 말씀해주신 은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께서 나를 위하여 말씀해주시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만약 나를 위하여 말씀해주셨다면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도리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3승12분교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단지 본분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뿐이다. 만약 가르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래 배우는 사람의 근성이 느리고 둔한 때문이지, 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

마음공부란 익숙한 것에는 생소해지고 생소한 것에는 익숙해지는 것이다.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익숙한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혀온 세간법이다. 세간법은 모두 눈 · 귀 · 코 · 혀 · 몸 · 의식 등 여섯 가지 통로와 인연이 되어 나타나는 색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생각 등의 경계로서 서로 구별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익힐 수가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혀온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세간법이다.

생소한 것은 무엇인가? 자성이니 도니 불성이니 불법이니 본래면목이니 하고 이름 붙인 것으로서,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본바탕으로서 변함없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의식하거나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늘 한 몸으로서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면서도 확인하거나 의식한 적이 없으니 생소한 것이다.

마음공부란 익숙한 세간법에는 생소해지는 것이고, 생소한 불법에는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삿됨을 부수고 바름을 드러낸다' -파사현정(破邪顯正)-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삿됨을 부수고 바름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삿됨이란 본래 허망한 것으로서 부술 것이 없다. 다만 바름을 드러내기만 하면 삿됨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마치 어둠은 본래 몰아낼 것이 없고, 빛을 밝히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세간법을 버려서 불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밝힘으로써 세간법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세간법을 분별하고 불법을 구별하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법 제대로 못보는것"

생소한 불법에 익숙해짐으로써 익숙한 세간법에는 저절로 생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부란 항상 불법을 밝히는 것이 요점이지, 세간법의 허물을 이러쿵저러쿵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은 늘 본분사(本分事)를 밝힐 뿐이고, 인정(人情)과 타협하여 본분사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본분사를 밝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고 말함에 이미 본분사가 다 드러나 있다. '어-' 에서 '떤-' 에서 '것-' 에서 '인-' 에서 '가-' 에서 한 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본분사가 움직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어떤 것인가' 하는 말이 불러 일으키는 어떤 허상(虛相)에 머물고 막혀서 드러난 본분사를 보지 못하는 병폐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항시 눈을 뜨고 감고하며 보는 것이 본래 자재하면서도, '무엇 무엇을 본다' 는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그 '무엇 무엇' 을 보는 것에 막혀서, 보는 것이 자재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어릴 때부터 익혀온 잘못된 의식의 습관 때문에 일어난다.

세간법이 어디 있고 불법이 어디 있는가? 세간법이 바로 불법이니, 불법을 떠난 세간법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세간법을 분별하고 불법을 분별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모든 분별과 말과 보고 듣는 모든 경험들이 그대로 불법이니, 이 때에는 분별 속에서 분별이 없다거나 말 속에서 말이 없다거나 보고 듣는 속에서 보고 들음이 없다는 말도 모두 허물이요, 병일 뿐이다. 그러니 무슨 알 수 없는 비밀이 따로 있으리요.

http://www.mindfree.net/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진 법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목어 無想이 實相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이 아상(我相)이나 인상(人相)이나 중생상(衆生相)이나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이 상(相)은 명상(名想)의 의미이므로 현장은 아상(我想) · 인상(人想) · 중생상(衆生想) · 수자상(壽者想)으로 번역하였다. 상(相)은 곧 만심(慢心)이다. 마음에 어떤 차별상을 갖고 분별심을 가짐으로써 탐욕이 발동한다. 욕심대로 잘 안 된다고 성질부리며, 어리석게 시기(猜忌) · 질투(嫉妬) · 모함(謀陷) · 아첨(阿諂) · 망어(妄語) · 기어(綺語) · 악구(惡口) · 양설(兩舌) 등 온갖 만용과 비굴함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양심마저 휴지통에 버린 채 남의 시선도 비웃음도 모르는 철면피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불신의 골은 깊어져 악업의 순환으로 사회는 점점 '지옥'으로 변한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은 본래 맑고 밝은 것이므로 인간이 어떠한 만용을 부릴지라도 그 근본은 착하고 좋은 마음(良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못된 짓을 하는 중생일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타일러서 스스로 깨달아 본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간절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의 제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익혀서 행업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불제자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상을 안과 밖으로 집착하거나 지어냄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곧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형색이나 어떤 소리에 걸려들거나 집착한다면 그는 삿된 외도일 뿐, 부처님의 깨달음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불제자로 흉내만 내는 불자는 안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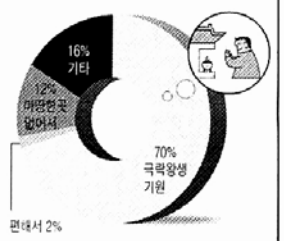
참선 · 염불 · 기도 · 참회의 목적은 곧 참된 불제자 됨의 다짐이다. 아침에 발원하고 저녁에 돌이켜 뉘우쳐 챙겨보면서 상에 걸리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삶을 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지 자문해 보자.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사찰납골당

붓다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네티즌 불자들이 사찰납골당에 자신이나 가족의 유해를 안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명의 응답자



선호 87%… '극락왕생기원' 70%

가운데 사찰 납골당을 선호한다는 불자는 88명(87%),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불자는 13명(12%)이었다.

사찰납골당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라는 답이 단연 앞섰다(63명 70%). 이에 비해 제사 모시기가 편해서라 답한 불자는 2명(2%)에 불과했으며 선산이 없어서라 답한 불자가 11명(12%)이었다.

임연태 기자

내 삶속에 '상생'이 녹아 있는지…



최종덕
상지대
철학과 교수

물자 세상보기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고 작년에 결혼하여 부모 덕에 그나마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오는 방 둘 짜리 전세에 살며, 그 방안에 전화와 냉장고 그리고 텔레비전에다 컴퓨터까지 갖추었다면, 이미 나는 최소한 물질적으로 전세계 인구의 상층부 8% 안에 들어 있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100명 중에서 92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그래도 나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한다. 그런 나는 상층부 0.1% 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소유의 정도가 곧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린 나는 끊임없이 무한한 소유를 욕구하지만, 그 꿈이 사실을 알고 보면 바로 불행의 척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미국 인터넷 상에서 62억 인구의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메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깨닫는 사람이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보내는 인터넷 메일인 셈이다. 백명 중의 한 명만이 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행복 찾기도 지구인의 1%의 사람만이 누리는 독점적 행복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62억을 100명으로 축소함으로써 나의 삶의 현재 위상을 단순하게 살펴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소박한 메시지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 내린 부정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소하지만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따지고 보면 나도 선택된 사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새삼

나눔 가지고 더불어 살며
베풀고 서로 고리지으며
남 위해 기도하는 삶을

느끼는 일이다. 내가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라면 나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줘야 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 변명이지만 지금의 혹독한 경쟁사회는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왜소하게 만들고, 더나가 나를 삶의 문맹자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노골적인 약육강식을 드러내는 요즘 사회를 보면 서로 함께 같이 잘사는 일은 곧 경쟁력 약화가 된다는 괴이한 무한경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노동자 구조조정이 그렇고, 고교평준화 폐지론이 그렇고, 과벌경쟁을 정당화하는 고질적인 우리의 학벌 체제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남들을 이긴 자는 추앙과 각광을 받는다. 그러나 그 소수자가 이뤄낸 승리의 탑을 받혀주는 대다수의 약자들은 배앓이 할 밥거리도 없는 정신적 공허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 역사의 진짜 불행이다.

나도 이런 경쟁사회에 대한 정신적 치료제로서 〈화엄경〉이나 〈금강경〉의 좋은 이야기를 반질반질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나오는 인드라망이나 상생의 이야기를 정말 나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녹아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나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기도 한다. 나눔을 가지고, 더불어 살며, 베풀고, 서로 고리 지으며,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남을 위하는 기도를 한다면 경전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실천하는 지름길이 될 것 같다.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행복임을 우리는 석가불의 삶 속에서 배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신행단체 활성화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삼보회, 대원회, 구도회 등 재가 신행단체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90년대 이후 청년층의 가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노령화가 심회되고 있으며, 회원수가 감소하면서 활동력이 크게 떨어져 명맥 유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과 신행단체 지도자들로부터 재가 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들어본다.

상운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신행단체는 사찰 신도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신행단체는 사찰을 근본도량으로 하고, 불교적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목적과 실현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 신행단체들은 사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신행단체와 또다른 특징을 지닌다.

조계종은 신행단체가 근본도량을 정하고, 지도법사를 여법히 모시는 가운데 제도권 내에서 신행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법제화하고 있다. 신도의 입교와 활동이 사찰을 통해 이루어

회원의 다양한 욕구·이해 반영을

지도록 재적사찰 갖기와 신도증 발급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찰 신도회 뿐 아니라 계층별(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등), 부문별(직장, 직능 등) 신도단체에 대해서도 그 활동이 반드시 근본도량(사찰)을 통해 이뤄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만큼 인식과 참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가 신행단체들이 현재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2천년대에 맞는 건강한 이념과 정체성 찾기, 회원 재생산 구조 완비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별 특성과 활동 방향의 올바른 정립은 조직의 유지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앙활동을 기본으로 수행, 청소년포교, 국제연대, 봉사, 시민사회활동 등 그 활동의 내용을 확대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권순정 (삼보회 포교이사)



급변하는 사회의 구조와 인터넷의 생활화로 대중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불교계는 이에 맞는 재가 신행단체들의 체계적인 활동과 불교와 관련된 전문적인 직업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재가 신행단체들의 기본법회인 "일요법회"는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노령화 현상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사섭 포교의 기지를 발휘, 눈높이를 맞추는 포교가 필요하다.

불교가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정보를 제공해 젊은층에게 불교와 인연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눈높이 맞춘 포교·전문인력 양성

한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불교를 전문적으로 홍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불교관련 직업을 발굴, 젊은이들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 포교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불교문화 관광의 가이드, 장묘 상담 전문직, 첨단장비를 이용한 불교문화재 연구사업 개발 등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컨텐츠 개발사업에 대해 신행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문화재를 컨텐츠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재가 신행단체들은 특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 관리하고, 이 인력들이 직업화, 안정화된 상태에서 마음껏 포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 포교직종을 개발하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불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재가 신행단체들은 보다 현대화, 조직화, 체계화된 포교를 통해 인연있는 불자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최근 청년회법회 회원의 급격한 감소는 불교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하며, 불자가 다같이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일이다.

동산반야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단체이지만 매년 새로운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내놓고 회원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 침체보다는 오히려 공부하고 봉사하는 작은 동아리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

신행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가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을 위한 불교의 모습으로 크게 변해야 한다.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교를 필요로 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찰은 시민을 위한

시민 찾는 불교되도록 변해야

일보다 스님을 위한 불교이며, 사찰은 조용하고 고요해야만 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신행단체나 사찰은 항상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화하고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불교가 되려면 시민이 찾아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 계층별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신행단체나 사찰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불교로의 전환을 통해 불자들을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입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연중 다양해야 한다. 신입회원이 정기적으로 입회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노령화되는 지름길이며, 그 단체 존립마저도 흔들릴 것이다.

신입회원과 선배회원의 활동이 어울릴 때 그 단체 조직이 튼튼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 신입회원 모집에 항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귀 대창 목재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중방 바지 조끼 w160,000 ●재질 : 모직(울50%)
2.동방 바지 w160,000 ●재질 : 모직(울50%)
3.두루막 w140,000 ●재질 : 모직(울50%)

누비
4.동방 바지 : w200,000 조끼 : w60,000 ●재질 :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솜
5.동방 바지 w220,000 ●재질 : 면+가볍 보온성이 고급솜
6.두루막 : w160,000 ●재질 :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솜

잔누비
7.셔츠 : w60,000 바지 : w70,000 ●재질 :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솜으로 몸매이게 누빔솜

조끼·몸배
8.조끼+몸배 w60,000 ●재질 : 면아고 활동적인 고급재질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문둔갑 강의안내

-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문의 : 02) 961-0870~2)
- 개강일시 : 2002년 3월 7일 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 수 강 료 : 학기당 16만원 (60세이상 50%할인)
- 원서접수 : 2002년 2월 1일부터 - 2월 28일까지
- 접수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체육대학 2층)
- 접수방법 : ※ 직접방문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 인터넷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http://web.khu.ac.kr/~cce)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사진 2매
- 수강과목 : 기문역학 (기문둔갑 : 사주, 작명, 택일)
  ●1학기 : 기초해단과정 ●2학기 : 전문해단과정
  (전문해단과정은 기초과정이수자에 한함)
- 담당교수 : 손혜림 (민강기문역학원장 02) 3476-3433, 3430)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제 6기)

기문둔갑은 사람이 태어난 사주를 바탕으로 하여 하늘로부터 주어진 운명을 연구하고 그 운명의 길흉화복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위한 명리학입니다. 심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전쟁에 이용하였을 만큼 역학중의 으뜸인 기학은 그동안 비법전수되어온 탓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학문이었으나 이번기회에 알기쉽게 전달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활인(活人) 천역(天役者)자 용 - 스님과 법사가 아닌 분은 문의하지 마십시오. 스님과 법사님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묻는것은 대답해줘야 합니다!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육임래정비법혁신판」은 그런 쉬운 책입니다. 비싼 것 같지만, 평생을 쓰는 활인 천역의 반려이자 매우 정확한 「오술지중귀서(五術之中鬼書)」인 것입니다!

세태(世態)는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영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리 나의 비밀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도인(道人)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옛 고승대덕(高僧大德) · 현인기사(賢人奇士)들께서 행하신 기사이적(奇事異蹟)은 바로 이 육임래정법활용 이었음을 육임통보(六壬通普)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묻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매시간마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오행술로써,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나 접근이 어려워 덮어버리기 십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 (9:32 -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만하면 다 맞게 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디오 강좌 안내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 육임 비디오 강의를 실시합니다.
매주 육임학당 효시숙에서 기자는 강의 전내용을 현장감 있게 녹화하여 매 강의 일로부터 3일이내 받아 공부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임 기초 기본에서부터 육임제법 및 비법활용 단계까지 능숙한 육임가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참고 하실것은, 사주 10년을 해도 3개월 공부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못따른다는 것입니다.

1) 비디오수강 - 3개월 12주 : 60만원
2) 오디오수강 - 3개월 12주 : 40만원
3) 입금처 : 주택은행 542701 -01 -044676 (이수동 육임학당)
4) 문의전화 : 02-826-0179 한국 육임학회 사무국

수강신청마감안내

한국육임학회 육임학당효사숙에서 실시하는 육임강좌 제1기는 마감되었고, 다음 제2기 강좌는 오는 6월 7일(금요일)부터 시작 합니다. 정원관계로 탈락된 분께서는 이때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등록을 해 두실 분은 위구좌로 선입금 하시고 명단기입을 해 두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매기 정원은 3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발문」 중에서 -



영도스님

금번 효사 선생께서 심혈을 기울여 써낸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비서(秘書)에는 참으로 귀한 것들이 밝혀져 있는데, 그 중 특히 귀신과 빌미 부정과 신소 탈을 알게해 놓은 것이 백미인 것 같다. 수만 억겁이 윤회하면서 낳고 죽는 것이 반반 되어 천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해탈없이 죽은 지의 원혼이 어찌 산지의 삶을 엿보지 않으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팔만대장경 속에도 이같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거니와, 오늘날 문물이 조금 진보했다고해서 이 사바세계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귀해(鬼害)가 경시되고 있는 풍조가 있으나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귀신들의 훼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생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간의 전쟁 역시 원귀들의 장난이 틀림없다. 이것 뿐이 아니라 중요한게 또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조상만을 논했지만, 알고보면 우리의 조상이 어디 한 두 분이겠는가?

수천 · 수만 일진대, **구체적으로 어는 조상 누구 산소를 명시해서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 점을 효사 선생은 잘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빈도가 그동안 이를 신중히 적용해 보니 **틀림이 없었다.** 그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이겠다.

이 진서(珍書)가 귀신들이 제 쉴곳을 찾아가는데 영락없이 쓰여졌으면 싶다. 일독을 권한다. **나무지장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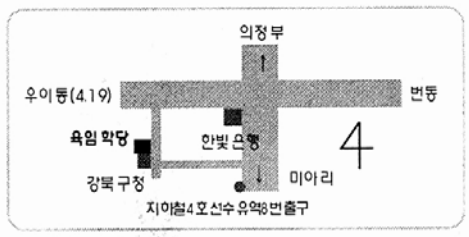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 3교구 건봉사 주지 정 영 도 합장

저는, 박사의 명예와 오행가의 양심을 걸고 역학사에 한 획을 긋는 이책을 썼습니다. -효 사-

육임래정비법 개정 증보판 및 혁신판 설명회 안내

위 책을 구입하신 분께서 그 활용 요령을 더 알고져 하신 다면 아래 장소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오십시오.

● 장소 : 강북구청 왼쪽 옆건물 4층 육임학당



부산지사(직접배달) 051)851-2349
011-844-2954
담 당 : 정 현 철

1. 운세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가부 : 천도 시식 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때뜸 내쏠 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망가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득실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수 있게끔 써 놨습니다.

8. 선악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아타발동(我他發動)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旣事)여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 · 중간 · 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귀신침범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 놨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 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쏴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자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장인, 남편, 아내, 낙태아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승여부 :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상길흉(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방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 · 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응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 · 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길흉성부단정항목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망 · 공명 · 구재 · 구직 · 시험 · 혼사 · 임신 · 가정 · 이사 · 소송 · 질병 · 매매 · 출생 · 도난 · 심인 · 대인 · 상면 · 채용 · 투자 · 승부 · 가격 · 경작 · 묘지 · 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한지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에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오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몇 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와도 모두 다르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 전 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 주문전화 : (02) 993-8680 ● 입 금 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 각종 카드로 장기 분할 구입이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부록 · 비디오테이프 포함
W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

한글판 「육임1년 신수비결」 출시

1년 중 어느날이든그 날과 온시간, 전화해 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 또는 그 사람의 띠만 알면 출생 년월일시가필요없이 1년 12달의 길흉성부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쉽고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신수책은 영영세세 두고두고 보는 책이며 정확합니다. 이 책을 능가하는 신수 책은 없습니다. 어떤 오행술도 육임의 정확도와 과단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各種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搏,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www.yosiamun.com

지난 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골에 한국 불교 전통 양식의 대웅전을 짓고 있는 태고사의 불사 현장을 찾았다. 1978년 예일대 재학 시절 승산 스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1979년 승산 스님의 제자가 되어 4년 동안 한국에서 수덕사 선방을 비롯한 여러 수행처에서 참선 수행을 한 무량 스님. 미국 땅에 한국 불교의 수행 도량 만들기를 평생 원력으로 세운 후, 1994년 인디언들의 주요 성지였던 테하차피 산에 도량을 닦기 시작했다. 손수 트럭, 굴삭기, 기중기를 다룬 스님의 노력에 교민 불자들의 힘이 보태져서 이제는 회향의 날을 손꼽아도 좋을 만큼이 됐다. 한국에서 제작한 문과 기와는 현재 선적을 앞두고 있다. 미국 속의 한국 절, 태고사. 교민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한국 선불교의 귀한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수행 도량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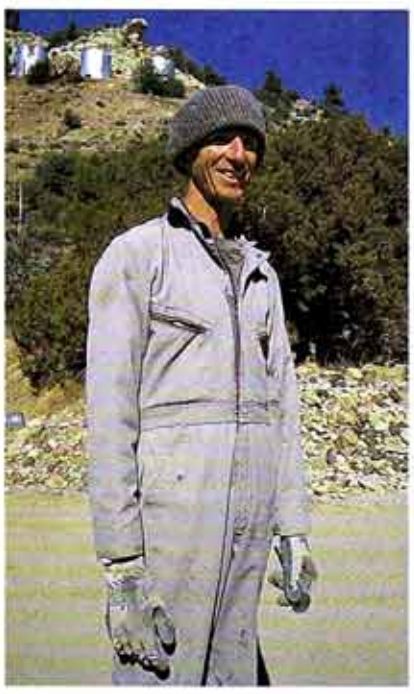

◇대웅전 축대공사가 한창이다. 무량 스님은 직접 기중기를 운전하며 노동을 수행으로 삼고 있다.



◇태고사로 발길을 이끄는 안내판. 이웃 마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참배객들의 몸가짐을 정갈하게 한다.


◇법회 후 불자들이 손수 만든 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자리는 수행의 길을 묻고 답하는 또다른 법회다.

미국속 한국절 '태고사' 회향의 날만…


인터뷰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

한국전통운치 못살려 "대단히 유감스럽다"

▲불교의 보편 가치는 국가를 초월한다. 그런데 왜 한국 불교인가?

"승산 스님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됐고 선의 세계에 대해 눈뜨게 됐다."

특수 사례로 보편 가치를 얘기하는 스님. 스승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가 느껴진다.

▲대웅전의 외양이 애초의 기대에 못 미치고 한국 전통 사찰의 운치를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이 큰 걸로 알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거듭 유감의 뜻을 밝힌 스님은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연 도리'로 답답히 현상을 받아들였다.

▲언제 쯤 불사를 회향하는가?

"모르겠다. (웃음) 계획 따위에 미련을 두지 않은 지 오래다"

스님의 말투는 이미 도인의 풍모를 닮아 있다. 미국인 무량은 천상 한국 스님이었다.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고 했다. 풍토에 따라 변화하는 만물의 생태를 비유한 말이다.

도봉산 태고사(道峯山 太古寺), 미국식 이름은 마운틴 스피리트 센터(Mountain Spirit Center). '귤과 탱자'의 관계만큼이나 동질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자아내는 묘한 조합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느낌일 뿐, '조합'은 '조화'로, 조화는 다시 한국 불교 전통의 소중한 가치들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왜 미국 스님이 한국 절을 짓느냐?'는 물음은 이제 부질없다. 미국인이, 그것도 예일대 출신의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한국의 불문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었다는 호기심어린 시선이 계속되는 것도 곤란하다. 진정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한국 불교의 전통이 지리적·문화적 울타리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르침으로 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道峯山 太古寺' 현판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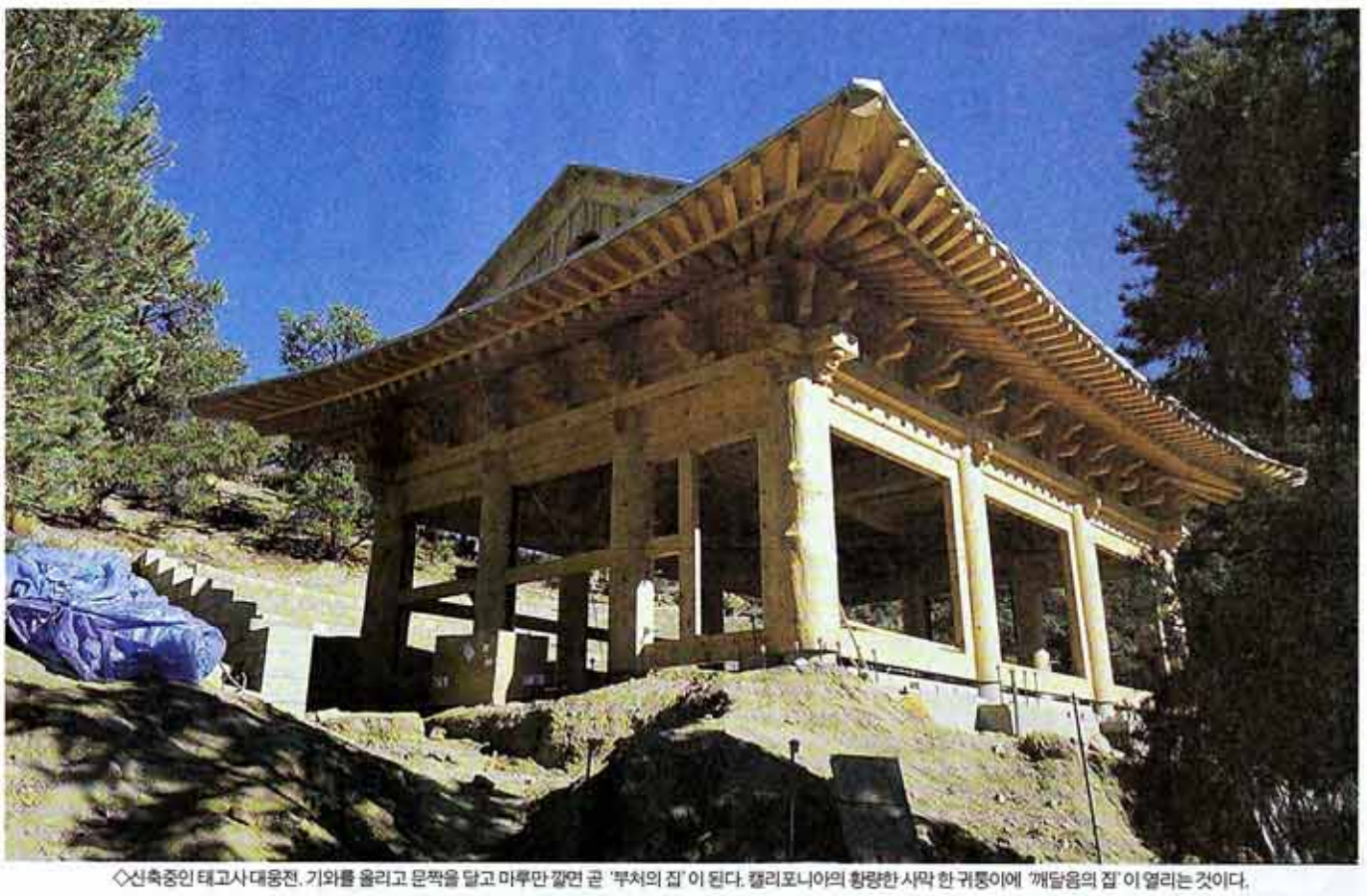
미국의 서부에 길게 누운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모하비 사막과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테하차피 산 기슭에 터를 잡은 태고사. 로스엔젤레스에서 약 185㎞, 서울서 대전 쯤 되는 거리다.

고속도로를 버리고 모하비 사막의 언저리를 가로지를 때의 풍광은 말 그대로 삼풍경. 과연 이런 곳에 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한갓진 우리네 시골길을 떠올리게 하는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면서 태고사를 알리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오자 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한다.

더욱이 시속 15마일로 '천천히 운전하세요'라는 한글 안내문은 대문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정겹다. 절 주위의 이웃들에게 소음과 먼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다. 크고 화려한 일주문이나 사천왕문이 없어도 절로 가는 마음은 절로 정갈해진다.

길이 갈을 잃은 곳, 그곳에 깨달음의 길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신축중인 대웅전에 앞서 지어진 요사채에는 한자로 '도봉산 태고사'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다. 서울 수유리의 화계사를 본사로 한 한국 선불교의 도량임이 이로써 분명해진다.

일요일마다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한국 교민들의 모습이 반갑게 다가온다. 로스엔젤레스 코리아 타운의 한국인의 모습과는 달리 토종 한국인의 모습이다. 이들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주위를 한바퀴 둘러보려는 순간 뭉충한 키에 파란 눈의 무량 스님이 작업복 차림으로 신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미국에 한국 절을 세우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온 기자라고 밝히자 "멀리까지 찾아 줘서 고맙다"는 지극히 한국적인 화합을 하신다.


◇신축중인 태고사 대웅전. 기와를 올리고 문짝을 달고 마루만 깔면 곧 '부처의 집'이 된다. 캘리포니아의 황량한 사막 한 귀퉁이에 '깨달음의 집'이 열리는 것이다.

LA서 185km 산기슭에 자리

불가 전통 생활화…철저한 절약·자연 친화

법회시작되자 50여 교민불자 법당 메워

11시 정각, 장삼에 가사를 갖춘 스님의 집전으로 법회가 시작됐다. 50명에 가까운,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법당에 가득하다. 약간 변형된 형태의 법회는 천수경 독송에 관음정근, 15분간의 입정 그리고 법담을 나누는 마지막 순서까지 1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진지하고도 엄숙한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었다.

법회를 마치고 한국 신도들이 제각기 준비해온 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마치자 어느 새 스님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크레인 위에 앉는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불가의 전통대로다.

불교기치 드높이길…염원

대웅전 축대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붕의 곡선이나 처마의 길이가 한국의 고건축물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한국의 전통 사찰 양식에 충실하려 한 무량 스님의 뜻을 읽기에는 충분하다.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사찰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태고사. 더 이상은 불가능할 정도의 검약,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 자급, 스님이 손수 만든 무공해 세재 사용, 지하수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도물의 재사용, 건물 주위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 공사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연에 대한 더없는 존경. 한국 불교의 단순한 외양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고스란히 살려내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설 때의 기분은 오랫 동안 벌러온 심산 유곡의 고찰 참배를 마친 것과 흡사했다. 이러한 기자의 심경은 취재를 주선해 준 선우중옥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났다.

"한국인으로서 무량 스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 바로 그것이다. 태고사를 통해 불교의 드높은 가치에 대해 깨닫게 된 점은 더욱 고마운 일이다."

미국=윤제학 기자 yunhi@buddha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영파선사 '佛鍾聲'

선사의 법명은 성규(聖奎), 법자는 회은(晦隱), 법호는 영파(影波), 속성은 전씨(全氏)이다. 선사의 어머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품안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고 선사를 잉태하였으며 영조4년(1782)에 선사는 태어났다.

10세 때에는 구류(九流 : 중국 한나라 때에 학문을 아홉 가지로 나누었다. 유가(儒家), 도가(道家), 음양가(陰陽家), 법가(法家), 명가(名家), 묵가(墨家), 잡가(雜家), 농가(農家)의 총칭)의 학문에 통달하였으며, 글씨를 잘 써서 당대 최고의 서예학자 이원고의 문하에 참예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글씨는 힘이 넘쳤다. 15세에 청량암에서 책을 읽다가 공양할 때 여러 스님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오묘한 느낌을 받아 출가할 뜻을 굳혔다. 이후 4년이 지난 뒤 집을 떠나 용천사로 들어가 환응장로에게 축발하였다.

이날 밤 선사의 꿈에 자란가사를 수

"천고의 진리 알고싶었는데 가을밤 찬 종소리 절문에"

한 노스님 한 분이 섬돌 앞에 서서 경쇠를 울리며 선사를 향해 세 번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선사는 전국의 제방을 운유(雲遊)하면서 해봉(海峰), 연암(燕岩), 용파(龍坡), 영허(影虛) 등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아 정진하였다. 하루는 문득 "부처님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천명하려면 깨달음(頓悟)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에 선사는 금강대(金剛臺)에 재(齋)를 설하고 관세음보살의 법력을 기구(祈求 : 기도하여 구한다는 뜻)하였다. 재를 마치는 날 밤 선사는 묘한 꿈을 꾸게 되었다.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서가에 책이 가득 꽂혀 있는데 모두 〈화엄경〉이었다. 곁에 한 노스님이 계시다가 책들을 가리키면서 "진리가 모두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그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사는 황산 퇴은 장로를 찾게 되었는데 황산 장로는 선사에게 〈화엄경〉 전부를 내주었다. 이에 앞서 꾸었던 꿈속의 현상과 여합부절하게 맞아 떨어진데 대해 선사는 놀랄 뿐이었다. 이 때부터 선사의 〈화엄경〉에 대한 공부는 본격화되었다. 선사는 〈화엄경〉의 깊고 오묘한 이치를 궁구(窮求)하는 데에 3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화엄경〉을 궁구한 지 30년 만에 끝을 맺고 함월 화상에게 참예하여 〈화엄경〉의 종지(宗旨)와 선교(禪敎)의 이치를 물어 수참하였다. 용맹정진 중 가을밤에 가랍의 종소리를 듣고 확철대오(廓徹大悟)하였다.

불종성(佛鍾聲 : 종소리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소리(法音))

七日關中亦有言(칠일관중역유언)
威音雷若震乾坤(위음뢰약진건곤)
欲聆無說傳千古(욕영무설전천고)
秋夜寒鐘掛寺門(추야한종괘사문)

7일 동안 관중에서 부처님의 법음소리 들었네,
위엄스런 우레소리 천지를 진동했다.
말없이 말한 천고의 진리를 알고 싶었는데,
가을밤 찬 종소리 절문에 걸렸도다.

선사는 오도 후 함월 선사에게서 의발을 전해 받고 그 법을 이었다. 이 때부터 선사는 조사선(祖師禪), 여래선(如來禪)을 설파하였는데 천지가 진동하였다. 이후 선사의 회상에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수좌, 학인, 대중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사의 운수행각은 계속됐다.

선사는 스승 함월 선사의 의발을 전해 받고 등단설법(登壇說法)을 하시면서 전국을 유수하는 도중 80세 때 꿈에 천구성(天拘星 : 하늘에 계신 개의 별신(星神))이 선사에게 물었다. "궁(窮)과 달(達), 수(壽)와 요(夭)가 무엇이냐." 이에 선사는 대답했다. "명성은 동국(東國)에 가득하고 영달하여 곤궁치 않으며 수명(壽命)은 80에 다섯을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 순조12년(1812)에 세수 85세 법랍 66세로 은해사(銀海寺)에서 입적하였다. (끝)

■경주 해회선원 회주

말법시대엔 '바른 염불'이 최선

한 수행자가 있었다. 깊은 산 속 바위 위가 그의 집이었다. 비바람도 굶주림도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직 수행의 기쁨 속에 살았다. 어느 날 한 벗이 <바가바드기타>를 보내왔다. 너무나 고마운 선물에 기뻐하며 읽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책을 보니 쥐가 표지를 갉아 먹었다. 수행자는 그 쥐를 쫓기 위해 고양이를 구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암소를 구했고, 혼자 돌보기 힘들어 여자를 구하고 그녀를 위해 집까지 지었다. 몇 년이 지나 귀여운 아이가 생겼다. 결국 그 수행자는 더 이상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여러 장애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지만 그 욕망을 딛고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 또한 인간이다. 그렇다면 그 이상향은 어디일까. 정토사상에서는 그곳을 바로 극락세계 즉 정토세계라고 말한다. 이 정토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수많은 정토행자들이 태어나서 생활하고자 원하는 세계인 동시에 스스로 건설하려고 하는 불국의 세계이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태 허 스 님 (본원종 종정)



◇태허 스님은 틈틈이 '나무아미타불'을 비롯해 <삼국유사>등에 실려있는 정토관련 게송을 쓰시며 정진하신다.

경북 예천 연방사에 주석하고 있는 태허 스님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으로 정토왕생을 발원하고 있는 몇 안되는 노장스님 가운데 한 분이다. 1927년 김용사에서 정경원 스님의 위패 상좌로 출가한 태허 스님은 "정토사상을 몰랐으면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염불수행을 해왔다. 태허 스님은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4시30분부터 7시까지 신도들과 함께 염불을 한다. 물론 스님에겐 수행시간이 따로 없다. 1일 24시간, 1년 365일 생활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화두삼아 정진하고 계신다. 하지만 염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한다.

"하늘에서 눈이 계속해서 내릴 때 마당을 아무리 쓸어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천막을 치고 쓸면 마당을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염불을 하는 것은 천막을 치고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난해 겨울 야응 스님을 비롯해 젊었을 때 같이 수행하던 몇몇 스님들이 마지막이라며 찾아와 옛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말로 화제를 돌린 태허 스님은 "요즘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언교(言敎)만 난무하고 행증(行證)은 찾아보기 어렵다. 말법시대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인 염불수행이 수승하여 가통입로(可通入路)이다"며 염불수행을 권한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시대를 정법 · 상법 · 말법 시대로 나눴는데, 지금이 바로 말법 시대다. 이러한 말법 시대에는 중생들의 근기가 낮기 때문에 이들이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방법이 염불수행이라는 게 태허 스님의 지론이다.

"아미타불 정근은 정토삼부경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근본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추구하는 공부입니다. 가장 쉬운 공부라 할 수 있지요. 오직 아미타불만 염송하면 되니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큰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수행자에게 참선을 권하는 반면 재가불자들에게는 염불수행을 권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지요."

정토사상 몰랐으면 불제자 되지않았을 것

태허 스님은 지난 89년 정토종인 본원종을 창종해 현세정토의 구현과 불국정토의 실현을 위해 염불지도와 수행을 하고 있다. 이는 스님이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등 여러 종단의 소임을 맡으면서 내린 결론이다. 불교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 시대에, 중생을 가장 바르게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염불수행이라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여러 종단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현대에 맞는 불교가 무언가를 늘 고민해 오셨다. 그리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교법은 보는 불교, 즉 정토불교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본원종을 창종하셨다"며 "지금도 불교를 이 시대의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종교로 만들기 위해 정진하고 교법을 펴는 스님의 모습은 종도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염불수행은 참 나로 깨어나는 실천적인 삶의 운동이라고 말하는 태허 스님. 이런 스님께서 염불수행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법문이 있다고 한다.

"불교의 목적은 성불에 있어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력과 타력이란 두 가지의 수행방법이 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참선은 자력이고 염불은 타력입니다. 한국불교에서 참선만 강조하다보니 이것만 가장 수승한지 알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우열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력적인 방법보다는 아미타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해 깨달음을 증득하는 타력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에 있어 수시로 선지식들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재가불자들이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토라는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친히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자력문(自力門)과 타력문(他力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은 자에 의한 타력이 더 효과적이란 것이다. 타력문은 자력문처럼 이해를 근본적인 줄기로 하지 않고, 믿음(信)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력문의 가르침 가운데 아미타불과 그의 정토인 극락세계에 대한 신앙이 크게 발전하여 불교 가운데 큰 세력을 차지하는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였다. 이를 정토교라고 한다.

불교의 신행에 있어 정토사상이 가장 수승하다는 스님은 염불 수행자들은 무엇보다 염불 수행의 의의를 잘 알아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 혹은 감로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득한 과거세에 법장 비구의 몸으로 있을 때 시방

참 선 교 육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 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

2권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초提와 單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 임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3권 선사 백문백답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1, 2, 3권이 3월에 출판됩니다. 먼저 인쇄해두고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교재이기 때문에 꼭필요한 분에게만 보급하기 위하여 300질 한정판으로 제작하오니 구입에 뜻이 있는 분은 미리 송금한 후 전화주시면 3월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대량 제작 후 불교서적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격 1질(3권) 3만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736-4339

※ 56기 참선교육 : 2002년 3월 12일(화) ~ 4월 9일 (화) -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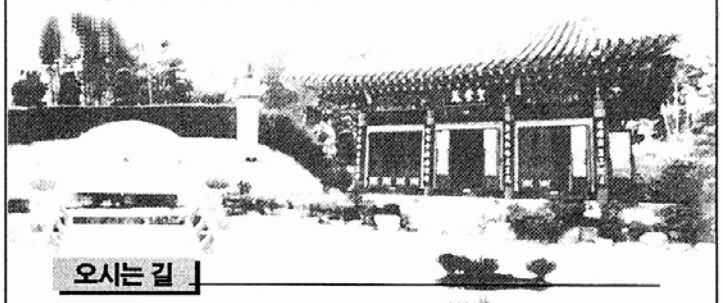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정월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8번지 불거촌

성모암 대중일동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몸속의 독을 해독시켜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몸속의 환경호르몬(독소)의 축적은 칼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공포로 다가오며 생명을 단축시킨다. -

간 질 환	간염, 간경변, 지방간 등 간기능 저하 및 급만성 간질환
급만성위장병	급체 위장 장애는 그때마다 복용으로 치유되고, 만성은 1일 3회 정기적 3~12개월이면 신효한 효력 있음.
부 인 병	월경복통, 월경불순 2~5주 이상으로 치유
출 혈	협치질, 비출혈은 3~5일 내외로 중지되며 1~3개월이면 원인적 치유됨
만성변비	투약을 조절하여 복용하지만(종합병원 임상 99%) 매우 심한 환자는 1회 3~15캡슐
알콜중독	2제 복용으로 특효. 술로 인한 제반 증상이 치료, 또는 호전됩니다.
약물중독	급성약물중독자에 1~2주 복용시 제병상의 치료 및 후유증을 해소시켜 준다.
마약중독	경미한 중독자(1~2년) 24시간 OK, 경중한 중독자(2~5년 이내) 48시간 OK, 5년이상 중독자 72~144시간 OK
식 중 독	식중독 발병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99% 치유되며 24시간이 경과하면 80%까지 저하됨.
농약중독	쥐약에 중독된 개가 죽어갈 때 40캡슐 투약하면 15분이면 소생함.
연탄가스중독	중독시 40캡슐을 물에 혼합하여 복용 후 15분이면 회생하고 후유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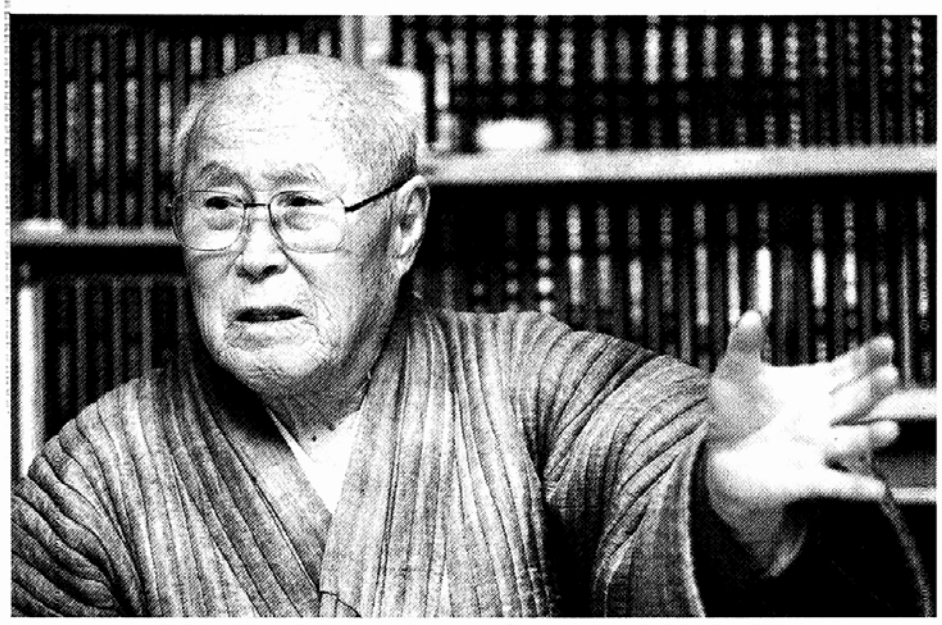
우리 몸의 독소가 만병의 근원
기적의 미라보타 플러스

만병의 근원인 우리 몸의 독소제거는 미라보타 플러스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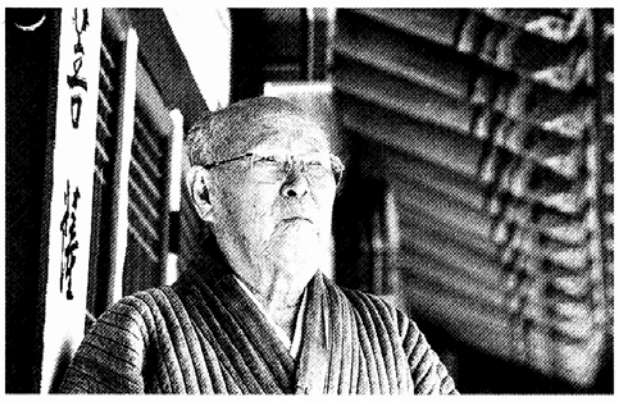
특히, 술로 인한 간질환에 ……

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205
미라보타 플러스

우선 '나'란 존재부터 없애야



◇태허 스님은 염불수행은 나란 존재를 없애고 아미타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염불수행은 정토의 집을 짓는 것이다.

화두 받는사람 근기에 맞게
'마음 정화' 이시대 가장 절실

세계 2백10억의 국토 가운데 가장 훌륭한 곳을 골라 이상세계를 구현할 것을 서원하고 48대 서원을 세운 분입니다. 이 서원은 정토의 설계도인 셈이지요. 염불수행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정토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염불왕생이라고 합니다. **염불수행자는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아미타불 존재에 의지해야 합니다.** 즉 몸과 음성 그리고 생각까지도 아미타불과 하나가 될 때 **참다운 염불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허 스님은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염불수행도 '나'라는 존재를 먼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불하는 순간부터는 부모님이 주신 육신과 음성 그리고 마음까지도 아미타불이 주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님은 무조건 '나무아미타불'만 부른다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이나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염불이나 수행자 자신이 일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8원 가운데 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이란 서원이 있어요. 이는 **누구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념으로 염하면 오매일여가 되고 궁극에는 생사일여가 되는 법입니다.** 그 어떤 수행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참선의 경우 화두가 항상 마음머리에 있어야 합니다. 시심마라는 생각, 그 생각만이 홀로 높아서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각마저 사라질 때 무여열반이 되어 활연대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매일여가 되지 않고 화두만 붙잡고 망상만 부린다면 검은 산 밑의 마귀굴에 빠지게 됩니다."

태허 스님은 염불수행에서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할 때 크든 작든 세속의 바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심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염관, 염불, 염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토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염불수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경전공부는 염불수행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불 정근은 근본자성을 덮고 있는 망념의 먹구름을 조금씩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숙세의 업장들도 조금씩 소멸시켜 줍니다. 만약 경전을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옳게 관찰할 수 없습니다."

염불수행으로 평생을 일관해 온 태허 스님은 요즘 선지식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수행자의 근기를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식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 뱃사공이었던 사람에게는 물과 관련된 화두를 주어야 할 것이고, 대장장이였던 사람에게는 불에 대한 화두를 주어야 공부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 화두를 주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화두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캄캄하니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 있을 리가 있나요."

태허 스님은 이 한 가지만 더 알고 가라며 마음의 정화를 강조하신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입니다. 정화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온 국토가 청정할 때 그것이 극락세계가 아닐까요."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태허 스님은?

총화종 종정… 89년 정토계 본원종 창종

1916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으며, 27년 믄경 김용사에서 정경원 스님을 은사로 이화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이후 김용사 경흥강원에서 관응, 서암 스님과 함께 공부했으며,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를 마치고 문경 봉암사, 영주 부석사 예천 서악사 등의 주지를 역임했다. 문경 김용사 경흥강원 강사와 김용사 중임에서 선방생활을 하는 등 교(敎)와 선(禪)을 겸수했다.

또한 스님은 천태종(초대 총무원장)과 태고종(총무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총화종(종정) 등에서 중책을 맡았다. 이렇게 여러 종단을 거치면서 스님은 이 시대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쉬운 불교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스님은 지난 89년 정토종인 본원종을 창종하고 종정의 소임을 맡아 경북 예천 연방사에 주석하면서 염불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벽산스님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만 수행자들은 세상의 영화를 뜬구름같이 본다. 그들이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생사에 자재하고자 함이요, 한평생을 한 장 좌복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다만 깨달음을 향해 일체 욕망을 산문 밖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산문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사십여 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해가 더해 갈수록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고맙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먹빛 빨래에 풀 먹여 손질하는 일이 오십이 넘은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인 터인데, 그것이 조금도 싫지 않으니 아마도 전생부터 익혀온 일인가 보다. 다행히 숙세의 선근이 있었는지 많은 선지식을 가까이 섬길 수 있었으니 그러한 것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다.

나를 출가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속가로 종조부가 되는 청주 용화사 벽산(碧山)스님이다. 나에게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분이다. 벽산스님은 일제 시대 암울하기만 했던 소년시절, 절에 가면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직지사로 입산했다. 앞으나 서나 경전을 읽었고 날이 갈수록 경전 읽는 일에 재미가 난 스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다가 코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날이 빈번했다. 법주사에 가서도 경전읽기에 몰두한 스님은 십대 말의 나이로 법주사 강원의 강사가 되셨으니 법주사 역사상 '최연소 강사'라는 기록을 남겼다. 일찍부터 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도시포교에 심혈을 기울였다. 청주 용화사 주지로 부임해 학생포교와 교도소 포교에 헌신했다.

대처와 비구가 싸움을 하던 정화 때는 "불교인끼리 싸우는 것은 자멸이 있을 뿐"이라며 화합을 주장했다. 스님께서는 불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대처든 비구든 싸움을 하면 스스로 불교를 갉아먹는 일이다. 불자로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사자몸 가운데 벌레다. 승가는 화합이 생명이니 절대로 싸워서는 안된다. 싸워서 얻은 힘은 싸움으로 망한다"라며 싸우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정화가 끝난 뒤 조계종 종회의 초대, 2대, 3대 종회의원이 되어 통도사의 조용명스님과 함께 화동파(和同派)의 기수가 되셨다. 항상 종단을 걱정하시고 젊은이들을 포교하는데 앞장서신 분이다. 또한 전쟁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운영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셔서 일찍이 학생법회를 시작했다. 그 학생회 출신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현재 재가법사로, 출가해 스님으로 전국에서 포교하고 계신다. 벽산스님의 자비심은 유별났다. 승속을 막론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존경의 예를 다했다. 젊은 스님들을 만나도 먼저 삼배를 올리고, 본사의 스님들과 전화통화할 때는 전화기를 들고 "안녕히 계십시오"를 몇 번이고 거듭하며, 머리 숙여 절하곤 했다. "스님, 전화기에다가 절을 하면 상대방이 보기라도 합니까" 하면

"누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면 내가 편안해 지니까 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하시는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누구에게나 허리 굽혀 절을 하는 스님은 걸인에게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예사였다. 초파일 때나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걸인들이 수도 없이 찾아와 스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스님의 주머니는 돈이 들어 있을 겨를이 없었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관대하기 이를 데 없었지

10대에 법주사강원 강사
사상범 교화시켜 제자로

만 권속들에게는 엄격하여 백 원짜리 하나라도 이유 없이 쓰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연세가 많으셔서도 매주 교도소에 가서 교화하셨다. 사상범을 교화해 출가시켜 제자를 만들기도 했다.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감하는 죄수들은 대부분먼저 스님을 찾아온다. 차비를 얻어가고 목욕비를 타 간다. 스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주시는데 부엌 사람들에게는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어서 짜증을 내면 "오랫동안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먹어 보았을 텐데 자비심을 배운다는 사람으로 어찌 그리 인색하냐?"며 오히려 타이르시곤 했다.

내가 강원을 졸업하고 인사차 들렀을 때 "너 정말 중노릇을 할거냐?"고 물으셨다.

"중노릇 말고 다른 것 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답을 드렸더니 스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이놈아, 중노릇을 하려면 여자를 조심해라!" 하셨다. (계속)

이번호부터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설곡스님은 1951년 경북 상주生으로, 64년 청주 용화사 수도원에서 출가, 70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계를 수지했다. 70~72년 해인사에서 안거를 지냈고 74~85년 대구 운흥사 주지, 86~95년 대만 홍법원장을 역임했다. 91년 대만 중국문화대학 미술학부 졸업, 95년 동 대학 예술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중앙승가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북대, 효성대에서 강사를 지냈다. 스님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런던 연화사 주지를 지냈으며 현재 구미 영명사 주지로 있다.

범음대학 2002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학 년	강의내용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50명
2학년	각배과	50명
3학년	영산과	50명
이론	불교의식각론	-

2.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2년 2월 14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2년 3월 3일

7. 입학일 2002년 3월 6일 오후 2시 (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범음대 02)392-3234, 종무소 02)392-3007~8 FAX 02)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두드려라! 깨달음에 이를때까지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 내달 8일 무대에

성격 서로 다른 다섯스님 좌충우돌 수행기

공연 중간중간 緣起 · 오도송으로 주제 전달



◇'야단법석'은 두드리고 즐기는 가운데 연기와 무아사상 등 불교의 가르침을 관객들에게 자연스레 전달한다.

삭발한 머리에 승복을 입은 배우들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전통타악연구소(소장 방승환)의 이색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홍인호 작 서승규 연출)'이 3월 8일부터 24일 서울 종로 연강홀 무대에 오른다.

'야단법석(野壇法席)'은 야외에 단을 쌓고 불법을 설파한 법회에서 유래한 말로서, 이 퍼포먼스는 단순히 스님과 운판 목어 목탁 죽비 등 불교의 상징들을 소재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두드리며 함께 즐기는 가운데 연기와 무아 사상 등 불교의 가르침을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야단법석은 전생의 업(業)에 따라 타고난 본성이 다른 다섯 명의 스님들과 전생과 현생의 세계를 넘나드는 세 명의 보살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을 웃음과 재치, 타악과 무용으로 풀어간다.

조금 어눌한 듯하지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인 천진스님, 성격이 급해 쉽게 흥분하는 허공스님, 답답할 정도로 느린 아공스님, 현실의 지혜보다 경전에 의지하는 여리고 약한 현암스님, 매사에 맛과 예를 강조하는 무산스님 등 우리 주변의 친구나 이웃 같은 천숙한 스님 캐릭터가 퍼포먼스의 생명력을 더하고, 관객들과 공감대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죽비와 목탁, 바라, 경전 등은 사건과 사건을 이어가는 매개체가 되고, 손바닥 발바닥을 비롯한 온 몸의 터치가 그대로 장단과 박자를 이루어 하나의 새로운 음악이 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통 타악의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성에 현대적인 리듬까지 가미하여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 연주 뒤에 필요 웃음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극적 장치를 설치해 주제 전달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중간 중간 선보이는 '연기송' '무아가' '오도송' 등은 연출가 서상규씨가 옛 고승의 오도송과 교리 등을 인용해 만든 가사에 작곡가 김상희씨가 곡을 붙여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불교적 정서가 물어나는 선율로 주제, 전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노래마다 음마니반메훔 진언과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인 아제아제바라아제를 후렴구로 불러 한층 장엄한 분위기도 연출한다. 또한 무대 뒤편에 대형 법륜(法輪)을 설치해 법륜이 굴러가는 동안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마지막 무렵엔 법륜이 일원상(一圓相)으로 바뀌어 출연자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깨달음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번 공연을 위해 전 출연진과 스텝들은 지난달 송광사서 2박3일간 생활하며 불교 교리를 공부하기도 했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행자승들의 생활을 화암사에서 실제로 체험하기도 하는 등 불교 소재의 공연을 소화해 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 담당=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 전경.

한국 세계문화유산 8곳 DVD시리즈 선뵈

한·영·일 3개국어, 주변 역사도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문화유산 8곳의 모든 것을 담은 DVD 시리즈가 나왔다.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역사유적지구, 해인사 장경판전, 고인돌 유적, 종묘(종묘제례악), 창덕궁, 수원화성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재로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법으로 제작한 이 시리즈는 DVD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알엠제이시(RMJC)가 7년여 동안 준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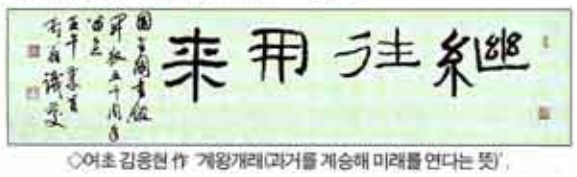
이 시리즈는 한국어·영어·일어 3개 국어가 나레이션과 자막으로 지원되며, 문화유산 주변의 사계와 역사, 생활까지를 생생한 화면으로 담아내 활용가치가 크다. 알엠제이시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시리즈에 이어 각 도별·테마별 문화재를 DVD화 하는 작업을 추진, 이를 영상대백과사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최대의 한국문화유산 동영상 사이트인 www.kowtv.com도 운영하고 있다.(02)549-6245

여초 김응현 서예展

3월 5일 국회도서관서

원로 서예가 여초(如初) 김응현(75)씨가 3월 5일 부터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예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국회도서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김씨는 1952년 한국전쟁 당시 국회도서관 최초의 직원으로 입사해 61년까지 근무하며 〈국회보〉의 편집과 도서관 설치에 직접 관여했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왼손으로 쓴 좌수서(左手書) 20여점을 비롯해 모두 5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회도서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해 쓴 휘호 '계왕개래(繼往開來)'는 전시 후 도서관에 영구 소장된다.



◇여초 김응현 作 '계왕개래(과거를 계승해 미래를 연다는 뜻)'.

문광부, 문화사절단 파견

문화관광부는 최근 '월드컵 개최 계기 활용 우리 문화 세계화'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3월~4월 독일·아일랜드 세네갈 등 본선 진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한다. 4월에는 중남미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코스타리카·파나마·에콰도르·칠레 등 5개국에서 국립국악원의 전통예술 공연을 소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베트남·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프랑스·러시아·일본·중국·스페인 등의 축제 현장을 찾아 승무와 살풀이, 판소리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선보인다.



정률 스님 두번째 앨범

'노래로 하는 기도' 출시

성악가 정률스님의 두 번째 앨범 "노래로 하는 기도-영겁을 하루같이 2"가 나왔다.

첫 앨범 '영겁을 하루같이 1'이 스님의 고운 소프라노 목소리를 돋보이게 하는 독창곡 위주였다면, 이번 앨범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염불 기도송이라는 독특한 형식이다.

'아미타불 정근송' '광명진언 기도송' '약찬게송' '화엄성중 정근송' 등에 이들 곡의 서곡까지 총 8곡이 수록돼 있다. 대만의 불교음악인 '나무아미타불 정근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님이 작곡했다.

"모든 불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듣듯이 염불을 경청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앨범을 준비했다"는 스님은 "우리 전통악기인 아쟁과 대금, 가야금 등과 서양악기인 피아노, 기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새로운 형식의 불교음악을 선보이려 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조만간 자신의 불교음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도 열 예정이다.(www.jungyul.or.kr)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봄맞이 가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유를 받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따라나서지 못했다. 눈이 남아있는 산 속에 꽃이 피는 복수초(福壽草)를 보러, 친구는 포천 백운계곡 너머 광덕산으로 떠났다. 화신(花信)을 기다리다 못해, 얼음을 뚫고 삐져 나오는 노란 꽃잎을 직접 찾아 나선 그 심정이 이해될 만도 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봄이 언제 오나 하고 마냥 기다려진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주변에서도 수줍은 듯 작은 연노랑 꽃을 터뜨리는 산수유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목련, 진달래, 개나리, 라일락 등이 앞다퉈 온 산을 울긋불긋 물들일 것이다. '봄'은 진정 '보는(見)' 계절인가. 봄을 맞아 꽃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정신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종일 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盡日尋春不見春)
짚신 끌며 구름 핀 재 넘어 두루 돌아다녔네
(芒鞋踏遍嶺頭雲)
집에 돌아와 우연히 매화향기 맡아보니
(歸來偶把梅花嗅)
봄은 매화가지 끝에 이미 와있는 것을
(春在枝頭已十分)

비구니 스님의 '봄맞이'

집에 돌아와 보니 봄은 매화가지 끝에 이미 와 있는 것을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시(悟道詩)로 알려진 이 유명한 시는 다시 읽어봐도 그 절묘한 비유와 표현이 선미(禪味)를 담뿍 안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무 문제없이 술술 잘 읽히던 이 시가 오늘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 보니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있더라'는 대목이 목에 딱 걸리어 넘어가지 않는다. 그 스님은 자기 마음 속에서 꽃(本性)을 보고 냄새도 맡았다는 것(徹見)이 아닌가. 일단 꽃을 보았다면, 그 스님의 마음은 늘봄(四時長春)이 되어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이지만, 인생에선 꽃이 피어야 봄이 온다. 매화 향기가 나지 않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긴 겨울이 언제라야 끝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 비구니 스님이 맡았다는 꽃향기를 내 마음 속에서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첫사랑을 한 사람도 잊은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돌이켜보니, 나도 첫사랑(初心)을 처음 느꼈던 그때의 설레는 마음과 또 그 순간을 잊지 못해 도서관과 산사(山寺)로 방황하며 떠돌던 숫한 나날들이 떠올랐다. 무수한 숨바꼭질이 되풀이되었지만, '님'은 그 아리따운 얼굴을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좌절과 실망 속에 그리움은 무뎌지고, 님의 모습은 흐려져 가물가물하기만 하다.

자연에선 기다리면 기필코 봄이 오지만, 인생에선 기다리기만 해선 결코 봄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러나 찾아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간절한 그리움을 품고 오늘도 기다리는 수밖에. 매화꽃 향기에 취해 은은한 미소를 띄운 그 스님의 얼굴이 부럽기 그지없다.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염가등 이있습니다. * 각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부처님 오신날
만월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멈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 을 연등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시 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 에 걸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연등업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2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지눌'

이덕진 편저



예문동양사상연구원이 한국의 사상가 10인 시리즈 불교사상 분야 세번째 권으로 출간된 〈지눌〉(예문서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지눌(1158~1210) 스님 관련 주요 논문을 모았다.

지눌의 선사상이 한국불교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의 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재의 한국불교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눌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였다. '인간'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알려면 '심(心)'을 알아야 하고, '심'을 알려면 모든 생각이 출입기멸하는 우리 '마음'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마음이 나타나는 모양은 말할 수 없이 다양다변하고 무궁무진한데,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나타나는가.

지눌이 평생을 통해 설한 바는 오로지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었다.

'지눌 선사상 체계의 이해', '지눌 선 사상의 돈오와 점수에 대하여'를 비롯해 4부문으로 나눠 15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값 2만6천원.

"마음이 무엇인가" 설법 요점 분석

건축물 양식·배경·주변교통 소개

충청북도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단행본이 잇따라 발간됐다.

충청개발연구원(원장 이태일) 부설 충북학연구소는 지역 사찰과 불교유적을 소개한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와 지역 건축문화 발달 과정을 소개한 〈충북건축기행〉을 동시에 내놓았다.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
'충북 건축기행'

충청 개발硏 발행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는 단양 구인사와 20세기에 지어졌지만 전통 목조건축을 그대로 재현한 진천 보탑사, 비구니 사찰로 이름 높은 음성의 미타사, 화암사와 괘불제로 유명한 안심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충북건축기행〉에는 속리산 법주사 등 가볼 만한 전통건축과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등의 전통건축 체험장 등이 소개되어 있다. 건축물의 양식, 배경, 위치, 교통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안내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발간된 200여부의 책자를 도내 도서관과 학교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엄마랑 아빠랑 절에…'

홍주연 엮음



〈엄마랑 아빠랑 절에 갔어요〉(가교)는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안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절의 여러 건물과 탑, 범종, 석등, 풍경의 유래와 기능 등을 쉬운 말로 안내하고 있는 어린이 불서다.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우연한 기회에 절에 들리게 되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접하게 되는 절의 건물과 불구 그리고 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등 부담없이 불교와 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잘 몰라요'라는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칫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용어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더욱 쉽게 읽힌다. 또한 우리 민족 고유 신앙의 대상들이 불교와 결합돼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어 있다. 산신을 모신 산신각,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북두칠성을 모신 칠성각, 또 이들 산신과 북두칠성신을 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독성과 함께 모셔 놓은 삼성각이 그러하다. 엮은이 홍주연 씨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산에 가면 절에 들렀을 것이다"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값 8천원.

절의 모든것 쉽게 쓴 어린이 불서



◇중국 근대 고승 허운 화상의 제자인 관정 큰스님.

조동종 핵심사상 첫 국역 출간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

이창섭·최철환 옮김



대한불교진흥원은 한국 조동선의 맥을 이어주는 문헌인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를 처음으로 우리말로 출간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말 고려 초 진철 이엄 선사에 의해 구산선문 가운데 마지막 산문인 수미산문을 열고 조동선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와서 조동선은 침체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맥을 이어지게 한 것이 바로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이다.

〈중편조동오위〉는 〈삼국유사〉를 빼면 일연 스님의 유일한 현존 저술로 사자(師資) 오위(五位 : 선의 입장을 정(正)과 편(偏)의 체계로 분류하는 다섯가지 방법)에 관한 책이다. 선종의 한 파인 조동종의 오위설(五位說)에 대해 주를 보완하여 간행한 것으로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동오위설이란 동산 양개(807~869)가 제창한 편정오위설(偏正五位說)에 그의 제자 조산 본적(840~901)이 주를 붙인 것으로 조동종의 중심사상이다. 이것이 고려에 전해지면서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아 일연 스님이 51세 되던 고종 6년(1256) 여름 두륜산 길상암에서 옛 간본을 참고하여 바로잡고 자신의 견해를 보완한 것이다. 일연 스님은 이 오위설의 편정에 군신(君臣)을 대비시켜 군신오위설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동안 상찰(?~961) 선사가 지은 〈십현담〉을 법안종의 개조인 청량 문익 선사가 주를 붙이고, 설잠 스님이 조선 성종 6년(1475)에 주해한 〈십현담요해〉와 만해 스님이 주를 달은 〈십현담주해〉를 합편하여 번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동종 관계 중요 저술이 모두 번역되는 셈이다.

〈십현담〉은 선의 오묘한 이치를 열 가지 면으로 노래한 선시로, 그 경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문학성 또한 뛰어나 선시 가운데 백미로 꼽힌다.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현재 우리 불교계는 간화선 일변도의 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동종의 선 수행법인 묵조선도 간화선과 더불어 선불교의 큰 흐름을 형성했던 선법의 하나임이 분명하다"며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조동종의 묵조선이 더욱 연구되고 수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옮긴이는 이창섭(전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씨와 최철환(동국역경원 편찬부장) 씨. 값 1만2천원.

십현담, 禪의 이치 노래 문학성 뛰어나
"묵조선 더 연구·수행되는 계기되길"

출판 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선정 중 체험한 극락세계 그려

'극락은 있다' 대주 스님 옮김

극락세계는 어떠한 모습이며,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중국 관정 스님의 6년 5개월 극락 체험기 〈극락은 있다〉(붓다의 마을)를 권한다.

관정 스님은 근대 중국 고승 허운(虛雲 1840~1959) 화상의 제자로, 육조 혜능 대사에서 청원행사로 이어지는 동운종(洞雲宗) 제48대 법맥을 잇고 있다. 허운 화상으로부터 참선을 배워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고(念佛者是誰)?"라는 화두를 들고 수행한 스님은, 보통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동안 선정에 들 정도로 깊은 경지에 다다랐으나 삼계(三界)를 초월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스님은 1967년(당시 44세) 10월 25일~1974년 4월 8일까지 6년 5개월 동안 선정에 들어 천상과 극락세계 구품연화대를 두루 참관했다.

이 책은 스님의 극락세계 법문집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출간된 것으로 스님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극락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극락세계는 물질계 즉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상상력으로는 믿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세계임을 강조하는 스님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발원과 선행, 염불수행의 실천을 통해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한다. 번역은 대주 스님(인천 정토선원)이 맡았다. 값 8천원.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영혼의 모음(법정 지음, 샘터)=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로 일반에도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이 1973년 펴낸 책의 개정판이다.

70여 편의 글들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서울 봉은사 다래헌에 머물 때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것들이다. 법정 스님이 펴낸 첫 수상집이다. '영혼의 모음'은 법정 스님이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제목이기도 하다. 값 8천5백원.

▲생활 속의 금강경(우룡 스님 지음, 효림)= 울산 학성선원의 조실로 있는 우룡 스님이 대승불교의 기본 경전인 〈금강경〉 32분에 대해 강설한 내용을 묶었다. 초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고승들에 얽힌 일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이 풍부하게 인용돼 있어 읽는 속도감을 더한다. 값 6천원.

▲허무 우주로부터의 메시지(무묘앙에오 지음, 박은혜 옮김, 모색)= 에오 명상 전집의 10번째 작품이다. 사고, 감각, 감정에 관한 7가지 질문과 의식과 명상에 관한 9가지 질문, 우주와 탐구에 관한 5가지 질문에 대해 에오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값 9천원.

'행복한 바보…'

이왕준 옮김



〈행복한 바보 성자 물라〉(샘터)는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이야기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결코 쉽게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책이다.

중동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인 물라의 수많은 일화들 가운데 73편의 짧은 이야기를 담은 이 책에서 물라는 바보로, 성자로, 때론 수피즘의 스승으로 등장하며 짓궂으면서도 날카롭고 해학적인 우화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삶의 지혜를 전한다.

해학적 우화통해 삶의 지혜 전달

'누워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 '매운 고추를 먹는 이유' 등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지친 어깨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현실을 거부하고 자기합리화에 익숙해져 가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과거와 현재의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값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2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외	민 족 사
3	행복한 달마	이 규 행	백 암
4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5	봐라 꽃이다	김 영 옥	호 미
6	회색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7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8	엄마랑 아빠랑 절에 갔어요	홍 주 연	가 교
9	꽃담	해 만	시 공 사
10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도서 안내:(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기도·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신라 고승 저작 일본 교학 바탕

한국고대사학회 '한일 관계사 새조명' 토론회

■일본의 신라 유학승과 당 유학승(귀국년 기준)

	신라 유학승	당 유학승
문무왕 이전		혜인(623) 혜재(623) 혜광(623)
		승민(632) 영윤(632) 법은(639)
		혜문(639) 청안(640) 현이(640)
문무왕대	도행(668)	정혜(665) 묘위(668) 법승(668)
신문왕대	관상(685) 운관(685) 행심(686)	지종(690) 의덕(690) 정원(690)
	지용(687) 명총(689) 관지(689)	
효소왕대	반통(696) 신예(693-?)	
성덕왕대	의법(707) 의기(707) 총집(707)	도자(718) 지난(703-?) 지웅(703-?)
	자정(707) 정달(707) 행선(718)	

지난 해 11월 아키히토 일본 국왕이 "간무 일왕은 백제계"라며 일본 왕실이 고대 한반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정한 발언은 한 · 일 양국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고대 한 · 일 교류사를 둘러싼 양국 역사학자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고대사학회가 21~22일 '고대 한 · 일 관계사의 새로운 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합동토론회는 바로 한 · 일 고대사의 쟁점에 대해 양국 역사학계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첫날 '고대 한국과 일본의 불교 교류'를 발표한 정병삼 교수는 먼저 '한 · 일 불교 교류에 있어 한국이 불교를 전해 은전을 베풀었다는 우리 나라 학자들의 인식이나 일본은 불교를 전해 받았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는 인식을 모두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일본 학자들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이뤄진 불교문화 전수는 인정하면서도, 8세기로 넘어오면 한국의 영향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점은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세기 중반이후 국가불교의 모습을 띠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일본 불교가 당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 불교를 직접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8세기에도 경전 보급과 승려 교류를 통해 불교 교학 측면에서 한국 불교는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8세기경 경전보급 · 승려 교류
동대사 창건 · 대불조성 큰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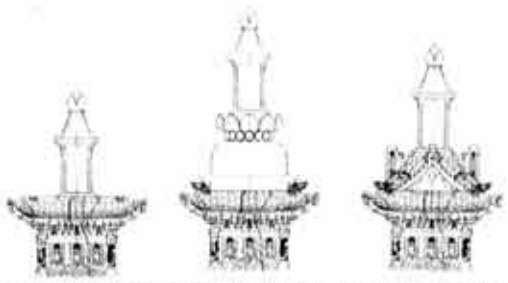
정 교수는 "일본에서 8세기 중반에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경의 대상이 신라에서 구한 경론이었다"며 "원효를 비롯한 신라 승려들의 저작이 대거 사경을 통해 일본에 소개됨으로써 교학 발전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승려들이 신라에 유학하고 귀국해 지도적 활동을 함으로써 신라 불교 문화의 영향은 지속되었으며 동대사의 창건과 대불 조성에도 신라 계통의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일본의 초기 불교 수용이 백제 불교의 영향을 지속적이고 강하게 받기는 했지만 복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흔히 백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법흥사도 백제와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함께 받았으며, 사천왕사 역시 가람 구조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으나 금탑과 사리 등 신라의 불구를 두게 한 것은 신라 불교문화의 영향이 크게 미쳤음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이 따로 따로 불교를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두 나라이상의 불교를 동시에 수용한 면이 보인다"며 "이는 일본 나름의 틀에 맞춰 복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둘째날 '고대 한 · 일 미술 교섭사'를 발표한 김리나(金理那)대 교수는 고대 한국과 일본의 미술 교류를 불교 조각과 공예, 회화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연민수(동국대) 교수는 '고대 한 · 일 외교사'를 발표했다.

기조강연을 한 이기동(동국대) 교수는 "관계사, 교섭사 연구에서는 자국 역사의 입장과 논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고 "종래의 고대 한 · 일 관계사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적잖은 결함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학술 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경천사터 10층석탑 상륜부 모양에 대한 세 가지 모델. 왼쪽부터 1902년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한 모양과 1960년대 임시 복원 당시 모양, 원각사터 10층석탑의 상륜부.

경천사터 10층석탑 복원
상륜부 모양새 싸고 논란

1996년부터 국보 26호인 경천사터 10층석탑을 해체해 보존처리하고 있는 문화재연구소가 6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지금까지도 상륜부 모양에 대한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탑 꼭대기 부분인 상륜부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1902년 찍은 경천사탑 사진과 1960년대 임시 복원한 모습, 경천사탑을 본떠지었다고 전해지는 원각사터 삼층석탑의 상륜부 등 세 가지다.

가장 설득력 있는 모델은 원각사터 10층석탑의 상륜부다. 최상부 첨탑과 옥개석 사이에 팔작지붕 형태의 박공형 장식을 낳은 것인데, 원각사터 탑이 경천사터 탑을 본떴다는 것이 미술사학계의 통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어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902년 찍은 사진이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첨탑 장식과 10층 옥개석 사이의 장식 부분이 빠져 있어 탑 상륜부가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복발형 장식이 중간에 끼워져 있는 1960년대 임시 복원된 탑은 후대에 자의적으로 복원한 것이라는 약점이 있다.

"태국, 불교 · 이슬람 충돌없이 공존"

'동국대 두뇌한국21' 유세프 교수 초청 강연



"이슬람은 과연 호전적인 종교인가?"

동국대 두뇌한국(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이 19일 주최한 '이슬람과 불교의 관계(Islam-Buddhist Relations Today)' 주제의 강연회에서 이슬람 학자인 태국의 아메드 유세프 교수(어섬션 대학 종교철학과 · 사진)는 "한국의 불자들은 주로 메스 미디어를 통해 이슬람을 접하는데, CNN 등 언론에 의해서만 이슬람을 이해하다 보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적인 남방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이슬람은 두 번째로 중요한 종교지만 불교와 이슬람은 별다른 충돌없이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슬람은 중앙아시아에서 불교와 만나게 되고, 코란에도 '붓다'란 용어가 나온다"고 설명한 유세프 교수는 "모든 종교는 문화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을 지니기 때문에 다차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세프 교수는 "이슬람은 지역 분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6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6개의 이슬람은 '전혀 다른 이슬람'이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은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무슬림들"이라며 "종교와 국가주의가 합해진 이 지역 무슬림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이슬람 전체가 분쟁의 요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 자신이 이슬람 교도이기도 한 유세프 교수는 "코란에 나타난 무슬림은 고대의 유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교처럼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양명 · 지눌 사유기반 공통성
'열려있는 인간 가능성' 추구

최근 들어 불교학 연구에서 학제간 접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불교와 유학을 비교 연구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23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43차 학술발표회에서 '왕양명의 심즉리(心卽理)와 보조지눌의 즉심즉불(卽心卽佛)에 대한 일고찰'을 발표한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는 "유학자인 양명과 선사인 지눌은 둘 다 '마음의 철학'을 통해 끊임없이 '열려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명의 대표적 사상인 '심즉리(心卽理, 내 마음이 곧 이치)'와 보조 지눌의 '즉심즉불(卽心卽佛: 마음이 곧 부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을 인식과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한 이 씨는 "사유체계는 물론이고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인물은 하나의 중요한 공통적 사고기반을 갖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근대적 인간관을 제시하려 하였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인간의 윤리는 고정되거나 절대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인간 세계의 윤리와 제도, 법규까지도 열려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시대에 대해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미래에 대해서도 열린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高僧 다시보기

세조의 왕사 수미 스님과 삼화상

신(新)유학인 성리학을 국시로 했던 조선왕조의 3대 임금인 태종은 마지막 왕사였던 무학(無學)스님이 입적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불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태종에 이어 세종도 선교양종 36개만 남기고 사찰을 혁거하는 등 중국의 '3무 1종'의 폐불보다 더 심한 탄압이 진행됐고, 이때부터 조선불교는 이른바 '산중불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세종은 만년에 두 아들과 비의 죽음을 보고 숭불(崇佛)로 경도되었고, 세조 역시 부왕인 세종이 꽃 피운 유교 문화에 버금가는 불교문화를 이룩하게 된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불교문화나 불교가 명맥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왕실이나 비빈 뒤에는 수미(守眉)스님과 그의 도우인 신미(信眉)스님같은 고승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스님의 행적은 생몰년조차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을 정도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다소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나 비판적인 기사로 일관되어 있다. 속성이 최씨인 수미 스님은 전라도 영암(靈巖)으로, 13세에 월출산 도갑사에서 출가하여 선종관사에 올랐고 1457년(세조 3) 도갑사를 중수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미 스님은 옥구진(沃溝鎭)의 병마사였던 김훈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 역시 출가하였다. 속리산 법주사에

궁내 내원당 건립, 복천 · 상원사 중창
법화 · 반야심경 훈민정음으로 간행

출가한 스님은 유생이면서도 숭불에 앞장섰던 동생 김수온(金守溫)과 더불어 세종을 도와 궁궐안에 내원당을 짓게 하고 법회를 주관하였으며 그의 문도들과 복천사와 오대산 상원사를 중창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고려말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태고 보우스님과 나옹 혜근스님의 문도들이다. 수미 스님은 태고 스님의 법손이라 알려진 구곡 각운스님과 벽계 정심스님의 제자이며 스님의 도우(道友)인 신미 스님은 나옹 스님의 법손이었다. 세조는 수미 스님을 묘각왕사(妙覺王師)로 받들어 모시고 신미 스님을 혜각존자(慧覺尊者)로 불렀으며 신미 스님과 그의 두 제자 학열(學悅)스님과 학조(學祖)스님을 삼화상(三和尙)이라 하여 숭앙하였다.

이러한 세조의 숭불에 힘입어 두 스님은 출가직후 속리산 법주사에서 만나 함께 수행한 이래 당시 피폐화된 불교를 중흥시키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즉 1458년(세조 3)에 해인사의 〈대장경〉 50부를 인출하였으며 1461년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법화경〉 〈반야심경〉 〈영가집〉 등의 불전을 훈민정음으로 번역 간행하였다. 특히 중국 몽산(蒙山)스님의 법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등 조선조 불교가 억압받던 시기임에도 불교뿐만 아니라 민중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을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이렇듯 숭유억불시대 불교문화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세조의 숭불에 앞장섰던 왕사 수미 스님과 삼화상인 신미 스님과 그의 제자 학열, 학조 스님은 조선전기 불교계의 뚜렷한 고승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2002년도 부루나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기 2546년 3월 10일부터 수요일 , 목요일 강의 (저녁 7시 반 - 9시)

◆수요일 : 오전 10시 반은 불교입문반

불교를 올바로 배워서 미신과 우상에 빠지지 않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개강 특별 법문 : 3월 10일 (일요일)

도문 큰스님 초청 개강 축하법회

● 강좌안내
1. 불교 기초 의식
2. 불교 교리
3. 불교 경전 강의
4. 불교사
5. 포교방법론
6. 불교 문화
7. 불교 실천 및 참선수행

● 기 간 : 1년 과정
● 교 수 진 : 조계종 스님과 동국대학교 및 승가대 교수님
● 구비서류 : 입학지원서,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 학 식 : 3월 10일 11시, 본 대학 법당
● 특 전 : 조계종 포교사 응시 자격 출가 희망자 교육비 전액부담 전원 수계식

대한불교조계종 부루나포교원(법명사)
주지 선일 합장 032) 577-5108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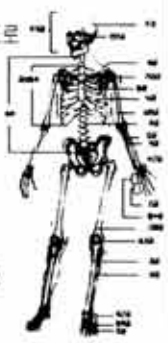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빨리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3일안에 깨닫는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열기 힘든 깨침을 단 3일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합니다.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하고자 할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 고도의 정신집중이 요할 때

영혼의 안식처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24시간 전화상담 받습니다.

춤바음수련 心田堂 대광사

선방주위환경

3만평 부지에 수련지 전용 현대식목조주택, 수목원, 산책로(호수), 약수 등산로

생식마을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前 자생한방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前 보건복지부 한방중앙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생식의 1석 6조
1. 체질개선
2. 건강증진
3. 피로회복
4. 완전한 다이어트
5. 완전식사
6. 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 신선한 야채섭취가 부족한 분들께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생식 완료 : 콩, 통곡물, 견과, 곡물, 씨앗류, 해조류, 밀, 당근, 무, 양파, 신선초, 케일, 돌미나리, 곰보, 홍삼,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현미,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참맥역자스 등 30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한 생각이 우주를 삼키고 토하게 할 수 있어

대전에 와서 여러분과 한자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佛)은 일체 만물만생 생명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그게 '불'입니다. 교(敎)는 만물만생이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말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교가 다르고, 기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 안에 모든 종교의 이름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안과 밖이 같이, 과거·현재·미래가 같이 꿰어서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끝간 데 없이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가 그렇게 광대무변해서, 우리가 둘이 아니게 죽고 사는 데도 말입니다.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끝간 데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라는 그 자체를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한도량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자기 주인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부처라고도 하고 이름은 많겠죠.

그런데 첫째, 우리 몸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 불교도 있고, 세상도 벌어져 있는 거지, 내가 없이 뭐가 벌어져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없이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 고깃덩어릴 믿지 말고 네 마음부터 발견하고 찾는다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으리라"하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나온 것이 이름해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화두를 또 붙입니까? 또 걸대기로 붙여 놓고 그게 끊어질까봐 애를 쓰고 그런다면 그렇게 어리석고 어리숙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나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무엇을 실행하십니까, 지금? 어떤 거를 실행하시느냐구요? 우리 몸 안에 헤아릴 수 없이, 세포 하나 하나에도 오장 육부에도 모든 생명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어휴 배가 고파서 내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물 한 컵을 마셔도 더불어 같이 마셨고, 가고 와도 가고 옴이 없이 같이 했고, 보고 듣고 말을 해도 같이 한 거지, 어째서 자기 혼자 한 것입니까? 자기 몸 안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심장 공장, 대장 공장, 소장 공장, 식도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뭐 이름을 헤아릴 수 없이 공장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공장에서만 파워가 일어나도 육신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공장을 다스리는 선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 뿌리이자 주인공이죠.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이끌고 가니까요. 수억 겁을 통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인간으로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했겠습니까? 봐도 본 게 없고, 해도 함이 없고, 더불어 같이 했으니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욕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일거수일투족이 나 혼자 한 게 없어. 그러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고, 혹성이라고 해도 되고, 행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돼.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각자 여러분이 다 부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까닭이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으니 여래의 집이라고 한 것도 그 까닭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뚱이 어느 한 군데서만 파워가 일어나도 견딜 수 있나요? 그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망가진다면 누가 고칩니까? 누가 와서 고쳐 주던가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이 고치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집을 삼고 살고 있어요. 이 몸은 그 생명들의 집합소이기도 합니다. 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날 내가 죽겠느니 내가 살겠느니, 내가 잘 벌었느니 내가 망했느니, 내가 줬느니 이러거든요, 모두가.

한생각이 우주를 삼킬 수도 있고, 토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생각이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입력이 잘 돼서 현실로 나오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팔자 운명이 붙어 돌아가는 거지 팔자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관습에 찌들려서 바다와 같은 생각을 조금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바다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이 세상에 나온 구녘이 바로 들어가는 구녘도 됩니다. 들고나는 구녘은 인간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비유해 볼까요? 허허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만약에 중생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칠 때에 어떻게 해야 배가 안 뒤집힐 수 있을까. 침착하게 앉아서 선장의 마음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이어주는 것이 배를 가는 데까지 잘 끌고 가겠습니까, 온통 일어서서 너나 할 것 없이 이것 찾고 저것 찾는다면 배가 안 뒤집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조복을 받아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모두 제각기 따로 보고 따로 한단 말입니다.

만 불이래도 일 불이요, 일 불도 공했다고 했거늘, 50%의 거죽 물질계로만 치닫고, 정신을 뺏기고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하면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으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은 어떻게 실천을 하시렵니까? 여러분한테 자기의 빗장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게끔 말로 어떻게 다하리까.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또 자기가 보고 듣고 들이고, 보고 듣고 되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장보살 따로 찾고 관세음보살 따로 찾아요.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님이 되고, 사위가 되고, 아들이 되는데, 남편이라고 모셔 놓고, 아들이라고 모셔 놓고, 사위라고 모셔 놓고, 아버지라고 모셔 놓고, 형님이라고 모셔 놓고, 아우라고 모셔 놓고, 상사라고 모셔 놓고 제각기 믿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부처님의 한생각이 아미타요, 한생각이 아촉이요, 한생각이 관세음이요, 지장이요, 칠성이요, 용신, 지신 아니 되는 게 없이 한생각으로 부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각각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니까 한 구녁이 아니라 수십 구녁이 되죠. 한 구녁이라야만이 들고나고 할 수 있고, 내가 진짜 물리가 터져서 참나가 홀연히 등장할 수 있는데도 이리 파고, 저리 파고 그러니 무슨 문 없는 문이 찾아집니까.

또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하겠군요.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탄생이 되려면, 내 영혼의 뿌리와, 즉 말하자면은 그 영혼과 더불어 영혼인, 영혼은 근본 뿌리가 아니에요, 수레와 같은 거죠. 영혼하고 겸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성·경계성·업보성·유전성·세균성이 바로 영혼과 더불어 부착이 돼서 정자 난자를 빌어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이 세상에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팔자는 원래 없는 것

그렇게 탄생을 하면은 오신통이라는, 요즈음 언어로 고친다면 남의 속을 심안으로 보는 거, 즉 타심통·천안통·천이통·신족통·숙명통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서 컴퓨터라고 해도 되는데, 그 컴퓨터에 과거에 입력이 돼서 현실에 차례차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하고 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뱀도 되고 또는 개구리도 되고, 소도 되고, 말도 되고, 개도 되고, 돼지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지금 현실에 그렇게 되고 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것이 현실에 차례로 나오는 것이지, 팔자 운명이라는 게 왜 거기 붙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타의에서 구하려고 기도를 한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왜 공덕이라고 했을까요. 모두가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 공용,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까닭입니다. 내 한 몸뚱이도 한마음으로 공생, 공체, 또는 공용으로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몸뚱이 하나가 돌아가는 것도. 그런데 이 하나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데 하나마저도 공해서 허공에 꽃이 핀 거와 같고, 열매가 무르익어서, 모두 제 나무에서 무르익으면 맛이 만 가지 천 가지, 제각기 맛이 나느니라 했습니다.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우리가 왜 먼 데서 찾습니까? 나로부터 찾아야죠. 사대 성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찾아라. 너를 알아야 딴 사람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법당에 가시면은 여러 부처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한마음 속에, 한도량, 한생명 속에 모든 거를 다 넣으세요. 문수도 거기, 보현도 거기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한 생각을 냈다 하면은 문수 법신이고, 한 몸을 움직거렸다 하면은 보현신, 바로 화신이란 말입니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마세요. 그럼 부처님이 아니게요? 부처님께서 한 생각으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시며, 보는 사이 없이 보시며, 또는 하는 사이 없이 하시며, 내 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을 전체 자생중생들이라고 그러죠. 이 자생중생에 모두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돌아가니까 조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몸 속에 생명들이 있는 것도 한마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몸 속의 모든 생명들을 한마음으로 쫓아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것을 내가 내 주먹으로 쥐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삼천 년 전후가 어떻게 오늘이 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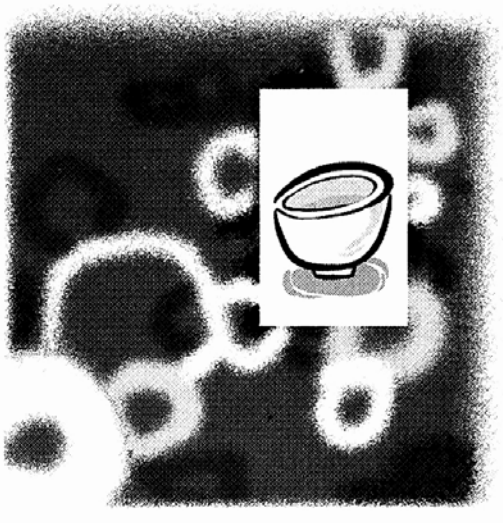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의 것 바라지 말고 스스로 행복 만드세요

영원한 오늘, 자유권. 그러고 도의 길은, 돈오는 이 세상에 탄생함과 같고, 점수는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모두가. 이름이 굉장해서 굉장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요만한 거래도 실천하는 게 굉장한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도 마음이 안에 있는 중생들과 한마음이 된다면, 바로 그 한마음으로서 분자로 화할 수도 있고, 입자로 화할 수도 있고, 입자들이 나가서 조절도 할 수 있고, 모두 응신이 될 수도 있고, 천백억화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이 나면 한생각에 물이 하늘에서 쫙쫙 쏟아져서 다 끌 수도 있거니와 바람으로 인해서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 부처이며 생각냈다 하면 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반드시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제 뿌리는 제 싹을 푸르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수분과 철분, 이런 거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내려보내고,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님을 위에다 턱 얹혀 놓고 그냥 죽자살자 매달려서 빌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달라고 빌지만 복은 한 바가지 얻을지언정 절대로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이란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건 선행을 했건 우주천하 일체 만물만생이 직결이 돼 있으니까 다 알게 되죠. 그러고 세상도 전부 수레처럼 가설이 돼 있는데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니까 아는 대로에 그대로 입력이 되는 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팔자가 이러냐"하는 겁니다. 그러나 팔자도 생각으로 만들어서 받는 거지, 누가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먹고 똥 누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죽는 거는 누가 대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마음까지도 내 마음으로, 이 물 한 방울과 저 물 한 방울을 한 컵에다가 넣는다면 한 컵이지 두 컵입니까? 마음은 체가 없는데. 수많은 빗방울이 바닷물로 들어갔어도 빗방울이라고 드러납디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모든 거는 자기 주인공 뿌리에다 맡기고…. 그게 바로 자아부처의 이름이니까요. 자아부처가 될 때까지 주인공에 모든 거를 거기다 맡기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파도 하나하나 붙들고 다니지 마시고, 바람을 재우면은 다 가라앉는 거를….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유스럽게 살기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구 관세음보살, 아이구 지장보살, 좋은 데로 가게 해주시오, 누가 좋은 데로 가게 해 줍니까? 자기가 좋은 데로 가게 해야지. 행복을 누가 갖다 주나요? 내가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공짜나 남의 것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해서 내가 행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어떡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물을 지금 먹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내가 먹은 겁니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깐 이걸 훔쳐먹었다고 합시다. 내가 훔쳐먹은 겁니까? 훔쳐먹었어도 더불어 같이 먹었기 때문에 내놓을 건덕지가 없어요. 묘하게 인간 자체에 모두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라고 웃돈을 갖다줘도 안 하지마는, 그러니 물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먹고, 이런 도리를 아는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질도 안 해요, 남한테 언짢은 일도 안 하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대(大)를 위해서 소(小)를 죽일 때, 더불어 같이 했으니까, 즉 말하자면 나의 몸 속에 있는 것만 같이하는 게 아닙니다, 공덕이란. 과거·현재·미래 전체가 한데 합쳐서 돌아온 오늘로, 그래서 미래부터 부르죠. 현재부터 부르는 게 아니구요. 과거·미래·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입니다.

네 마음부터 발견하라

여기 걸어오실 때에 걸어온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시지는 않으셨죠? 걸어오는 사이 없이 왔죠? 마음을 그렇게 써야 할 텐데. 그러고 누가 집어가든 말든 그런 생각도 없는데, 요놈의 금 덩어리나 돈이나 통장은 장 속에다가 꼭 넣고 잠궈야만 되죠. 그런데 장 속에다 넣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 속에다가 온 천하를 다 넣는다 하더라도 함이 없이 살아라 이거예요, 함이 없이! 모든 게 내 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물 한 컵 마신 것도 나 혼자 마

☞ 18면으로 계속

팔자·운명 생각탓에 생기는 것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몸안 중생과 한마음 되면 응신·화신

☞ 17면에서 계속

신 게 아니니까 내 것만이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번 것만은 아니잖아요, 더불어 같이 벌었으니까. 한마음 거지 내겁니까?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입니다. 나는 심부름꾼밖에 안 되니까 심부름만 부지런히 하면 될 거다 하고 사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돈이 허탈히 나가지도 않을텐데.

마음의 문 여세요

인간에게도 다스리는 선장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을 다스리면서 나가는 선장이 있고, 중심에서만이 다스릴 수 있지 남이 다스려 주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서만이 다스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딴사람이 절대 다스려 줄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거 50%, 보이는 거 50% 반반입니다. 허공에도 생명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난 그래서 그래요. 한 명이 와서 묻더라도 이 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많이 안 와도 법당이 꽉 차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 마음들이 헤아릴 수 없이 있는데, 벌레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눈들을 보세요. 허허허. 눈들을 보면 죄 어질고 착하고 아주 똘똘하고 영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천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니 어쩝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마음을 훌랑 벗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벗고 못 벗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제삼자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길게 말을 했나요? 말로는 체계 있게 못해서 죄송하지만 한마디를 알아들더라도 실천을 하세요. 내가 없는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나부터 믿고 찾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법당의 불상이 진짜 부처인 걸 알게 됩니다. 옛날에 6·25가 나니깐 말입니다. 그렇게 모셔놓고 빌고 털고 씻고 닦고 하던 부처님들을 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 왜버리고 떠납니까? 가족 속에 다 넣어 가지고 다녔으면 그렇게 갈 때도 버리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살면서 개선해야 할거는 개선하고, 팔만대장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그대로, 그 내면의 뜻을 알고 글자를 읽어야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읽어서 말로는 잘한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거지.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한데 떨어지지 않아야, 안팎이 꿰진 말이래야 남들한테 이익이 가고 공덕을 나누어 줄 수 있어. 안팎을 꿰지 못한 말은 한데 그냥 떨어지게 되니 모두 상대방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 그게 공덕이라는 거지.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모두가 가설이 돼서, 사과나무도 서로 사랑을 하구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어찌, 사랑이 있기 이전에 자비가 있다고요. 사랑은 갚싸지만 자비는 세세생생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문학자도 되고, 천체물리학자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의학자도 되고 아니 되시는 게 없어.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조복을 받아서 그 의식을 다 분자로, 아니 분자가 돼서 입자로 화해서 모든 게 다 응신으로 화해서 원을 세운 사람들한테 응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야 돼지를 건지지. 사람으로 나타나면 돼지가 저항력을 느껴서 건질 수가 없거든. 돼지로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돼지를 건질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사람을 건질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응? 천차만별의 그 생명체들을 건지는데 어떤 거를 건질 때에 내가 건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어떠한 걸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부처지, 어떠한 거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부처가 아니에요.

모두 그런 도리를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싹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다스리며, 또는 푸르렀을 땐 어떻게 다스리며, 꽃몽오리가 졌을 때는 어떻게 다스리며, 꽃이 붉게 익었을 때는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도리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말을 하죠. 첫 번 째도 죽고, 두 번 째도 죽고, 세 번 째도 죽어라. 첫째는 내가 탄생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둘째는 탄생을 했으나 둘 아닌 도리를 몰라서 또 죽어야 하고, 셋째는 둘 아니게 나툴 줄 모르니까 또 죽어야 하고…. 구경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안과 밖을 뀌어서 나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말을 꼭 해야만 에너지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일체 만물 만생 우주천하가 다 가설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만 켤 줄 알면 되거든요. 그러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꼭 누를 때를 눌러야 되는 거지, 아무 데나 눌러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관해서 누르는 거를 배우



그림 · 최주현

나 없는데 누가 있습니까 나부터 믿고 찾으세요

셔서 그대로 하신다면, 삼천 년 전의 부처님이.지금 나타나서 "아이고 착해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어찌 그렇게 같으냐…" 하시며 궁둥이를 두드려 줄 겁니다, 아마.

공부 대신할 수 없어요

▲질문자1: 저는 금산여중에서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스님께 가르침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나누어주신 팜플렛에 보면은 제일 첫 장 뒤에 스님 말씀이 기록돼 있거든요. "강이 없는데 배가 있으며, 배가 없는데 건널 게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강도 없고 배도 없고 건널 것도 없는데 깨친 사람은 무엇이고 미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또 부처님께서 강을 건너고 계심은 무슨 뜻입니까?

▲스님: 강을 건널 게 없기 때문에 건너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얼른 쉽게 선생님이 지금 집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어떠세요? 집에 가는 길에 강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갔다 오실 수 있겠죠? 어디에 뭐가 놓이고 어디에 뭐가 놓여 있는 거 까지도 다 아시죠? 그런 것과 같아서, 부처님의 마음은 그와 같아서 여러분도 그 도리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억겁을 살아오면서 누적이 된 습성을 녹이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갑니다, 의식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또 불바퀴를 넘어서려 해도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갑니다. 내 업식이 천차만별로 그냥 모여 있는 데를 건너가야 될 텐데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 없어 못 건너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없는데 강이 어디 있으며, 강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겠느냐. 배가 없는데 건너갈 거는 어디 있겠느냐 한 거죠. 우리가 그 뜻을 나쁘다 좋다, 틀렸다 옳다 한다면 도의 길은 무색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경전을 많이 읽고 안 읽고, 상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대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질문자2: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법 가운데서 이미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음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해 가야 할지 수행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지금 구체적으로 말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살아 있으니깐 나왔겠죠. 그 어떠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들이는 것도, 내는 것도, 생각을 한 것도, 말을 한 것도 바로 그 자체에서 한 겁니다. '자'는 몸으로 비유할 수 있고, '신'은 자기 불성을 말해도 됩니다. 자신 속에서 모든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바로 뿌리, 즉 말하자면 한마음 뿌리, 거기에다가 모든 거를 물어보세요. 거기서만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자기가 있다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거기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을 읽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안팎을 꿰어서 알아야 경을 볼 때에 한번만 제껴 봐도 그 경에 줄줄이 다 '이건 무슨 말씀이고 이건 무슨 말씀이로구나' 하고 알게 돼요. 첫머리 중간 끄트머리만 봐도 알게 되고, 무불통지한 사람은 벌써 책 들고 첫 머리만 떡 봐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백지를 볼 줄 알아야지, 백지를 못 본다면 어떻게 삼라만상의 모두를 볼 줄 알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기만 해도, 천안통이 도가 아니니라, 천이통도 도가 아니니라, 숙명통도 도가 아니니라, 타심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통 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리는 거지, 어찌 오신통 안에서 오신통을 굴릴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을 굴릴 수 있고 자유권을 얻을 수 있고, 누진에서 책정해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대로 작용을 하고 중용을 하게끔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쥘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지마는 현현하게 여러분이 계신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 대신 죽어줄 테니 믿습니까? 아픈 거를 대신 아파 줄 테니 믿습니까? 똥을 대신 눠 주니 믿습니까? 대신 먹어주니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지금?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만이 공덕이 되며, 가정이 화목하며, 위로는 조상이, 한 자손이 이 공부를 하면은 위 조상들 12대 종손을 건진다고 했고, 밑으로도 자녀들을 모두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돌에 올려 세워 놔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조건이죠,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위로는 조상들을 건지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자생

자비는 영원한 것

중생들을 조복을 받거나, 또 아래로 낳아 논 자식들을 영원토록 불생불멸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게 건진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저 요만큼 가지고 가서, 내가 요거를 가지고 가서 큰 걸 좀 얻어야지 하구선 부처님 앞에 요만큼 갖다 놓고는 그냥 뭐 천 가지 만 가지 해 달라고 이것저것 줏어 섬긴단 말입니다, 속으로. 하하하. 그게 그렇게 섬겨서 될 일이 아니죠. 단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짬지게 그냥, 맑은 물로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능력을 길러야죠. 안 그럽니까?

▲사회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한마음선원 대전지원이나 안양본원으로 직접 찾아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5년 4월 13일 대전대불련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뜻지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출세를 하세요!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승려 및 포교사 2기 학인 모집

Ⅰ. 승려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10명) 1년 수료과정
자 격 – 나이 제한 없음, 중졸이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Ⅱ. 포교사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10명) 3개월, 6개월 과정
자 격 – 연령 학력 불문, 포교원, 철학원 환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 교육방법 : 우리말 경전 및 의식으로 단기간 내에 승려 및 포교사 자격 취득
● 특 전 : 1. 본 대학 수료 후 종단내 사찰에서 100% 수용
2. 입학금 수업료 일체 무료. 단, 의식비 월 10만원
● 문의전화 : 033)671-7751~3 팩스 : 033)671-7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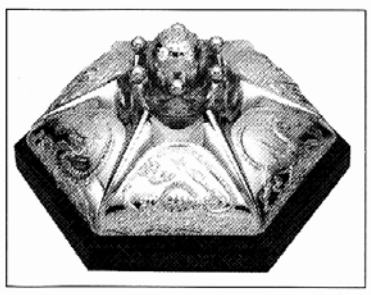
※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한국 근본불교 조계종 종립 근본불교 승가대학

좋은 명당을 만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흑 명당육氣방은
좋은 명당터가 되도록 합니다.
절터, 집터, 공장터, 상가(점포)터에
좋은 명당이 되도록 하십시오.
地氣와 生氣가 응집되지 않는 터는 악터나 사기터 이므로 액운과 우환이 따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조상의 묘지터를 좋은 명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터란 氣가 없으면 명(命)을 다한 것이므로 잘 되기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 명당육氣방은 가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사찰 암자 철학관 풍수학 氣학문을 하시는 곳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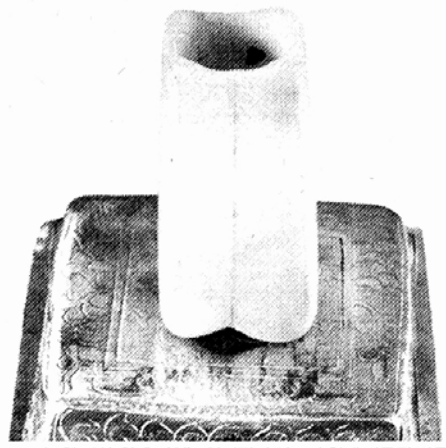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어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상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요.

※ 좋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미국 일본 호주 등등에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육氣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3천 카우스 25만원 홍혈장전용 30만원

중국 법문사 佛指사리 첫 해외전시



◇1987년 5월 7일(4월 초파일) 3천여점의 성보와 함께 발굴된 법문사 물지사리. 중국 강택민 주석이 이 불지사리 친견이후 주석직에 올랐다는 소문이 알려질 정도로 '친견하면 한가지 소원은 성취된다'는 무수한 영험담을 갖고 있다.

대만으로 移運 37일간 일반공개
본사 · 불광산사 참배 순례행사

중국에서 '세계 9대 기적' 이자 '중국 최고의 국보'로 불리는 섬서성(陝西省) 부풍현(扶風縣) 법문사(法門寺, 방장 정일)의 석가모니 불지(佛指, 부처님 손가락)사리 4매(枚)가 대만 불교계의 노력으로 2월 23일 대만으로 이운(移運)돼, 37일간 불자 및 일반인들에 공개됐다. 또한 법문사의 지궁(地宮)보물 300여점도 오는 8월 대만에서 전시된다.

'불지사리'를 모셔오기 위해 대만 불교계는 성운대사를 주임으로 오명(悟明), 성엄(聖嚴), 유각(惟覺), 증엄(證嚴) 스님을 위원으로 하는 불지사리봉대위원회(恭迎佛指舍利委員會)를 조직, 성운대사가 지난해 12월 30일 홍콩에서 중국불교협회 도슬인 부회장과 협약식을 가짐으로써 '불지사리'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대륙을 떠나게 되었다.

이번에 불지사리를 대만으로 모셔오면서 주최측은 순수한 종교교류임을 강조했지만, 중국대륙에서는 이를 대우 중시해 중국국가종교국 엽소문국장 및 홍콩마카오대만사무실 곽위주임,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교류국 왕명감처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해 홍콩, 대만, 중국 종교계 대표들의 입회 하에 협약식을 진행할 정도로 신중함을 보였다.

성운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불사는 양측 종교문화의 민간교류로 '중국-대만 불교는 본래 한뿌리'라는 정신을 드러내고, 불교계의 우의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었다"고 말했다.

불지사리의 이운에 중국은 24명의 호법단을 수행파견하고, 대만에서는 120명의 호법금강을 비롯해 보안요원과 대만 경찰청이 안전문제에 적극 협조했다. 2월 23일 대만은 두 대의 비행기에 300명의 수행인을 중국으로 파견하고, 중국도 100여명이 호송해 당일 법문사에서 이운법회를 거행한 후 홍콩을 거쳐 대만으로 모셔졌다. 불지사리는 대만대학 체육관에서 법회를 거행하고 대중(台中) 중대선사(中台禪寺)와 고웅 불광산 등에서 시민들이 친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불광산사(주지 의은스님)와 본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불지사리 참배순례를 실시한다. 4박5일간 실시되는 이번 참배에는 불광산사 참배 및 성운대사 친견법회를 비롯 국립고궁박물관, 극락사, 용산사, 대리석 협곡 태로각(太魯閣) 등 대만 성지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02)2276-0993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서울대공원 봄맞이 나비교실

서울대공원은 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3~6학년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3월3일까지 '봄맞이 나비교실'을 운영한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비와 곤충의 생태를 동영상과 인터넷으로 관찰하고, 장구애비를 비롯한 곤충을 채집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하루 60명씩 모두 600명의 참가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동물원 입장료(어른 1천500원, 청소년 1천200원), 교재비(1천원). 02)500-7871~2

종로서 다양한 3 · 1절 행사

3 · 1절 행사가 종로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오전 11시 정각에는 3.1만세 재현과 국악 한마당이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생활 단신

우리나라 유일의 동춘곡예단(단장 박세환)의 곡예(금강제화 앞), 풍물패 창극원 단원들의 비나리(종로타워 앞), 내 손으로 인절미 만들기(낙원동 입구), 태극기 그려보기(종로2가 교차로), 소원 북치기(보신각 앞)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로1가 보신각 교차로부터 종로3가 교차로까지 800m 가량의 도로 교통이 통제된다.

북한산 금강염주 첫 시판

북한의 세계적인 명산품인 금강염주가 국내 처음으로 판매된다. 금강닥터코리아(대표 조인봉)는 평안남도 온천군 명산에 소량 매장된 희귀한 광석으로 만들어진 금강염주를 수입해 보급에 나섰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북한산 금강염주.

이 광석은 상온에서 기(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8주와 단주 한 세트의 가격은 19만5천원이다. 02)702-1225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짧은 출가로 시작된 인연 (下)



그림 · 이준석

송광사의 하루 더없는 추억거리
"건강한 불자로 거듭 나겠다" 발원

송광사를 떠나온 지 몇 달이 지났건만 일하는 내내 옆에서 그릇을 옮기며, 음식을 나르며, 대중가요처럼 염불을 흥얼거리던 스님들의 환한 웃음이 인상 깊이 남는다. 공양간 일을 돕는 내내 구석에 앉아 도반과 함께 열심히 염불을 외고 가르쳐 주시던 스님. 고추를 썰고 있으려는데 "눈이 시지?"하시며 사탕을 나눠 주시던 스님, 두부를 뒤집는데 젤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방긋 웃으시던 보살님. "벌써 가시나요"하는 스님의 말씀에 난 내년 여름휴가엔 꼭 송광사 수련회에 참석하겠노라고 말씀 드렸더니, "내년이면 우린 공부하러 떠나고 다른 행자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하셨다.

돌아오는 길은 내내 아쉽기만 했다. 광주터미널에 도착해보니 배차시간이 틀려 1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도와드리고 올 것을…' 난 남은 시간을 이용해 터미널 이곳저곳을 구경했고, 저만치에 '헌혈의 집'이 보였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헌혈을 해보자 마음먹었지만 겁이 많아 굳은 결심을 하지 못했었는데,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다. 헌혈의 집 안에는 군인들과 대학생들이 헌혈하고 있었고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나도 헌혈을 할 수 있었다. 처음 간호장교가 팔에 바늘을 꽂을 때만 움찔했을 뿐 어렵고 힘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수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곳이 따듯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헌혈을 마치고 나니 간호사는 수고했다는 인사와 함께 헌혈증서를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값진 일에 쓰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강릉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되었다. 송광사에 머무는 동안 도량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돌아와 아쉬움이 남지만 많이 배우고 왔고 더 도와드리고 오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혹 스님들 공부에 방해될까봐 법명 여쭙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는 아직 어린 24살의 부족함 많은 초심 불자이다. 사찰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며 불교 신행이 생활화 된 분들이다. 그에 반해 나는 올 여름 인터넷을 통해 '월정사 하계수련회'에서 3박 4일의 짧은 출가를 체험했던 것이 고작이며, 이제 막 불교를 접하기 시작한 초심자에 불과하다. 때론 게으르고, 어긋난 행동으로 잘못을 뉘우칠 때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건강한 불자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짧지만 값진 인연으로 시작된 송광사에서의 하루는 내게 더없는 추억거리가 되었다. 자비를 베풀어주신 행자 스님들의 정성스런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공부하러 길 떠나시는 행자스님들 정진하시어 원만성취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끝)

이지숙(강릉시 옥천동)

송암한방병원
Korea Medical Center

만병의 원인은 '탐貪·진瞋·치癡'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

한의학적 검사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기능상태를 파악하고, 신체의 구조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서양의학적 검사, 생활상태를 파악하는 설문검사를 통해 환자에 맞춘 체계적인 질병관리를 도모합니다.

전인치료(全人治療)

■ 의료진소개

오덕수 원장

오덕수 원장
송암오덕수한의원 - 1진료실 담당
탄허스님을 은사로 7년 출가생활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외래교수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자비복지원 이사
재경 강원 삼척 향우회 부회장
● 담당클리닉 : 안과질환/보양클리닉

김승수 원장
송암오덕수한의원 - 2진료실 담당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졸업
한의학박사
대한한방비만학회 정회원
대한한방내과학회 정회원
한방 알러지 · 면역학회 정회원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정회원
대한 한의외치학회 이사
● 담당클리닉 : 안과 질환/
비만클리닉/
알러지클리닉/
수험생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오기남 원장
송암오덕수한의원 - 3진료실 담당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졸업
한의학박사
대한침구학회 정회원
● 담당클리닉 : 관절척추 · 골다공증 클리닉/
여성클리닉

이동수 원장
송암재활의학과의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수련
재활의학과 전문의 취득
● 담당클리닉 : 관절척추 · 골다공증 클리닉

예방 - 치료 - 재활까지 Total Card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대안, 송암 수중체조교실
Aqua Exercise Center

▶ 국내최고의 수질관리시스템
첨단 인공 해수풀 장치, overflow 및 복합필터에 의한 여과장치
▶ 관절질환자를 위한 국내 최초의 수중운동시설
- 수온 30℃ 내외, 가로 15m × 세로 10m, 수심 1.2m
- 관절의 가동성 증대와 근력 증강에 따른 통증 감소를 위한 대형한 수중운동기구 시설
▶ 반신욕 SPA POOL
- 36℃ 이상의 따뜻한 물에서 근육이완 현상을 이용, 자세 변형에서 오는 질환과 통증 예방
▶ 맞춤관리 프로그램
수중운동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수중운동 처방
▶ 한방수중체조(수중태극권) 프로그램
한방이론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

휘트니스 클럽 FitnessClub oh
최첨단 시설을 갖춘 운동시설..
휘트니스클럽 "오"

■ 병원소개
송암한방병원은 연면적 1,700평에 지하 4층, 지상 8층의 대규모 시설로서, 한양방병원, 부설 한방수중체조교실, 종합스포츠센터(Fitness club oh)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여년 동안의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한 · 양방협진체제와, 종합스포츠센타(Fitness club oh) 및 부설 한방수중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치료와 운동이 결합된 이상적인 질병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문병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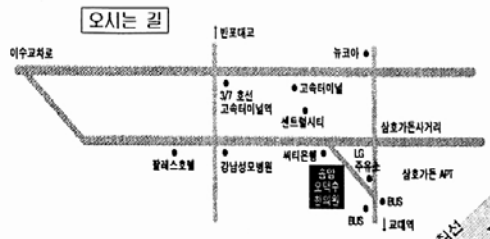
■ 연혁소개
1965년 개원
- 강원도 삼척시 '대한의원' 후에 '대한한의원'으로 개명
1985년 이전개원
- 서초구 반포본동 '오덕수 한의원'
2001년 8월 송암오덕수한의원, 송암재활의학과의원개원
- 연면적 1,700평(지하4층, 지상8층)의 한양방병원과 종합스포츠센타 연계 운영
2001년 10월 부설 송암수중체조교실 개설

■ 병원내부 구조
총 8층 종합병원... 운동과 치료 · 관리를 한자리서

8F 헬스장
7F 헬스장
6F 탈의실, 사무나
5F 수중체조교실
4F 약제실
3F 입원실
2F 한의원(관절척추·골다공증·여성클리닉),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1F 한의원(비만·안과·수험생·알러지·보양클리닉), 검진실, 방사선실
B1F 주사장
B2F 수영장전망대, 탈의실
B3F 수영장, 탈의실
B4F 골프장

■ 진료시간
월 ~ 금 : 09:30 - 18:30 토 요 일 : 09:30 - 16:30
점심시간 : 12:30 - 14: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 입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5-2
TEL : 02-530-8200
FAX : 02-592-8244
www.songamclinic.co.kr

절취선
수중체조교실 1회 무료이용권 (남,여)
성명 :
전화 :
(유효기한 : 2002.3.31)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㉛

• 경단단인명 인용동작 •







무릎 약간 구부린 상태서

경단단인명 수인법 자세

1.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경단단인명 수인법을 취한다.
2. 한손을 가슴 앞에 두고 '이' 소리를 내면서 단전을 수축하여 서서히 머리위로 올린다.
3. '뭐' 하고 소리를 내며 단전을 이완하면서 팔을 어깨 양옆으로 서서히 내린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4.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들고, 손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온다.
5. 손을 위로 올리면서 오른다리를 서서히 편다.
6. 오른다리를 서서히 내려서 바닥에 발뒤꿈치가 닿으면 오른무릎을 구부리고 앞으로 중심을 이동하며 손을 가슴 앞으로 내린다.
7. 다시 손을 어깨 양옆으로 펴면서 왼쪽다리를 뒤로 펴며 중심을 이동시킨다.
8. 오른다리를 구부려서 왼쪽 무릎에 붙이고 손은 가슴 앞에 둔다. 다리를 서서히 내리고 손을 단전에 둔다.

특별 성지순례 중국

혜능 스님 향훈 깃든 광효사 등

반야여행사 4박5일 순례



◇중국 광동 '남화선사' 전경.

한국불교는 달마에서 비롯돼 혜능이서 완성된 중국 선불교의 맥을 잇고 있다.

특히 혜능스님(638~713)의 남종선은 우리나라로 건너와 신라 말부터 고려초까지 번창했던 9산선문의 개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혜능스님의 인연 행장을 찾아가는 순례 프로그램은 불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듯하다.

반야여행사는 4박5일 일정으로 혜능스님의 향훈이 깃들어져 있는 '광효사' '남화선사' '운문사' '국은사' 등을 돌아보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광주에 있는 광효사에 가면 혜능을 모신 육조전과 혜능이 출가할 때 깎은 머리털을 묻고 그 위에 세운 발탑(髮塔)을 만날 수 있다.

또 혜능선사의 생가 자리에 건립된 국은사에 가서 짧은 시간이나마 참선의 기회를 가져본다면 중국 선불교가 뿌리내린 현장에서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외에도 순례 넷째날에는 남해로 이동해 중국 최대의 관음상(61.9m)이 있는 '남해 관음사'와 '사방죽원'도 참배한다.

순례 중간에는 고단한 순례자의 피로를 말끔히 가셔 줄 수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선목원 온천욕도 준비돼 있다. 경비는 75만원. (02)730-0020

차향기 도는 山寺, 예불후 禪茶 한잔…

'끽다거(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고즈넉한 산사에 가면 '선다일미(禪茶一味)'의 멋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절 찾는 걸음에도 차향이 어려 발딛는 자리마다 향기가 감돌기 때문이다. 어찌 그냥 지나칠손가. 산사도 찾아 참배도 하고 수려한 풍광 속에 자리한 찻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담스럽게 다담도 나눌 수 있는 산사 찻집 여행을 떠나보자.



◇사찰 참배후 경내에 있는 찻집에서 음미하는 차 한잔은 심신의 번뇌를 씻겨주는 감로수다. 사진은 양수리 수종사의 찻집 '삼정헌' 모습.(사진제공= 김우영 불교사진연합회장)

가족들과 오순도순 茶談… 절 찻집을 찾아

산중다원 사찰 찻집의 원조격… 대추·송차 등 인기
삼정헌 양수리 절경·작설차 함께 즐길 수 있어
동다실 반야·녹아차 유명… 겨울엔 수정과 별미

⊛ 직지사의 '산중다원'

94년 당시 부주지로 있던 법등스님(도리사 주지)이 만든 '산중다원'은 사찰내에 있는 찻집의 원조격이다. 가장 많이 찾는 차는 대추탕. 대추를 커다란 냄비에 6시간 동안 달인다음 잠시 식혔다가 다시 4시간 끓인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은근한 불에다 2시간 정도를 정성스럽게 마지막으로 달인다. 알려줄 수 없다던 주인에게 끈질기게 묻자 살짝 귀띔해준 비법이다. 직지사 대추탕은 보약과 같은 느낌. 이외에도 솔잎을 발효시킨 '송차'와 '명자차'도 인기가 좋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명자차'는 가을에 능금나무과에 속하는 명자 열매로 만든다. '명자차'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의 함유량이 많다. (054)436-6014

⊛ 쌍계사의 '쌍계다원'

녹차의 원산지답게 지리산 하동 녹차가 대표 메뉴다. '쌍계다원'은 야생녹차만을 쓴다.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에 들르면 싱싱한 햇차를 맛볼 수 있다. 요즘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한잔만 마셔도 몸의 한기가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약초차'를 많이 찾는다. 이 차는 대추를 비롯해 황기, 숙지황 등 10여 가지의 약초로 만든다. 지리산 일대에서 나는 생솔잎을 따다가 갈아 만드는 솔잎차도 빼놓을 수 없다. (055)884-1373

⊛ 수종사의 '삼정헌'

운길산 아래 자리잡은 수종사의 찻집 '삼정헌'에 앉아 있으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어우러져 흐르는 양수리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앉아만 있어도 세속에 찌든 속절없는 번뇌가 금방 싹 씻길듯 하다. '삼정헌'에서는 작설차만 나온다. 찻집을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차와 양수리의 경치를 실컷 즐길 수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연 다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문을 열고 사시예불 시간인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는 잠시 문을 닫는다. 이후 오후 5시까지 마음껏 차를 마실 수 있다. (031)576-8411

⊛ 낙산사의 '다례원'

다례원에 들어서면 시원한 동해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풍경 때문인지 지난해 오픈했지만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례원'에서는 찻집의 이름을 딴 '다례원차'가 유명하다. 감귤, 대추, 황기 등 전통적인 한약재 20여가지를 18시간에 걸쳐 끓여 만들어 피로회복에 특효가 있다는 입소문이 자자하다. 이외에도 쌍화차와 대추차 등 10여개의 전통차가 마련돼 있다. (033)671-5632

⊛ 내소사의 '화례원'

밖에서 얼핏 보면 테이블이 두개 밖에 없는 작은 사랑방같아 다소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찻집에서 차 한잔을 나누다 보면 과일과 과자까지도 아낌없이 내다주는 주인 도진보살의 넉넉한 인심에 이내 단골손님이 되고 만다. 특히 이 찻집의 '솔바람차'는 지장암 스님들이 공개할 수 없는 특유의 비법으로 어린 솔싹을 손질해 설탕을 넣고 5개월가량 땅속에 묻은 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맛이 일품이다. 한 겨울에도 얼음을 동동 띄워 내놓는 '솔바람 차'를 한잔 마시고 나면 온몸에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 몸과 마음이 정화될 것만 같다. 4월에 따다가 항아리에 5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내놓는 매실차의 향기도 순례자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부족하다고 말하면 주인이 얼마든지 잔을 채워준다. (063)583-8831

⊛ 대흥사의 '동다실'

일지스님이 동다송을 만들고 '다선일미'를 주창한 일지암이 근처에 있어서인지 녹차를 많이 찾는다. 일지암 주지 일연스님이 직접 재배한 반야차와 대흥사 스님들이 만든 녹아차가 유명하다. 솔잎에 꿀에다 재워 1년이상 발효시킨 솔잎차와 대추를 잘게 짤라 감초를 넣어 14시간 이상 끓여 만든 대추차도 이 찻집에서 자신있게 권하는 차들이다. 곶감을 띄워 겨울에 먹는 시원한 수정과는 별미다. (061)533-6890

⊛ 법흥사의 '다향원'

'다향원'에 가면 반드시 '당귀차'를 한번 마셔보자. 법흥사 뒤의 사자산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 당귀를 12시간정도 끓여만든 이 차는 특히 몸이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에게 몸을 보호해 주는 강장제 역할을 해 준다. 또 여름철에는 사자산에서 나는 솔잎을 따다가 즉석에서 믹서에 갈아 먹는 솔잎즙도 판매한다. 먹기도 전에 찻잔 밖에 은은하게 퍼지는 솔잎향에 먼저 취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고 주인은 귀띔한다. (033)374-9171

⊛ 실상사의 '뜰앞의 잣나무'

지금 맛이 한창 들은 모과차 한 모금을 입에 넣으면 피로가 금방 풀릴 것 같다. 모과차는 10월에 모과를 따서 녹인 설탕에 재워 겨우내 독에 묻어 두었다가, 먹을때 다시 생강을 넣고 끓여 만든다. 솔잎을 6개월 정도 발효시킨 솔차와 매실차도 있다. (063)636-3031

⊛ 화암사의 '란야원'

'란야원'이란 범어로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란 뜻이다. 사찰 요사채를 그대로 살린 이 찻집에 들어서면 우선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 곳에서는 인삼녹차와 진주왕차, 자소숙소차, 송화밀수 등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차도 판다. (033)633-9998

⊛ 전등사의 '죽림다원'

'죽림다원'에 들어가면 지리산 차잎을 따다가 미리 끓여진 홍삼과 인삼탕에 넣어 하루정도 발효시켜 만든 홍삼녹차와 인삼녹차를 시켜보자. 녹차에 인삼과 홍삼의 향이 섞여 독특한 미각을 즐길 수 있다. (032)937-7791

⊛ 봉영사의 '다원'

약수로 유명한 봉영사 물로 끓여내는 유자차와 매실차, 쌍화차, 오미자차를 사이에 두고 연인, 가족끼리 묻어 두었던 이야기라도 나누다 보면 친목과 우의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031)572-0330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기도영험도량안내
- 위치 : 김천 톨게이트에서 20분거리
- 2억 2천(주인직접)
- 산세수려, 교통원활

017)513-489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경남은행 본점 앞 2층 건물 중 2층 청동불 3佛이 모셔져 있습니다.
- 건평 : 30평 법당1 거실1 부엌겸방1 방2개 창고1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055)251-2047
011)9646-025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부처님 세분
- 요사채 : 신축 건물 방 5개 (거실大), 심야전기보일러

054)976-0900

사찰안내
(사정상급안내)
- 대지 86평 건평 170평 3층 건물
- 지하 48평 봉제공장 1층 상가 - 방룸 2개 2층 요사채 48평 3층 법당 26평
- 전세 5,000만원 월 75만원 은행융자 9,500만원
- 매매가격 2억 3천만원 (융자, 전세포함)
- 포교원 최적지 비구니스님 환영

019)682-7475
042)583-9839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청송읍 교리 주왕산 자락
- 대지 : 245평
- 건물 : 목조, 기와 5칸 접집
- 부속건물 : 2동
- 현재 비구니 스님 계시고
- 사찰명 : 법등암
- 가액 : 3천 오백만원

011)9576-8019

영가천도

여러번 영가천도에 실패하신 불자님,
"확실한 만족을 드립니다"

정토사에서는 아미타, 관음, 지장, 삼존불을 봉안하고 불사를 위한 아미타 1000일 기도 중입니다.

1000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백병산 정토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031)771-0227
016)999111-61

봉 구담사 양력 3월 5일 행
태아 <낙태, 유산> 영아 영가 49일 천도재
증명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심원사 도후 큰스님

◆ 태아 영가 (수자 영가) ◆



태아 영가는 : 일본의 수자령 이라고 한다 水子는 지장화찬의 역할이 컸다.
水子가 죽으면 강기 모래밭에 모여서 삼도천(三途川)을 건너 佛界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화찬은 : 부모 자식의 연연의 두텁지 못해 어려서 죽은 영아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핏덩어리들 태아 영기다. 추운 강기의 모래밭에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 그립다, 그립다면서 울고 있는 소리의 슬픔이 뼈를 깍는 것 같다. 영기들은 고사리 손을 모아 모래밭의 돌을 모아서 회향탑을 쌓는다.
한층은 아버지 생각하고, 한층은 어머니, 한층은 형제들을 위해서 회향하는 탑을 쌓으면서 기다리지만 밤이 되면 어느덧 지옥의 귀신이 찾아와 히루종일 쌓아올린 탑을 무너뜨려 버린다. 어린 영혼들은 서럽게 울다 지쳐 버리면 이때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단명해서 죽은 것이다. 이승과 저승은 아주 다른 세계여서 부모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 너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의지하여라' 하면서 걷지도 못하는 영혼을 자비의 사랑으로 감싸주신분이 수자지장보살이라는 「강기의 모래밭에 지장가요」. 수자지장은 '태아 영아'를 돌보는 명부로써 유포되어 영가 천도재를 올리는 깊은 신앙으로 남아있다.

※ **중음계에 떠도는 태아영가는** 3년 7년 13년 17년 23년이 지날때까지 빙치해두면 가족을 괴롭힌다고 한다.

저희 **구담사**에서는 태아 영가 천도 도량으로써 매년 두차례 (양력 3월 5일, 9월 5일) 49일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태아 영가 천도재를 잃어버린 태아(낙태, 유산) 영아를 천도하는 것이다. 천도하는 의미는 그 영혼이 남은 가족에게 악연을 맺지 않기 위함이요, 참회하는 마음이다. 태아 영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회 기도로 강전을 독송하고 시경기도로 업장소멸과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이 성문제가 되고 있는것도 이 뜻을 알면 낙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연을 쌓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의미에서 낙태아 천도재를 동참희시다.

- **입 제 일** : 양력 3월 5일(음력 1월 22일)
- **회 향 일** : 양력 4월 22일(음력 3월 10일)
- **49재 기도 동참금** : (10만원)
- **태아 영가 위패비** : 1위당 (5천원)
- **준 비 물** : 분유, 사탕(과자류, 초코파이등) 〈영가 혼은 사찰에 있음〉
- **교통안내** : 동서울 터미널 → 일동
  상봉터미널 → 일동 → 연곡4리 하차
  수유리 터미널 → 일동
  일동 하차 → 터미널에서 구담사 운행
  〈입재, 3재, 5재, 7재〉만 해당.
- **법회 당일 구담사 버스 운행** 〈입재, 3재, 5재, 7재〉
  양력 3월 5일 오전 8시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입구**
- **입금계좌** 국민은행 : 217-01-0339-914
  농 협 : 225050-56-033370

자세한 문의는 ☎ 031) 533-2855 / FAX 031) 532-2441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태아영가 접수만 받습니다.
※ 지방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위패 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행자스님,처사님
(기도하실 분)
함께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932-5706

각종의식, 불공 기타
스님 필요한곳
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오참법수행
엄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봄
영가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 017)859-1389

수산스님의
기체험
기치료
역학상담
02)3444-4376
www.bulljichon.com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우이동
02)992-7064
02)993-3065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40~60세 (대구)
011)507-165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상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정릉)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40~60세 울산
052)288-4520
011)860-8793

입산하여 원력을 가지고 수행할
행자모집
깊은 불심으로 일할
공양주 구함
▷ 북한산 노적사
02)353-5016
354-7900

포교사, 법사 자격시험
▷접수일자 : 원서 접수 후 개별통지
▷접수장소 : 매월 30일까지(우편가능)
▷응시자격 : 포교사 분야, 법사 분야
▷시험장소 : 민대 교학대학원 법회실
▷검정방법 : 서류전형, 논술과 면접
▷특전 : (1) 본회의 일정자격 부여
(2) 불교문화 신문사 포교
(3) 민대 교학 대학원 포교
법사과정에 편입하여 수료증 받을 수 있음
▷접수처 : 서울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대표전화 011) 412-8040
한국 불교 지도자 연합회

인생의 동반자 구함
63세 서울 거주 남성
마음이 순수하신 여성분
(55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19)875-3377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주방에서 일하실 공양주
와 종무보살님 **종무보살님**
을 모십니다
011)244-0265
031)286-0265

불자님들의 희소식
결혼해서 아이 못 가지신 분, 생리통, 생리불순, 관절, 허리디스크, 혈액순환, 견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치료함
금룡사 처사
011)655-0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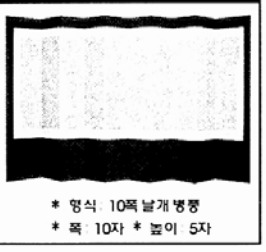
♣ 보 리 수 ♣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수강생 모집
범음 범패 및 각종의식
바라춤, 나비춤, 사물
배우실 분 연락바랍니다
017)550-6581

운전직으로
일하길 원합니다.
▷나이 : 38세
▷위치 : 서울지역
016)891-0310

가족처럼 평생 살
스님과 부전스님
모십니다.(비구니)
▷48세부터
사주도 보시는 스님
011)454-4669

꿈의 디지털 위성방송시대 개막 -
스카이라이프(Sky Life)
완성적인 화면 140개의 채널 자유 선택
최고의 화질 난시청지역 완전해결
가입비무료, 전화로 가입가능
02)424-9427
선착순접수에 따라 무료시청료 55% 시청전용 44% 렌드폰 20% 할인 되는 요금할인 혜택 전화거절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 보급 중 (1인 1대까지)
※ 한국정서 할인 적용에 서울로 본 그림은 분기타 유기체품 없음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많이 하신 스님께서 쓰신
* 순수 경면주사 영인본 10폭
* 원하시는 분께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형식 : 10폭 날개 병풍
* 폭 : 10자 * 높이 : 5자

사찰 종무소
여사무원 구함
▷은전면허 소지자 및 숙식가능자
032)522-0381
016)302-7711

산수 수려하고 도시
근접한 사찰에서 조
용히 기도하고 싶습
니다. 전화주세요.
(김천 이남, 사찰 중)
016)811-6787

이웃에 소외당하고 병고에 시달리고 가난에 찌드신 분, 허무함에 빠져서 임종을 눈앞에 두신 분, 질병의 구렁텅이에 빠지신분.
「요법연화경」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을 구원 내지 권유시켜 드립니다.
부처님께 맹세코 확신합니다.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을 시 연락부탁드립니다.
법회행자 도량 심원사 합장
복구입하시는데 힘쓴이 어려우신분 연락바랍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032) 519-1086/011) 9046-93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세 금호동
02)2234-3310

암자 별장 토굴 최적지
- 위치 : 경남 함양 병곡
- 천혜의 자연 경관으로 산새가 수려한 청정도량 천왕봉이 보이는 명당터
- 부지 : 1,017평
- 도로와 계곡이 접하고 있으며 자연석돌 많고 토목공사완료
- 가액 : 1억 3천만원
011)570-131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 대지 : 151평
- 법당 : 14평 2층 건물 (1층 요사채)
- 가액 : 2억 6천만원
- 특징 : 지하철 5분거리 광안리 앞바다가 보이는 전경
017)852-0244

사찰 안내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읍내에서 5분거리
- 법당 22평, 신신각 5평
- 창고 8평 요사채 40평
- 특징 : 남향, 입법당으로 단청 하였슴
- 가액 : 1억 3천만원
포교당 - 김해
- 신축건물 57평 3층
- 전세 7천만원
017)845-709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평수 : 242평
- 건물 : 4동 (요사채 2동, 산신각, 대웅전)
- 가액 : 1억
055)391-5369
016)772-5369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90평 · 가액 : 6억
- 위치 : 오산 · 법당 : 30평 · 요사 : 7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4억
- 위치 : 부산 · 요사 : 75평 · 법당 : 30평 · 부지 : 548평 (기와,단허필) · 가액 : 8억 5천
대출 3억 가능, 시내에 있으며 경내노송이 어우러져 산사냄새가 물씬 풍기는 운치있는 사찰임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856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역곡 남부역 앞 3분거리
- 법당 : 삼존불, 20평, 방 2개(요사채)
- 보증금 · 권리금 : 1,300만원
- 월세 : 35만원
- 도로변에 위치
017)232-3389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서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망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찰안내 **절터안내**
- 위치 : 통도사 부근 / 위치 : 마산 고성 중간
- 부지 : 445평 / 부지 : 730평
- 정남향 전망 최고 / 종교용지 : 400평 허가
- 법당 : 40평(6년 生) / 도로,전기,부지조성완료
- 주차장 유 / 가액 : 1억 3천
- 선원 포교원 최적지 / 적성산 5부능선에 위치하여 토굴 최적지
- 가액 : 1억 7천
영남지방 소재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佛國불사 018-563-9575
(www.pungsu-serve.com)

무 효 공 고
● 소재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207-26 대 여래사
2002년 1월 31일부터 상기 사찰명의의 사인 및 주지명의의 모든행위 일체가 무효임을 공고 함
2002. 2. 5
광고인 서영길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북한산속
- 대 지 : 1,0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35평
- 양도가 : 12억
※ 서울 최고의 전통 사찰 임
※ 천년고찰로 기도 정진 도량 임
- 위 치 : 서울시 근교
- 대 지 : 870평
- 법 당 : 40평(목조)
- 요사채 : 70평
- 양도가 : 6억
※ 산세 및 계곡이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정사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 대지 밭 합 600평 이상
- 신축한옥 30평 큰창고 2동
- 사철 맑은 계곡과 좋은 교통 및 경관
- 가액 : 8500만원
054)337-5156
011)9857-5156
박청산 합장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층
- 평수 : 35평
- 법당, 방 2개 주방 1개
- 보증금 :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 2천, 절충가능
02)598-1326
011)221-318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 부지 : 1,100여평
- 법당 : 10평
- 요사 : 22평
-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016)635-4569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50평
- 법당 : 23평 · 요사 : 23평 · 가액 : 2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신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지리산)
- 부지 605평, 황토 한옥 32평, 요사 9평 자연석 탑 둘레 25m, 연못, 남향 뒷산 5200평 매입 가능
- 가액 : 대출 5000만원에 현금 9천만원 공사비용 1억 9천만원
- 호굴터 2583평 중 대지 100평
- 가액 2천만원
055)963-4965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 2동 백양산 산하
- 대지 : 46평
- 3층건물 : 1층(방2, 주방) 2층(방3, 주방,욕실,화장실) 3층(법당, 주지실)
- 특징 : (이미타, 관음, 지장) 삼존불 봉안 후불탱, 지장탱, 약사탱, 신중탱화, 지장 58불, 석등, 물기, 에어콘 2, 생활용품일체
- 가액 : 1억 1천만원(농협대출, 3500만원포함)
051)343-6737
016)582-9580
017)372-8968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평수 : 40평 2층, 방 2개, 석가모니 부처님 한분, 지장보살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 전세포함 3천 오백만원 월 55만원
016)501-2725
055)328-0740

토굴(전원주택)안내
- 황토흙 건물 20평, 대지, 임야, 전답 : 793평
- 지리산 자락 계곡을 낀 한적한 토굴지(마을에서 10분거리)
- 가액 : 9천 5백만원
011)9759-625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토송동
- 대지 : 30여평
- 건물 : 요사 20여평
법당 10여평(2층)
가액 : 1억 7천
지하철역 300M 교통편리
도심지역 사찰운영 할 분 적합
016)417-4744

몸속 독(노폐물)을 빼자
수목의 힘으로 온몸을 상쾌하게 !!
"발바닥에 붙여 몸속 독을 빼는 배독요법" 일본 화제의 상품!!
효과 없을 시 환불 함

부모님께
가까운 친지에게
건강 선물
44,000원/30매 국산
50,000원/30매 국산 골드
50,000원/30매 스즈끼-일본산
- 발과 불편한(목, 어깨, 허리, 팔 무릎 등) 부위에 사용 경쾌하게 합니다.
- 자고나면 몸속 노폐물이 누렇게 변한 것을 직접 확인
- 취침전 발에 붙여서 상쾌하고 쾌적하게 하여 주는 건강상품
- 일본 이트 상품 / 국내 인기 상품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선물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피로하신 분 종일 서서 일하는 분(매장근무), 산후조리, 운동선수 / 항상 피곤한 분, 각종 사고 후 / 화공약품 및 유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 / 이. 미용실 등등
가자목초 / 가자라이프
(02) 5454-010
www.GAJA.TV
농협 063-02-124288 이수일
모 집
대리점 취급점
각 지역 홍보 사원

경남 사찰(급)안내
- 부지 : 약 3천평 · 법당 : 27평
- 요사채 : 50평 · 주지실 : 12평
- 삼성각 : 12평(목조)
- 특징 : 죄청룡 우백호가 두루 좌고 소나무가 우거지고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보임
- 주차장 : 200평 대형차량진입가능
- 가액 : 4억 5천 ※ 불사할 것 많음
017)844-9448
016)207-5600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 안내면
- 대지 : 등기상 135평 실평수 155평
- 건물 : 32평 1동 (방4개, 거실1개, 임식부엌1개, 임식화장실1개) 28평 1동(방3개, 거실, 부엌, 다용도실, 임식수세식화장실1개)
- 시내버스 집앞에서 하차, 도로변에 위치
- 스님의 공부관계로 매도
- 가액 : 6천 오백만원(기름보일러) 만약, 걸망풀어놓고 다니실 선방스님일 경우 가격인하 가능
043)732-7861/011)485-4661

포교원 안내
- 위치 : 남원시내 광화루 1000m 지점
- 부지 : 대지 161평 건물 25평
- 현시세 평당 40만원 절충가능 불사 할 수있는 도량
063)634-1592
011)9646-1592

사찰안내
- 위치 : 수원시내 칠보산
- 부지 : 400평
- 법당 : 35평 - 적벽돌 기와지붕 상단 목조 삼존불 (석가모니, 문수, 보현보살)
- 좌단 목조 관세음보살 우단 목조 지장보살(상호원만)
- 요사채 : 15평(방 4개)
- 특징 : 주차장 완비, 조경 완벽
- 가액 : 6억 5천
017)710-053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 1동 지하철역 인접, 교통편리
- 평수 : 대지 50평, 건평 150평, 공터 25평
- 구조 : 방 3개, 거실 · 주방 大, 임법당 후불탱화, 신잔탱화, 산신탱화 A급
- 가액 : 16000만원
051)331-9937
017)844-9937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겨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티어 아주 좋음
- 가액 : 4천 5백(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 해변
- 대지 : 64평 방 3 거실 1 창고 1 기름보일러
- 가액 : 답사 후 절충
- 경관수려 해안 인접
방에서 일출을 관망할 수 있는 정동향 조용한 수도처로서 전망이 양호 함. 등기필. 차량진입함
033)576-0959
011)687-6979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요암동 소재
- 부지 : 140평 중 법당 40평, 지목전
- 가액 : 3천 오백만원
- 차량진입 가능
- 서해안 대천 인터체인지에서 3분거리
011)9786-1368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 법당 2층 40평 방 3개
- 가액 : 3000만원에 50만원
시설비 900만원
032)887-0987

토굴안내
- 위치 : 포항 장기면 (경주 감포 10분거리)
- 부지 : 978평 중 450평 종교용지
- 건물 : 요사채 60평(임법당 포함)
- 작업실 : 20평
- 특징 : 바다근접
- 가액 : 1억 천만원
011)495-7754

기도중 비구니스님 폭행… LG건설 만행 이모저모



◇200여 비구니스님들은 21일 조계사에서 '여성 성직자 인권유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18일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주) 직원들에 의해 무참히 부서진 의정부 송추 농성장의 임시법당.



◇LG건설이 동원한 50여 청년들에 의해 중상을 입은 성타(왼쪽), 성환, 법현스님등 비구니스님들.

무참히 파괴된 법당

○…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주) 직원들이 18일 오전 7시 30분 의정부 송추농성장에 들어와, 포크레인을 동원해 법당 건물들을 무참히 철거했다. LG건설은 이날 9시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약속했지만 스님들이 아침 공양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사를 강행했다.

회룡사 스님들 중상

○… 성타, 성환, 법현 스님 등 회룡사 비구니 스님들은 LG건설이 동원한 50여명의 건장한 청년들에 의해 팔목인대가 늘어나고 가슴에 피멍이 들고 안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 스님들은 현재 의정부 신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주)측은 사과는커녕 병 문안도 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LG, 항의문 접수 거절

○… 북한산 회룡사, 월정사 지장암, 백양사 천진암, 동화사 양진암 등 전국에서 모인 200여 비구니 스님들은 21일 LG그룹본사가 있는 여의도 쌍둥이빌딩을 방문, 항의문을 전달코자 했으나 LG그룹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했다. 이에 앞서 스님들은 조계사에서 '여성 성직자 인권유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인터넷 항의글 잇달아

○…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를 비롯 각 교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비구니 스님을 폭행하고 가사를 찢고, 수십미터를 끌고 가다니' 등의 항의성 내용과 '조계종단 이번에는 제대로' 등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쳤다. 또한 'LG상품 불매운동 전개하자' 등의 글들도 올라왔다.



성보박물관대학 문화전법사 첫배출

통도사(주지 현문) 성보박물관은 20일 박물관 1층 홀에서 가진 통도사성보박물관대학 문화지도자 과정 수료식에서 33명의 문화전법사를 배출했다.

국내 사립박물관으로서는 최초 개설된 문화지도자과정을 마친 정만수 외 33명은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월드컵, 아시안경기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에서 문화포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불교교사대학 3기졸업식 거행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는 20일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법당에서 제3기 졸업식 및 4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어린이 법회 지도자양성 전문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이날 김명주 외 3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정규반 80명과 통신반 20명의 신입생으로 4기 과정을 시작했다.

"불교문화재 국제법 보호받게"

안영일 구청장 法博논문 "훼손·밀반출 국제기구서 제재"

불교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보호조치가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안영일 부산진구청장(부산삼광사 신도회장)은 22일 동의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국제법상 불교문화재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에서 "마약밀매 행위를 인류의 공적으로 단속하듯이, 불교문화재 훼손이나 불법적인 밀반출 등은 국제기구 관할권하에서 강력히 단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노력을 크게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한 국제적 응징', '불법 반출되거나 약탈된 문화재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제법의 해석과 국제조약 및 의정서 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이 중에서도 특히 전시나 무력행위로 약탈되거나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 노력으로 1954년의 헤이그 협약과 의정서, 1970년 UNESCO 협약의 기본정신, 1995년 Unidroit 협정 및 UN 총회결의 등에서 나타난 '원소유국으로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원칙'을 국제관습법에서 보다 구속력이 강한 강행법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씨는 "우리 정부가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방안과 국제법상 일반적 해결방법인 중개, 주선, 심사, 조정 등의 방법과 중재재판, 사법재판 등으로 문화재 되찾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구청장은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불교문화권 국가들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의 회원국들이 문화재보호에 관한 이념과 원칙으로 제시한 '공동유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불교문화권 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불교문화회원국심의회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15사단 신교대 군법당 건립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와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법당이 건립된다.

육군종합군수학교 호국관음사(주지법사 법광)는 오는 4월부터 부지 500평, 건평 60평 규모의 군법당 건립불사에 착수한다.일주문을 포함, 총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불사에는 조계종이 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15사단 신병교육대 천불사(주지법사 두흠)도 4월부터 부지 500평, 건평 100평의 군법당을 건립한다. 총 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불사에는 조계종에서 8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호국관음사=017-361-9600, 천불사=017-675-6868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목탁소리

공양주로의 변신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20일 정토회가 밝힌 4차 1000일 결사 사업계획에서 유독 눈길을 끈 부분은 前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유정길씨의 '공양주로의 변신'이다. 환경이라는 말이 생소했던 10여년전부터 환경 및 사회 운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던 유정길씨는 '불교환경=유정길'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불교환경운동의 '선구자'적인 존재다.

유정길씨가 10여년 일해왔던 환경교육원의 사무국장 감투를 버리고 이번 정토회의 조직순환에 따라 '공양주직'을 자청했다는 이야기는 신선한 감동을 준다. 유씨는 3월부터 정토회관에서 일하는 60여 상근자의 하루 세끼를 책임진다고 한다. "매우 파격적이다"는 말에 유씨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수 있도록 (공양주로서)뒷바라지 하고 싶다"고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출가한 행자가 가장 먼저 맡게 되는 일이 대부분 '공양간 일'이다.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만들고 하는 허드렛일의 반복을 통해 행자들은 그동안 알게모르게 배어있던 상(相)이나 자만심을 버리고 저절로 하심을 익히게 된다.

40이 넘은 나이에, 환경전문가로 불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명인사인 유정길씨가 공양간 일로 하심 쌓기와 수행에 매진해 가겠다는 결심은 '자리'나 '지위'에 집착하는 일부 교계인사들에게 경종이 된다. 발전과 쇄신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기는 커녕 욕을 먹으면서까지 장기간 요지부동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비춰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 같다.

부처님께서도 두타행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한 나무에서 3일 이상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다. 집착이 일어남을 경계하신 까닭이다.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 korea buddha co 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因緣
慈悲하시고 遠智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城 西翁謹書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第十五 阿氏多 尊者
化主寺 中

김문규 증인 등 검찰주장 반박

김태복장군 환송심

군법당 건립과 관련해 재판에 계류 중인 김태복 장군의 환송심 2차 심리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석탑 보시자 김문규(전 진천건설 대표) 씨, 극락사 주지 성엄스님 등 5명의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법정에 오른 김문규 씨는 "1996년 7월 7일 여단장 공관에서 김태복 장군에게 2천만원을 준 사실이 없다"며 "군 검찰은 본인이 김태복 장군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박봉영 기자

신림·봉천동 고시촌 포교 본격화

능인선원 등용사복지센터 건립…고시생 신행요람으로

설계착수…내년 착공 2005년 개관 목표

대법당·명상센터·도서관·강의실 갖춰

포교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봉천동 일대 고시촌에 대한 포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 지역 고시촌에 대한 포교가 이뤄질 경우 인근 지역포교 효과는 물론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 내 불자회 활동이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능인선원 원장 지광스님은 20일 법조인 불자들로 구성된 서초반야회(회장 김동건)가 주최한 법회에서 "신림동 일대 고시촌 포교를 위해 포교당과 고시수험생을 위한 신행과 휴식공간인 등용사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고시촌은 고시 학원과 고시원, 전문서점 등이 집중돼 있어 사법고시와 법무사를 준비하는 고시 준비생 5만여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지광스님이 밝힌 고시촌 포교계획에 따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8백여평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올해 초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600여평 규모의 '고시생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설계에 들어갔다. 능인선원 관악지원 등용사 종합복지센터는 2005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초 착공할 계획이다.

종합복지센터는 대법당과 명상센터, 도서관, 강의실 등을 갖추고 인근 고시생과 서울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고시 준비생들의 포교·신행 요람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부지 인근에 조그만 포교당을 임시적으로 마련해 법회를 여는 등 포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700여명의 고시합격생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사법연수원 법회의 참여인원이 30명에 불과한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고시촌 포교를 결심하게 됐다는 지광스님은 "미래의 인재들이 모이는 고시촌 포교를 하지 않고서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면서 "서초반야회 등 법조인 불자회와 함께 고시촌 포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반야회 김동건 회장은 "선배 법조인 불자로써 사법연수원을 비롯해 신림동 일대 고시촌 법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후배 법조인 불자를 포교하는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백혈병을 앓고있는 태훈군.

"백혈병 태훈이 살려주세요"

태훈(16·마산 삼진고 1년 휴학중)이가 급성 골수백혈병이 발병한 것은 지난해 5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뒤 갑자기 쓰러지면서부터다.

그 후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항암치료를 계속해오고 있지만 골수 이

수술비용 1억원 넘어 노동자 수입 감당못해

식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인 아버지 정대진씨(45)의 수입으로는 1억원이 넘게 드는 수술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다. 열흘에 200여 만원씩이나 드는 병원 치료비도 빚으로 계속 쌓여간다.

전화 : 02-734-8050 후원계좌 :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김철우 기자

경기불교문화원 내달 개원

3월1일 점안식…31일부터 본격 활동

수원지역 재가불교 신행의 요람이 될 경기불교문화원(원장 김태제)이 오는 3월 중순 수원시내 중심가에 문을 연다.

경기불교문화원은 지난해 말 수원 팔달문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최근 내부공사를 완료, 3월1일 오전 10시 법당 부처님 점안식(증명법사 정무스님)에 이어 3월 31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수원불교사암연합회 사무실을 비롯해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부 등 상당수 신행단체가 입주할 예정인 경기불교문화원은 2층 140평 규모로 마련돼 대법당, 회의실, 소모임방 등을 갖추고 각종 전통교양강좌 등을 개설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포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해 연꽃저수지 조성, 환경보존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원 프로그램 준비에 여념이 없는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원장은 "수원지역 24개 불교단체의 여법한 신행 공간 마련과 단체간 연합을 통한 결집된 힘의 필요성을 절감, 수원경기불교문화원 개원을 결심하게 됐다"며 "청년 불자 양성 등 인재불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31)251-3652

김재경 기자



조계사 청년회 '절하기 대회' 조계사 청년회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회 절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바른 절 수행법 보급과 신행문화 고취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개인과 단체로 나뉘어 합장, 합장반배, 3배, 7배, 향공양, 호궤합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인 20명, 단체 6개 팀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개인전 대상(한마음상)은 최희정씨가, 단체상(일심동체상)은 보시팀이 각각 수상했다. 김주일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방송

불교방송, 교계쟁점사항 등 질문

불교방송(사장 김규칠)은 25일 김근태 고문을 시작으로 3월 6일까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방송을 마련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 방송은 △25일 김근태고문 △26일 김중권고문 △27일 노무현고문 △28일 유종근 전북지사 △3월 4일 이인제고문 △3월 5일 정동영고문 △3월6일 한화갑고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 진행을 맡은 선상신 부장은 "북한산 관통도로와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등 불교에 대한 관심도도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의대·한의대 명칭 '불교종합병원'으로 확정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은 21일 182회 이사회를 갖고 경기도 일산에 건립중인 병원을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불교종합병원'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모두 3천2백20억3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승인하는 한편 교원 임용의 건 등을 처리했다. 김중근 기자

고속철 금정산통과 반대운동 확산

범시민대위 28일 부산역앞서 집회·가두행진

고속철 금정산 통과 반대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된다.

금정산 고속전철 통과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성오)는 28일 부산역 광장에서 범시민결의대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대책위원회는 이에 앞서 광장호텔에서 범어사, 부산환경운동연합, 금정산 지킴이본부 등 10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고속철 금정산 통과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불교계 사찰결연 협의

남북 민간단체 공동행사인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불교계는 이번 모임에 조계종 중앙종회 현각스님을 단장으로 태고종 총무부장 월해스님 등 10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남측 불교대표단은 조불련과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남북사찰 결연, 부처님 오신날 남북공동법회 봉행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모임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조선불교도연맹이 각각 남북불교계 대표로 참가한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령 공포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령'이 19일 제정 공포됐다.

신도전문교육기관(포교원에서 인가한 '불교대학')의 인가 및 관리규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신도전문교육기관령'은 전문교육기관의 인가요건을 1년이상의 학제, 4명 이상(조계종 승려 2인이상 필수)의 교수, 30명 이상의 입학정원, 학생 1인당 1.33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로 규정하는 등 불교대학 전반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영의 공포로 폐지되는 '불교(교양)대학 등록 및 관리령'(98년 제정공포)에 의해 2001년까지 입학한 후 졸업한 자는 포교사 응시자격이 2003년까지 부여된다.

김재경 기자

의성노인복지관 수탁

조계종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 지난 8일 경북 의성군으로부터 의성노인복지관을 수탁했다.

5월 개관예정인 의성노인복지관은 5백여 평의 3층 규모로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서예실, 공동작업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철우 기자

진천군에 종 박물관

내년초 착공, 범종 등 500점 전시계획

충북 진천군에 우리나라 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종 박물관'이 세워진다.

진천군이 지방비와 국가보조금 50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종박물관에는 범종을 비롯한 500여점의 종이 전시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우리 종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꾸민 한국관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종을 모은 세계관으로 구성되며, 중요무형문화재 112호 주철장 기능보유자 원광식(60, 성종사 대표) 씨가 기증할 150여 점의 종도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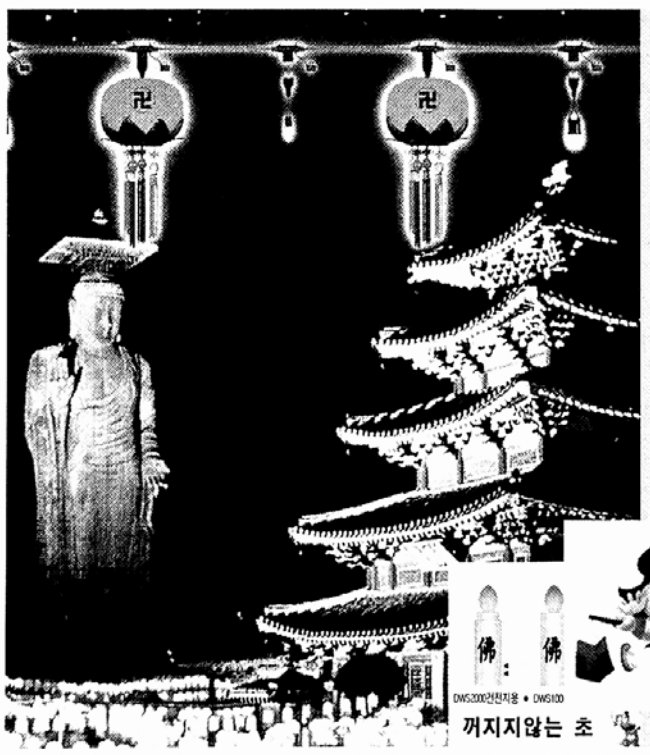
진천군은 올해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 2005년 봄에 개관할 계획이다.

진천군 문화체육부 이종혁 씨는 "진천의 철 생산 유적지인 덕산면 석장리 제철로와 연계한 문화관광 시설로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주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이 밝고 절전 요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2)2266-2634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3-2638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화엄' 밭에 '선종' 싹틔운 禪수련원

'해 오름의 고장' 양양에는 두 개의 유서 깊은 폐사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365호에 살펴 본, 외설악 석교리의 개똥지빠귀 날으는 진전사터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설악산 국립공원 남쪽, 미천골에 자리한 자작나무 원시림 속 선림원(禪林院) 터이다. 진전사가 하대 신라불교 최초로 선풍을 일으킨 선종 사찰이라면, 선림원은 처음에는 화엄종 사찰이었으나 이후 선종으로 전향, 당대 최고의 선 수련원으로 각광을 받았던 특이한 내력의 선종 사찰이다. 장뇌(長腦)싹 같은 선종의 묘목을 옮겨심기에는 번잡한 저자 주변의 대형 사찰보다는 외설악 둔전리 뜸에 '텃밭'을 일구거나, 미천 계곡 같이 송이 향내 진하고, 산봉나무 우거진 곳에 은밀히 타 종파가 먼저 일궈놓은 화전(火田)을 택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명약은 함부로 세상에 내 놓기 보다 오래 묵힐수록 좋은 법. 사람의 손때를 타면 아무리 영약일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도라지의 효과도 못 낼 것이기 때문이다.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설악산 미천골 선림원 터

▶불교사적 중요의미를 지닌 선림원터, 보물 444호인 삼층석탑.



◇거북의 모습과 용트림이 살아움직이는 듯한 흥각 선사 비(碑)의 귀부와 이수(보물 제 446호). 없어진 비신의 파편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흥각선사 부도(보물 제447호). 기단부만 남고 상륜부는 없어졌으며, 무도 중대석에 운룡문이 나타나는 최초의 양식이다.

선림원 터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에선 영동고속도로 속사리재에서 이승복기념관 쪽으로 꺾어들어 운두령을 넘으면 되고, 북쪽으로는 양양에서 오색약수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논화삼거리를 지나면 되는데, 우리는 이왕 진전사터 방향으로 길을 잡았으니, 56번 국도를 따라 이 길을 택하도록 한다. 논화리에서 우회전, 구절양장으로 몸을 뒤튼 육중한 산세에 압도되어 시오리쯤을 나아가면, 개울가의 역새풀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서부터가 미천골 계곡이다. 기다림에 지친 역새풀들은 인적이 하 그리워 허리가 꺾인 채로, 봉두난발로 지나가는 손님이면 아무나 붙잡고 아는 체를 한다.

순응법사 804년 창건

행정구역 상으로 양양군 서면 황이리 424번지, '하늘 아래 끝 번지'라 불리는 바로 그 동네다. 지도상으로는 태백산맥 줄기의 등고선이 겨울나무의 나이테처럼 빼곡이 에워싼, 양양군 인제군 홍천군 명주군이 살을 맞댄 곳이다.

선림원은 통일신라 시기인 804년에 장왕 5에 순응(順應)법사가 창건했다. 신라불교의 '반역자' 도의선사가 외설악 둔전리에 와서 진전사를 짓고 선종의 싹을 틔운 것이 821년으로 추정되니, 그보다 한발 앞서 화엄의 계보인 순응스님이 해인사(802년)를 창건한 직후, 무슨 생각에선가 부지런한 발길을 다시 이 곳으로 옮겨 남몰래 초막을 치고 화전을 부쳤던 것이다. 순응스님은 당나라 유학승 출신이면서 일찍이 가야산에 들어 초막을 짓고 도반인 이정(理貞)스님과 함께 수도를 하다가 애장왕 왕비의 등창을 고쳐준 대가로 하사금을 받아 해인사를 창건한 바로 그 인물이다. 순응법사 이후에 선림원에 들어와 사흘을 크게 중수한 사람은 흥각(覺)선사(?~886년)이다. 흥각선사는 구산선문 중 봉림사문(鳳林寺門)으로, 가지산파로 이어진 진전사 문중은 아니나, 이무튼 들어 하대 신라불교가 크게 사상적 요동을 치면서 그 와중에 화엄종의 스님들을 대거 선종으로 이적시킨, 실질적인 선림원의 주인인 것이다. 선림원터 한 켠에는 지금도 몸체는 잃어버리고, 탑신과 기단만 남은 흥각선사의 부도와 탑이 용트림을 하고 있다.

선림원터가 폐사지이면서도 유명세를 타는 것은 선림원 그 자체가 이렇듯 화엄의 밭을 갈고, 선종의 싹을 가꾼 불교사적으로 독특한 향기를 내는 까닭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뚝심의 강원도가 새롭게 터득한 시절 방편의 먹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선림원 터가 위치한 미천골 계곡 안 쪽에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1만2천여㏊에 이르는 자연휴양림이 있다. 산림청은 이 심산 오지에 숲 속의 집, 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통나무집 등을 지어 뭍육에 찌든 도시의 영혼들이 이용료 4~5만원을 주고 찾아들게 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덤으로 무너진 천년 고찰의 풍치를 가슴에 안고 가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또 양양군 쌀씻은 물이 계곡 가득 흘러넘쳤다 하여 지금도 '미천(米川)골'이라 불리는 맑고 투명한 물살이다. 인적이 없을 때는 만월봉(滿月峰 1281m)에 솟는 달을 보고 심심풀이 삼아 짖기도 했을 외딴 집의 개는 일단 외지인이면 경계부터 하고 보는지 민망할 정도로 산중 적막을 깨운다. 이왕 이 골 안에 들어왔으면, 선림원터에 가서 마음을 씻고 가든지, 휴양림에 들어가 몸을 씻고 가든지 둘중의 하나는 하고 가라는 압박이다.

휴양림 안내소에서 우리는 절터로 가는 답사객이라 해도 굳이 휴양림 주차장 이용료 2천원을 내란다. 폐사지 답사에도 돈을 내라니,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이내 축대 위에 자리한 선림원터에 이르자 산초나무 향기가 살속까지 파고들어 모든 번민을 단번에 탈여버리게 한다.

험준한 태백산맥 준령인 응복산(1360m) 자락에 바짝 등을 붙이고 일어서려다 그만 힘이 부쳤던지 주저앉은 형국인 선림원터는 무너진 채로 천년을 지났어도 전혀 볼품한 기색이 없다. 어느 게으른 사문이 산비탈에 모로 누워 긴 잠을 청한 것 같기도 하다. 일대를 다 둘러 보아도 고작 삼천여 평 남짓한데, 절 이름인 선림원에서 보듯 중생들의 기도처가 아닌 스님들의 수도처였기에 굳이 포대화상처럼 몸집만 키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선림원 터에는 형색은 망가졌으나 다가설수록 산중 진품의 향기를 풍기는 네 가지 보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윤생(輪生)하면 녹백색 잎새도 다 떨구고, 줄기도 사윈 채 삼층석탑(보물 제444호)과 석등(보물 제445호) 하나, 그리고 폭포소리같은 함(喊)을 먼지던 홍각선사의 탑(보물 제446호)과 부도(보물 제447호) 만이 명약의 향내를 풍기며 소담하게 서 있다.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 가슴을 멩멩 울리니, 한국 전쟁의 불 길속에 망실된 선림원터 범종이 생각난다. 상원사범종, 봉덕사 성덕대왕신종과 함께 신라시대 3대 범종으로 일컬어지던 선림원 범종은 1948년 해방공간의 어지러움 속에 밥굴되고 돌보기가 마땅치 않아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졌으나 한국전쟁 때, 퇴각하던 국군에 의해 절과 함께 소실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순응법사에 의해 창건 당시의 절의 조성 내력과 연대가 적힌 이 기념비적 보물은 어찌하여 세상에 나왔다가 잘못된 시절인연을 만나 사라지고 말았는지 진한 그리움이 긴 여운을 남긴다.

석조물 복원 1965년에

선림원터는 1965년 동국대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단에 의하면 금당터의 주초와 유물들이 고스란히 집단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절 역시 진전사터처럼 어느 시기에 산사태에 의해 일순간에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발굴된 유물이 모두 9세기 후반의 것이고, 그 이후 유물이 단 한점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폐사된 후, 한번도 복원된 적이 없어 보인다.

동국대 발굴팀은 선림원이 지형 때문에 강당을 없앤, 전형적인 일탑식 가람임을 밝혔고, 금당터 서북 편에 석등을 앞세운 조사당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 선림원터를 지키고 있는 네 점의 석조유물들은 무너져 있던 것을 1965년에 복원한 것이다. 동국대 조사단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 재복원된 삼층석탑은 언뜻 보기에 진전사터 3층석탑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보다 어딘지 중후한 멋과 기품을 풍겨준다.

일탑식 가람(1985년 동국대 발굴)…절터엔 석조유물 4점

폐사지의 발굴은 아마도 선림원터처럼 그 존재의 비밀은 최대한 밝히되, 남은 유적들은 정성을 다해 복원을 꾀하고, 원형은 원래대로 보존하는 것이 복원의 순리일 것이다. 현대식으로 성급하고 어설프게 되살리기 보다 있는 그대로 보살피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것이 모든 폐사지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 생각된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강릉 한송사, 신복사터 편

사람 · 자연 · 길이 만나는 곳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약속합니다

빠르고 편한 길을 이어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환경친화형 · 지능형 고속도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정화시스템으로 터널내 쾌적한 환경을 가꾸겠습니다

우수한 방음공법으로 소음이 적은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의 현재 노선은 환경적 측면은 물론 도로의 기능적, 경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최적의 노선입니다.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위 치 : 시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곡동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 연 장 : 36.3㎞(주 - 37.8㎞, 왕복 8차로)
• 사업기간 : 2001. 6 ~ 2006. 6
• 총사업비 : 2조 3,684억원
(연사 1조9,251억원, 국고 4,433억원)
• 주요시설 : 교량 50개소, 터널 5개소
출입시설 IC 5개소
(퇴당, 백제, 송추, 의정부, 덕송),
영업소 6개소(본선 : 고양, 남양주,
지선 : 퇴당, 백제 송추, 덕송)

노선의 선정 경위
• 기본설계
-'89.9~'91.3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북한산국립공원 중간(도봉산~주이령) 통과노선
-국립공원 통과연장 7.6㎞(터널 4.1㎞)
• 실시설계
-'96.12~'98.12 백제~퇴계원간 실시설계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국립공원 외곽인 사패산쪽으로 선형변경
-국립공원 통과연장 4.6㎞(터널 4㎞)

사업의 특징 및 효과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완성하는 최종 연결구간
•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 고속도로
-국립공원구간 최적단을 터널로 통과
-교량등 구조물 설계로 훼손 최소화
• 수도권의 종합적인 수송체계 확립
-도심통과 교통의 외곽우회처리
-효율적 교통처리에 의한 물류비용 절감
• 서울 및 경기북부 지역개발 촉진
•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일산~퇴계원)
• '97.2.1~'98.5.8 환경영향평가 착수,주민설명회, 공청회 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지답사 및 심의결과 회신
• '98.6~'98.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기관 공람
• '98.12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제출
• '99.2~'01.3.9개 대안노선 검토
• '01.3~'01.7 환경부, 노선 선정 재검토 및 환경단체와 협의(4회), 12개 노선중 현노선을 최적의 노선으로 건정
• '01.7.11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환경 관리 대책
• 사전,사후환경조사 및 터널특별 설계 시행
-사전조사
· 국립공원 통과구간 식생조사/자라수위 조사 완료, 동,식물 서식 실태조사 시행
-공사기간중 및 완료후 조사
· 지표식물 서식지 조사지점 선정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폐기가스 영향조사/지표 · 지하수 수질조사 시행
• 생태,대기,수질,소음,진동등 4개 분야 설물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
• 사업수행 활동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우회노선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4가지

산림훼손 면적이 1.6배가 더 큽니다

교통혼잡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더 늘립니다

특수시설등 지장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도로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전화 : 02)3704-03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5-10(청조빌딩)
www.seoulbeltway.co.kr